

ISSN 1226-5306

탐라문화

제6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06. 30.

탐라문화

제61호 2019.06.

차 례

일반논문

- 신석기시대 고산리유적과 주민집단의 성격 5
김 경 주
-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고찰 45
황 시 권
- 태평양 전쟁 말기 요카렌(予科練)의 제주도 주둔과 위안소 95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윤 · 고성만
- 병문천 복개 과정을 통해 본 탐동 매립 반대 운동 이후 30년 123
이 재 섭
-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의 조건인 새로운 '해게모니' 165
-제주4·3평화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이 정 원

연구원 소식

- 회 보 197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199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204
-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208

■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211
■ 『탐라문화』 편집위원 규정	215

총 목차

■ 『탐라문화』 창간호~60호	217
------------------------	-----

신석기시대 고산리유적과 주민집단의 성격

김 경 주*

- I. 머리말
- II. 자연환경의 변화와 층서
 - 1. 자연환경의 변화
 - 2. 고고학적 층서의 해석
- III. 고산리유적의 형성과 전개
 - 1. 유구와 출토유물
 - 2. 절대연대와 선후관계의 분석
- IV. 정주환경과 주민집단의 성격
 - 1. 정주성 환경의 인식
 - 2. 주민집단의 성격
- V. 맺음말

국문초록

고산리유적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출현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이다. 자연 과학 분석결과 유적의 상한연대는 9,000 BC를 상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적이 형성된 이후 신석기시대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취락이 조성된다.

고산리유적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으며 연안환경의 조성은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생업패턴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고산리 주민집단은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주성 취락을 형성하고 수렵채집과 함께 어로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영위하여 나갔다. 고산리유적은 이와 같이 정착과 이동을 병행했던 취락에 해당하며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이동보다는 수렵채집을 위한 소규모적 이동이 상정된다.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tamra1000@hanmail.net

고산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야외노지, 다량의 토기와 성형석기 그리고 대형 갈판은 장기간에 걸친 정주취락의 증거로 해석된다. 14C연대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고산리취락은 크게 신석기시대 초창기 이후 초기와 전기를 거쳐 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주제어 : 초창기, 정주취락, 생업경제, 고산리식토기, 주민집단

I. 머리말

고산리유적은 한국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고산리유적을 주제로 신석기시대 초창기 문화에 대한 해석을 위해 다양한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리유적의 전개과정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고산리유적의 고고학적 퇴적층과 출토유물의 맥락, 유구 어깨선에 대한 불확실성, 유적의 중심시기와 편년 등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러 차례 지점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조사방법을 동원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고산리취락의 정주환경과 주거구조에 대한 논의는 이분법적 논리만을 주장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조사환경과 연구자에 따라 해석의 프레임이 다르게 도출되기도 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학문적인 명제를 나름 발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 만점에 달하는 출토유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유구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유적의 성격을 해석하기 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고산리유적 내 야외노지만을 인정하거나 혹은 수혈주거가 아닌 원시적인 지상식 주거시설이 조성되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¹⁾

야외 집석식노지의 축조와 정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또한 다양한 유구와 절대연대 분석자료는 맥락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집석식노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주하는 환경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축조 및 확장을 반복하는 유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절대연대 산출결과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정주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지하듯이 대규모 집석식노지의 재활용 및 절대연대의 집중화, 대형 연석, 다량의 토기와 성형석기 제작은 동시기 정착환경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따라서 고산리에서 확인된 유구와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산리유적의 정주환경에 대한 고고학적 근거와 출토유물의 맥락을 분석하여 취락의 중심시기와 편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고산리 주민집단의 생업경제와 관련된 개략적인 모습도 해석해보기로 한다.

II. 자연환경의 변화와 층서

1. 자연환경의 변화

약 10,000yr BP 이전의 한랭·건조한 기후는 식물의 생육에 불리한 토지조건을 조성하지만 온난·습윤한 시대로 이행되면서 토지조건 변화와 함께 참나무속(*Quercus*)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²⁾ 이러한 기후 변화는 야생 식물의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초식동물 역시 증가하게 된다.

최근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일본열도는 14,000~15,000년 전 이후 해

1)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고산리유적 I(2구역)』, 2017a.

2) 崔基龍, 「韓半島 後氷期の 植生 및 氣候 變遷史」, 『韓國 新石器時代の 環境과 生業』, 東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第1回 學術會議 資料集, 2001, 49쪽.

수면이 현저하게 상승하며 10,000년 전부터는 해수면이 급격하게 올라와 조몬 전기중엽(6,000~5,500 BP)에는 현재보다 높아진다. 이것이 소위 조몬 해진에 해당하는데 이후 해수면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 조몬 후기~만기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간 내려간다.³⁾

조몬 문화의 형성배경으로 조몬 해진이 상정되는데 우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로 식생대가 확대되고 식물성 자원 이용도 가능한 조건이 갖추어진다. 이처럼 수산자원과 식물성 자원의 확대는 생업환경의 다양화로 연결되고 정착성을 확립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수혈주거지의 축조, 활발한 어로활동, 식물성 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다량의 토기 제작과 사용 등 조몬 문화의 특징적 요소는 조몬 해진의 진행과 함께 열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되어 간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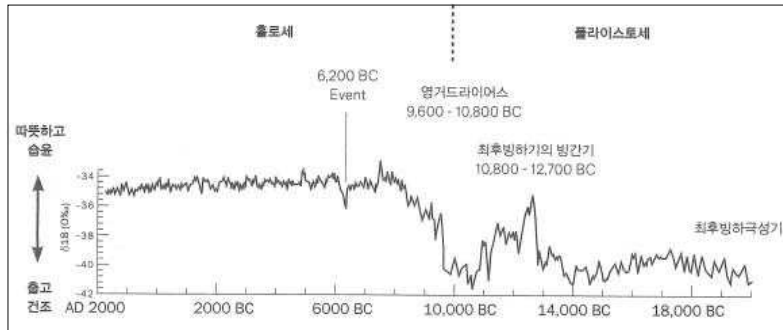
한편 제주도는 대략 15,000년 전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 정도 낮아 바닷물에 둘러싸인 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14,300년 이후 9,000년 전까지 MWP(meltwater pulse) 시기에는 해수면 변동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당시 주민집단의 생활영역 역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9,000년 전 이후의 고산리유적은 현재와 비슷한 해양성 기후로 바뀌게 된다.⁵⁾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수면 상승, 해양성 연안환경, 기후와 식생환경의 변화는 동식물상의 다양한 변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주민집단의 생업환경 역시 빠르게 바뀌어 나갔다고 추정된다. 특히 9,500년 전 이후 7,000년 전까지 지속된 해수면 상승은 고산리 주민집단의 생업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리유적이 장기간에 걸쳐 점유되었다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생업활동을 안정적으로

3) 하야시 켄사쿠, 『일본 신석기시대 생업과 주거』, 천선행 옮김, 사회평론이카데미, 2015, 58쪽.

4)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61쪽.

5) 임재수, 「동북아시아 후빙기 자연환경과 고산리지역의 환경 복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그림 1〉 후빙기의 기후환경 변화(스티븐 마이든, 2019에서 전재)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홀로세 중기의 약 6,000년 전 이후에는 연안지역에서 해수면의 상승과 여름몬순의 감소로 강수량이 줄어들었는데 제주도의 해안지대는 점차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C4식물이 증가한다. 또한 홀로세 후기인 3,100~3,000년 전에는 가장 춥고 건조한 시기(dry period)를 경험하게 된다.⁶⁾ 이처럼 홀로세 중기와 후기의 환경변화 역시 고산리 주민 집단의 생업환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산리유적은 절대연대 분석을 통해 기원전 7,600년경과 4,000년경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이 존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⁷⁾ 이것은 지질학적 환경과 절대연대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9,500년 전 이후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와 6,000년 전 이후의 기후변화기에 취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3,100~3,000 BP 즈음 한랭기에 접어들면 점차 취락이 축소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조몬 초창기⁸⁾~전기 전반에는 수산자원의 향상적 개발과 식물성 식

6) 임재수, 앞의 논문, 2016, 39쪽.

7) 김명진·이용주, 「고산리유적 퇴적층과 목탄분석을 통한 유적 형성과정과 점유시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54쪽.

8) 조몬 초창기는 12,000 BP에 시작되어 약 4,000년 정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AMS 연대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15,700~11,550 BP로 상향되고 있다(小林謙一, 「縄文時代前半期の實年代」, 『國立歴史民俗博物館 研究』).

료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 조몬시대 생업의 기본적 특징이 최후빙기에서 홀로세의 기후극상으로 넘어가는 환경변화 속에서 창출되었다. 예컨대 일본열도의 도카이(東海)·호쿠리쿠(北陸) 해안 저지대에서는 조몬 해진이 피크에 도달하는 전후에 상록활엽수림이 나타난다. 이러한 활엽수림은 견과류 공급원이자 동물성 식료의 자원으로서 조몬인의 생업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⁹⁾ 조몬문화의 전개과정을 고려하면 고산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다량의 갈돌과 갈판 역시 견과류의 가공처리에 의한 식량자원 확보의 에너지체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열도는 대략 15,000 BP 이후 식생에 큰 변화가 진행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일본내 토기의 출현도 동시기를 전후하여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¹⁰⁾ 이처럼 조몬 초창기 토기는 결국 후빙기 식생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고산리식토기의 등장도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아직 일본 열도와 같이 15,000 BP까지 올라가는 14C연대가 확보된 바 없지만 이 즈음부터 제주지역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성 연안환경을 갖춘 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제한다면 조몬 문화의 형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본열도 내 조몬문화는 후빙기의 환경변화에 적응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패류의 대량 처리를 위한 필요성에서 토기가 이용되었고 토기 발달의 배경으로는 후빙기의 환경변화와 식물질 식료를 중요시했던 점에서 기인한다.¹¹⁾ 고산리식토기의 출현과 제작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의 산물이며 식량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생업전략의 성과물인 셈이다. 고산리유적 일대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양성 연안환경으로 변

報告』第137集, 2007, 100쪽).

9)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122-126쪽.

10) 工藤雄一郎, 「縄文時代の 시작과 環境變動」,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53쪽.

11) 工藤雄一郎, 앞의 논문, 2013, 50-51쪽.

화되는데 수산자원에 대한 이용계획과 함께 어패류와 해조류의 식용과 저장방식에 대한 결과물로서 토기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산리유적은 후빙기 이후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식생과 동식물상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신석기시대 초창기에 출현한다. 더불어 퇴적층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결과 최하층인 화산쇄설물층(5층)은 기원전 11,000년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상층인 생토층(4층)은 기원전 9,000년 이전에 퇴적된 후 현재와 유사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고산리유적은 생토층과 그 상층인 문화층의 경계부분에서 유구가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형성시기는 기원전 9,000년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¹²⁾ 이는 유적에서 채취한 목탄시료의 방사성탄소연대 분석결과를 보면 8,350 BC를 초과하는 연대의 산출 사례가 없다는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¹³⁾

2. 고고학적 층서의 해석

2012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기준 층위를 살펴보면 문화층의 상부에 퇴적된 토층이 대략 70~90cm 정도로 매우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¹⁴⁾ 반면 제주고고학연구소의 조사구역은 문화층 상부 퇴적층이 20cm 미만으로 대조적이다. 이는 곧 I구역이 II구역¹⁵⁾에 비해 양호한 퇴적환경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II구역은 전자에 비해 불안정한 층서적 환경임을 가리킨다.

12) 러시아 극동연구소(2002년)에서 실시한 고산리식 토기의 14C연대 산출결과(10,180±65) 사례가 예외적이다(康昌和, 『濟州 高山里 新石器文化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215쪽). 따라서 토기의 출현기는 유적의 중심시기 보다 상향될 수도 있다.

13) 김명진, 「OSL 연대측정을 통한 제주 고산리유적의 형성과 점유시기 결정」, 『분석과학』 29(6), 한국분석과학회, 2016, 275-276쪽.

1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2014, 47쪽.

15) 발굴조사 대상지는 각각 I(제주문화유산연구원)구역과 II(제주고고학연구소)구역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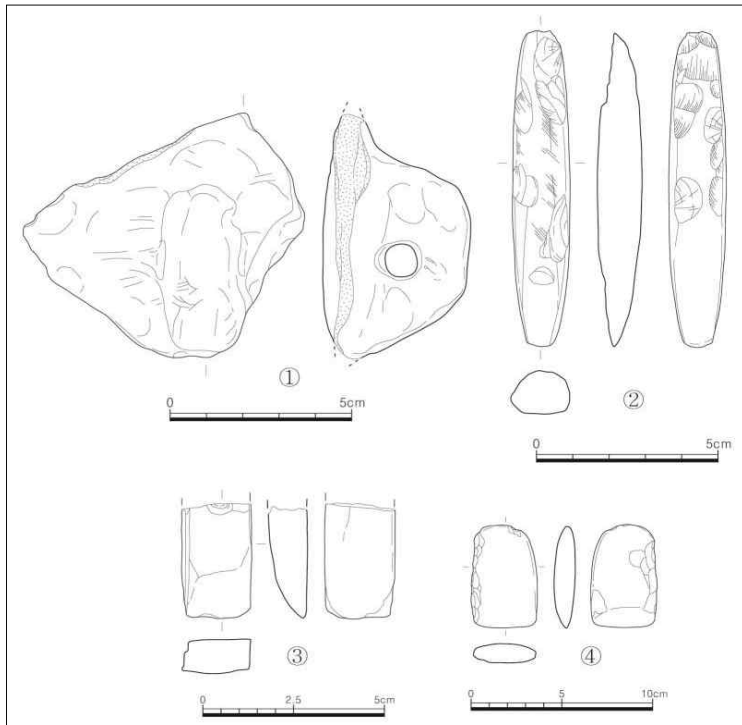
퇴적양상의 상이한 결과는 층서별 출토유물의 맥락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3>을 참고하면 Ⅱ구역 4층에서 고산리식토기와 함께 점열문·봉계리식·이중구연토기 등이 동반되는 사실로 입증된다. 즉 신석기시대 동일 문화층에서 여러 단계의 토기가 동반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층과 수혈유구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확인되는 사례도 있다. 이를테면 Ⅱ구역 탐색트렌치(<그림 2>-①), Ⅰ구역 N2E1(<그림 2>-②)과 S2W1(<그림 2>-③) Grid내 유물포함층, S2E4(<그림 2>-④) Grid 16호수혈유구내 출토유물은 청동기시대 송국리문화 단계의 표지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다.¹⁶⁾

이처럼 문화층에서 출토되는 토기류가 매우 폭넓은 연대폭을 보이는 점은 퇴적층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고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문화층이면서 동시에 청동기시대의 유구 어깨선과 상면(床面)이 축조되는 층서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고산리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분석결과에 대해 1~3차 발굴지역에 따라 측정연대가 다르게 확인되는 것에 주목하여 이동생활을 하는 여러 집단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점유했다는 견해가 있다.¹⁷⁾ 이러한 논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적내 전반적인 퇴적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즉 Ⅰ구역의 연차별 14C연대의 중심시기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1차~4차년도로 갈수록 유물포함층 상부에 퇴적된 토양의 두께가 얇아 3~4층에 대한 교란이 심하기 때문이다. Ⅱ구역의 문화층에서 도자기편과 청동기시대 토기편이 출토되는 현상은 고려시대 이후에도 신석기시대 문화층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이 점은 유적의 퇴적양상, 후축된 유구에 의한 교란, 문화층의 불안정성, 폭넓게 산출되는 절대연대관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16) 金慶柱,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青銅器學報』 6號, 韓國青銅器學會, 2010.

17) 소상영, 「제주 고산리 유적의 편년과 성격」, 『韓國新石器研究』 第33號, 韓國新石器學會, 2017, 14쪽.



〈그림 2〉 고산리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유물

한편 고산리유적의 비유구설과 중심시기에 대한 논의¹⁸⁾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구 내부토가 단일층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토양퇴적 양상을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 제주도에서 신석기시대는 물론이고 청동기시대 이후의 뚜렷한 유구 매몰토에서도 대부분 단일층으로 확인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주거지와 수혈유구간 출토유물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고산리유적이 장기간 점유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산리식토기

18) 소상영, 「고산리 유적 출토 토기의 자연과학 분석을 통한 제작기술과 사용연대 추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가 소상영의 주장대로 용기문토기 단계까지 지속되고 고산리식토기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셋째, 14C연대 분석자료를 참고하면 소상영 분류 IV~VI단계의 교정 연대 범위는 신석기시대 전기~후기의 범위에 해당하는데 동시기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고산리유적에서 측정된 절대연대(48점) 중 기원전 3,600~3,000년의 것은 4점에 불과하고 기원전 7,000년 이전으로 올라가는 절대연대는 18점, 기원전 6,900~4,500년에 13점이 포함된다. 따라서 신석기시대 초창기~조기의 편년을 가리키는 절대연대가 48점 중에서 무려 3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산리유적의 중심연대를 시사할뿐만 아니라 고산리식토기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점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I 구역의 기반토내 유구와 S3E5 Grid내 1호 소토유구 및 S2E4 Grid내 14호 수혈유구의 내부토에 대한 분석결과 점토광물상 및 입도특성 그리고 지화학적 특성에서 각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¹⁹⁾ 이러한 분석 결과는 3기의 유구 조성과 사용 그리고 폐기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3기의 유구가 모두 동시기에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성행과 폐기시기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폭넓은 절대연대 분석자료 역시 장기간 점유되었던 고산리유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토기의 형식학적 변화양상을 살펴더라도 고산리식토기→용기문토기→영선동식토기→봉계리식·이중구연토기 등 신석기시대 장기간의 양식적 변천과정이 확인된다는 점은 상술한 내용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고산리유적내 화산쇄설층이 자연적이고 불규칙적인 퇴적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구의 어깨선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²⁰⁾ 설사 그러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수혈

19) 한국지질환경연구소,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지역의 퇴적환경 변화와 유구 내부토의 토양 특성 연구」, 『제주 고산리 유적 III』,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244쪽.

20) 濟州考古學研究所, 앞의 책, 2017a, 211쪽.

주거지와 같은 평면구조를 갖는 불규칙한 노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5층의 불규칙적인 노면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을 설명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왜냐하면 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자에 따르면 화산쇄설층인 5층의 상부에는 문화층(4-1층)과 그 하부에 생토층(4-2층)이 퇴적되어 있다. 때문에 5층이 퇴적된 이후의 비문화층에서 유물이 출토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유구설의 논리를 주장하려면 5층의 윗면에 퇴적된 4-2층이 유물포함층이면서 문화층으로 상정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게다가 Ⅱ구역 보고자가 신석기시대 초창기에 조성된 야외노지와 수혈유구 그리고 지상식 주거지의 존재는 인정하듯이 동시기 유구가 축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N2W1 Grid내 1~3호 주거지와 1호집석식노지의 선후관계와 AMS연대 분석결과가 정합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고산리유적은 구역별로 다양한 퇴적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Ⅱ구역의 층위별 유물출토 맥락을 살펴보면 층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다수의 유구에서 바닥면인 화산쇄설물층에 연접하여 유물이 출토되는 점은 상면으로 이용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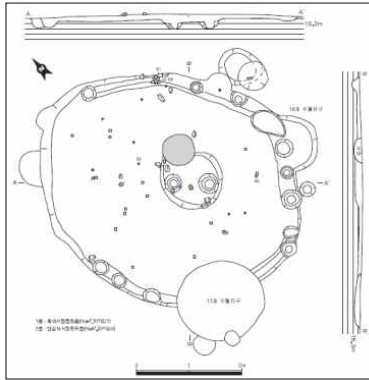
Ⅲ. 고산리유적의 형성과 전개

1. 유구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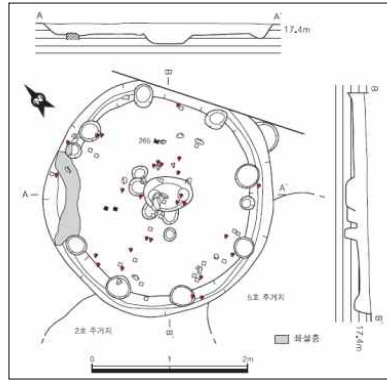
한반도 중부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I기(기원전 6,000~3,500년)에 해당하는 문암리와 오산리유적의 주거지는 원형과 방형이 상존하며 늦은 시기로 갈수록 방형주거지가 크게 증가한다. I기 주거지의 규모는 대체로 직경 3~4m이며 내부 중앙부에는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다.

중부 내륙지역도 평면과 노지의 형태가 동해안지역과 비슷하다.²¹⁾

고산리유적의 주거지 평면 형태는 원형을 기본으로 하며 규모(면적)는 10m² 이상(11동), 7~10m² 미만(12동), 7m² 미만(16동)으로 구분된다. 일본 구주지역의 조몬 초창기 주거지중에 5~10m² 내외의 비교적 소규모 사례가 알려진 바 있어 참고 된다.²²⁾



〈그림 3〉 I 구역 N4E1 Grid 1호주거지



〈그림 4〉 I 구역 S3E1 Grid 1호주거지

고산리 주거지는 평면형태와 규모면에서는 동해안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부 중앙부에 수혈이 배치되고 노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고산리와 동해안지역 I기의 주거지를 비교해 보면 평면형태와 규모는 신석기시대 전기까지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고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단면 V자상의 벽구시설과 주혈이 배치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벽구는 주거지의 벽체를 일주하거나 응결된 화산쇄설물이 노출된 경우에는 생략되기도 한다. 그리고 주혈은 벽구의 내부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지만 주거지 바닥면에 설치되기도 하며 불규칙적인 보조 주혈이

21) 具滋振, 「한국 신석기시대의 집자리와 마을 연구」, 崇實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22) 林間也, 「九州における縄文時代竪穴住居の變遷」, 『日韓新石器時代の住居と集落』, 日韓新石器時代研究會 제7회 발표자료집, 2007, 114-115쪽.

조성된 사례도 있다. 또한 내부의 중앙부에는 방형과 원형계 수혈이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양단 주혈이 배치되기도 한다.

〈표 1〉 고산리유적의 단계별 주거 유형(방문배, 2016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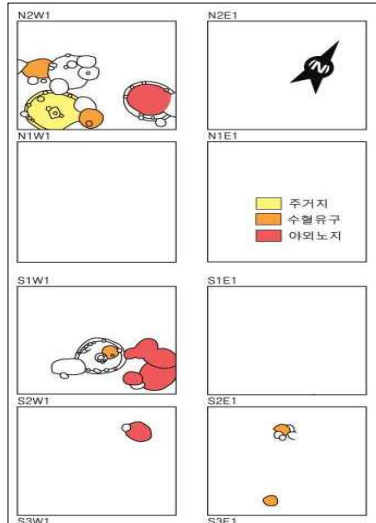
구분	방형	타원형	원형
수혈형태			
주혈배치	유	유	무
벽구시설	유	유	유→무
출토유물	고산리식/점렬문/무문양	고산리식/무문양/용기문	고산리식/무문양/용기문
단계설정	I 단계	II 단계	

수혈주거지는 내부 중앙에 설치된 수혈의 형태가 시간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방형수혈이 배치된 주거지는 고산리식토기가 주체적이며 무문양토기와 점렬문토기가 소량 출토된다. 반면 원형계 수혈이 설치된 주거지에서는 고산리식과 무문양토기가 동반되지만 용기문토기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방형→원형수혈 주거지로 시간축의 변화양상을 상정할 수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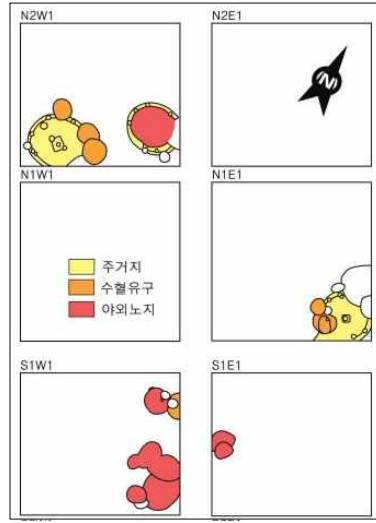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주거지는 방형(I 단계)→원형수혈(II 단계)이 배치된 주거지로 전환되며 전자는 고산리식토기와 무문양토기, 후자는 이전 단계의 토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용기문토기²⁴⁾가 증가하는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다.

23) 방문배, 「고산리유적 유구의 성격과 정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24) 용기문토기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5,700~5,500 BC에 시작되어 4,800~4,500 BC 정도까지 지속된다(하인수, 「남해안지역 용기문토기의 편년」,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2, 38-39쪽; 黃喆周, 「韓半島 東・南海岸地域 隆起文土器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2,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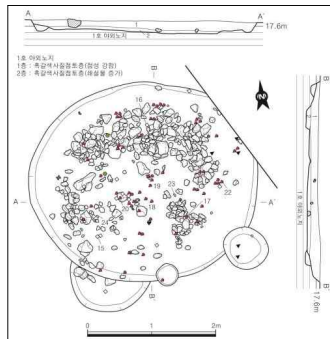


〈그림 5〉 절대연대(14C)별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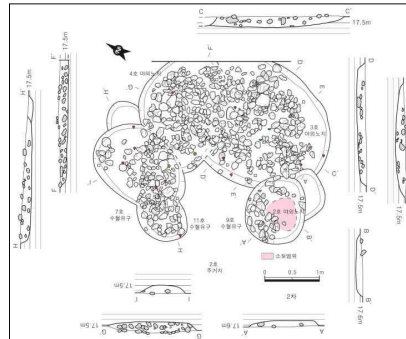


〈그림 6〉 단계별 유구배치도(Ⅰ단계)

고산리유적의 절대연대 분석결과<그림 5>와 주거지의 형식학적 단계설정<그림 6>을 참고하면 집석식노지와 1~2동의 주거지간 동시기성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N2W1 Grid내 배치도를 보면 방형수혈의 주거지와 집석식노지는 공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석식노지는 대부분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림 7〉 I 구역 N2W1 Grid내 집석식노지



〈그림 8〉 I 구역 S1W1 Grid내 집석식노지

반면 고산리유적에서는 모두 19기의 야외노지가 조사되었는데 집석식노지(9기)와 소토채움식노지(10기)로 크게 구분된다. 야외노지는 AMS 연대 측정결과 전자는 7,820~7,510 BC에 집중되고 후자는 2,920~2,610 BC의 빈도가 매우 높은 점으로 보면 이러한 형식적 차이가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한다고 여겨진다.²⁵⁾ 이처럼 고산리유적의 야외노지는 집석식노지가 선행하는 형식이고 소토채움식노지로 변화되고 있다.

집석식노지는 대체로 수혈식이며 내부에는 천석과 현무암 할석을 이용해 집석된 상태이다. 노지의 규모는 대략 직경 1.5~2m 내외가 일반적이고 3m 이상 되는 비교적 대형 노지도 조성된다. 집석식노지가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반면 소토채움 방식의 무시설식 노지는 산발적으로 축조되고 있다.

〈표 2〉 고산리유적 I 구역 출토 토기조성비

토기 \ 점유율	갯수	점유율(%)
고산리식토기	243	85.6
용기문토기	18	6.3
점렬문토기	8	2.8
압날문토기	2	0.7
각목문토기	2	0.7
무문양토기	11	3.9
합계	284	100

25) 서귀포시 인성리유적 3호집석식노지의 14C연대는 7,070~6,690 BC에 포함되며 반면 소토채움식노지는 대부분 3,650~1,950 BC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면 고산리유적과 매우 정합적이다(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사계-인성유적』, 201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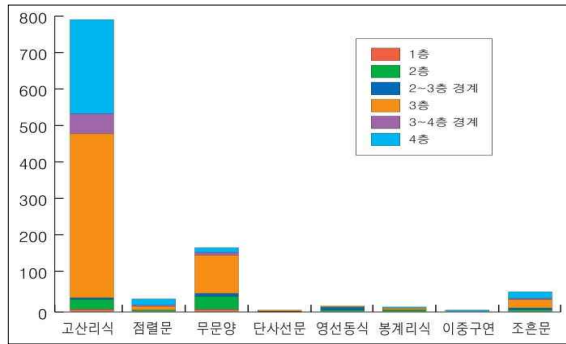
〈표 3〉 고산리유적 II구역 층서별 토기조성비

층위 토기	1층	2층	2-3층 경계	3층	3-4층 경계	4층	합계(%)
고산리식토기	3	27	2	450	55	258	795(79.3)
점열문토기	0	1	0	10	1	17	29(2.8)
무문양토기	3	35	6	105	5	13	167(16.8)
단사선문토기	0	0	0	1	0	0	1(0.1)
영선동식토기	0	1	3	1	0	0	5(0.5)
봉계리식토기	0	1	0	2	0	1	4(0.4)
이중구연토기	0	0	0	0	0	1	1(0.1)
합계(%)	6	65	11	569	61	290	1002(100)

<표 2>~<표 3>과 <그림 9>의 토기조성비를 참고하면 고산리식 토기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며 특히 4~3층에서 매우 높게 확인된다. 그리고 점열문토기의 출토맥락 역시 고산리식토기와 궤를 같이 한다. 무문양토기는 4층에서부터 출토되지만 오히려 3층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산리식토기와 점열문토기는 시간축이 병행하지만 무문양토기는 전자 보다 후행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영선동식토기는 3층에서 출현하며 그 상층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신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봉계리식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4층에서 동반 출토되는 점은 의문이다. 이는 4층이 후대 유구 조성과정에서 교란되었거나 아니면 재퇴적으로 인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표 4>의 초창기의 유적별 석기조성비를 살펴보면 먼저 고산리유적은 석촉과 석창 등 수렵구의 비율이 47.3%의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식량기공구가 42.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고산리 주민집단의 생업경제는 수렵채집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로활동(1.7%) 도구는 비교적 낮게 확인된다.



〈그림 9〉 고산리유적 II구역 층서별 토기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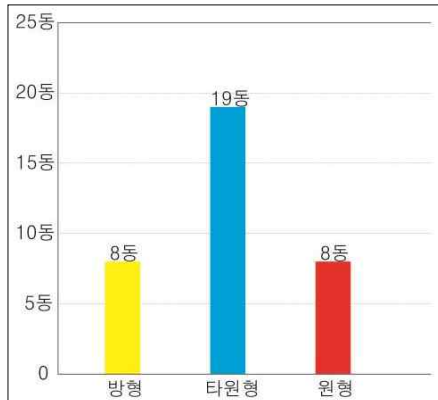
〈표 4〉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유적별 석기조성비

유적 \ 종류	수렵구 (%)	어로구 (%)	식량 가공구 (%)	장신구 (%)	방직구 (%)	가공구 (%)	기타 (%)	합계 (%)
고산리	305(47.3)	10(1.6)	277(42.9)	1(0.2)	2(0.3)	44(6.8)	6(0.9)	645(100)
김녕리	15(48.4)	0	0	0	0	16(51.6)	0	31(100)
오등동	32(66.7)	0	4(8.3)	0	0	9(18.7)	3(6.3)	48(100)
삼화지구	116(49.8)	0	101(43.3)	1(0.4)	0	13(5.6)	2(0.9)	233(100)
합계	468(48.9)	10(1.0)	382(39.9)	2(0.2)	2(0.2)	82(8.6)	11(1.2)	95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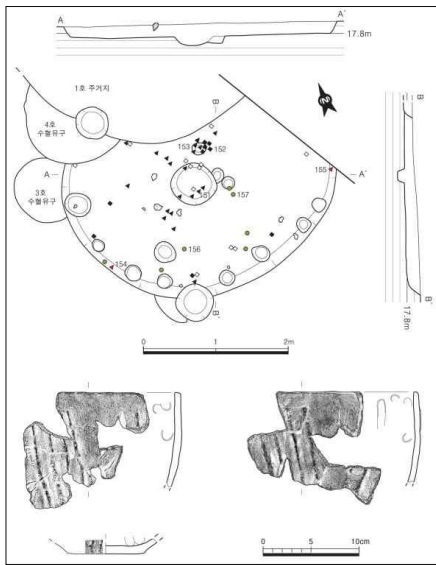
2. 절대연대와 선후관계의 분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방형→원형 수혈 설치 주거지, 야외노지는 집석식→소토채움식노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주거지 내부 중앙 수혈의 형태를 알 수가 없거나 설치되지 않은 5동을 제외하면 원형계(27동)가 방형(8동)에 비해 점유율이 높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용기문토기가 동반되는 신석기시대 초기 이후에 축조된 원형수혈 주거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주거지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δ^3) 측정결과에서도 방형수혈을 갖춘



〈그림 10〉 고산리유적 주거지 분포도



〈그림 11〉 I 구역 S3W1 Grid 2호주거지

N2W1 Grid내 1호주거지(7,710~7,520 BC)와 N4E1 Grid내 1호주거지(6,500~6,380 BC)에서 비교적 이른 역연대가 도출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⁶⁾ 더불어 S3W1 Grid 2호주거지<그림 11>는 중앙수혈이 원형이고 벽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벽체를 따라 등간격으로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이 유구는 용기문토기 1개체분이 출토된 점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에 조성된 주거지임은 분명하다.

다음 <표 5>의 주거지에 대한 절대연대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이른 시기의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첫 번째 그룹에는 8,350~7,520 BC의 범주에 포함되는 3동의 주거지가 해당된다.

두번째 그룹은 6,500~4,230 BC의 범주에서 4동의 주거지가 포함된다. N4E1 Grid내 1호주거지는 타원형수혈이 방형수혈을 파괴하고 후축

26) 두 주거지는 $\delta^{13}C(\%)$ 값과 표준편차가 매우 안정적이고 매몰토(폐기연대)에서 수습된 점을 감안하면 주거지의 조축연대는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표 5〉 고산리유적(Ⅰ구역) 주거지별 14C연대 분석결과

순번	Grid	유구명	시료	$\delta^{13}\text{C}(‰)$	Converntional ^{14}C yr BP.	Calibated age(BC/AD)	
						1 σ (68.2%)	2 σ (95.4%)
1	S2E4	1호주거지 내부 중앙수혈	목탄	-25.21	9040±60	8310(68.2%) 8220 BC	8350(82.5%) 8170 BC
2	N3E4	1호주거지 내부 중앙수혈	목탄	-29.57	8710±80	7840(67.4%) 7590 BC	7990(91.8%) 7580 BC
3	N2W1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7.30	8570±50	7610(68.2%) 7540 BC	7710(95.4%) 7520 BC
4	N4E1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7.64	7580±40	6470(68.2%) 6420 BC	6500(95.4%) 6380 BC
5	S1E4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8.7	6290±50	5320(68.2%) 5220 BC	5380(87.8%) 5220 BC
6	S1E5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5.36	5610±40	4490(68.3%) 4360 BC	4520(95.4%) 4350 BC
7	S4E2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2.40	5440±40	4350(68.2%) 4260 BC	4360(95.0%) 4230 BC
8	N3W1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3.05	4750±40	3640(64.8%) 3510 BC	3640(76.6%) 3490 BC
9	S2E4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4.39	4180±40	2820(37.4%) 2740 BC	2900(95.4%) 2630 BC
10	S2E4	1호주거지 매몰토	목탄	-27.78	4170±40	2820(35.5%) 2740 BC	2890(95.4%) 2620 BC

되었는데 6,500~6,380 BC의 14C연대가 산출되었다. 이 그룹의 주거지는 절대연대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중심 시기는 신석기시대 초창기 말기~전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세 번째 그룹은 3,640~2,620 BC의 절대연대를 보여주는 3동으로 전기~후기 단계에 위치한다.²⁸⁾

야외노지 역시 <표 6>을 참고하면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우선 고려되는 것은 N4E3 Grid내 1호소토유구를 제외하고는 7,000 BC를 상회하는 노지는 모두 집석식노지에서만 확인된다. 특히 집석식노지는 대

27) 河仁秀, 「嶺南海岸地域의 新石器文化 研究-編年과 生業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37쪽.

28) 세 번째 그룹의 주거지에서는 고산리식토기와 함께 무문양토기가 동반된다. 하지만 전형적인 후기토기는 확인되지 않는 점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표 6〉 고산리유적(Ⅰ구역) 야외노지 14C연대 분석결과

순번	Grid	유구명	시료	$\delta^{13}\text{C}(‰)$	Converntional ^{14}C yr BP.	Calibrated age(BC/AD)	
						1 σ (68.2%)	2 σ (95.4%)
1	S1W1	3·4호집석식 노지	목탄	-22.50	8660±50	7720(68.2%) 7590 BC	7820(95.4%) 7580 BC
2	N2W1	1호집석식 노지	목탄	-24.60	8610±50	7680(68.2%) 7570 BC	7750(95.4%) 7550 BC
3	S2W1	1호집석식 노지	목탄	-19.60	8600±50	7660(68.2%) 7570 BC	7740(95.4%) 7540 BC
4	S1W1	5호집석식 노지	목탄	-20.90	8540±50	7600(68.2%) 7540 BC	7650(95.4%) 7510 BC
5	N4E3	1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6.31	7980±50	7040(68.2%) 6820 BC	7060(95.4%) 6700 BC
6	S3E5	1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5.68	6930±50	5850(63.9%) 5740 BC	5920(92.9%) 5720 BC
7	S1E3	2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6.36	4240±40	2910(45.7%) 2860 BC	2920(53.2%) 2840 BC
8	S1E3	2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6.23	4150±40	2780(47.7%) 2660 BC	2880(95.4%) 2610 BC
9	N4E3	1호소토채움 식노지	목탄	-27.16	4180±50	2820(54.5%) 2670 BC	2900(95.4%) 2620 BC

부분 7,820~7,510 BC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안정적인 연대이며 또한 동시기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산리유적의 초기에는 집석식노지가 조성되었고 반대로 5,920 BC 이후로는 소토채움식노지가 주류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S2E5 Grid내 5호수혈<그림 12>에서는 고산리식토기 1개체분(<그림 15>-①)이 출토된 바 있다. 토기의 하단과 주변으로는 10cm 내외의 현무암이 적석 되어 있으며 피혈흔도 관찰된다. 유구에서 산출된 14C연대를 수용하면 고산리식토기는 적어도 기원전 8,020~7,680년 경²⁹⁾에는 출현하였다는 사실이 출토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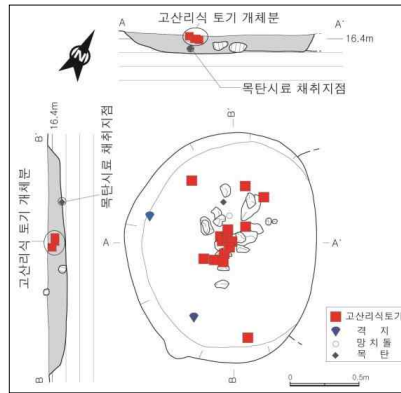
N4E3 Grid내 1호소토유구의 매몰토<그림 13>에서는 모두 4개 층이 퇴적되어 있는데 1층(2,900~2,620 BC)과 2층(7,060~6,700 BC)에 대한

29) 목탄시료는 고산리식토기의 하단부에서 수습되었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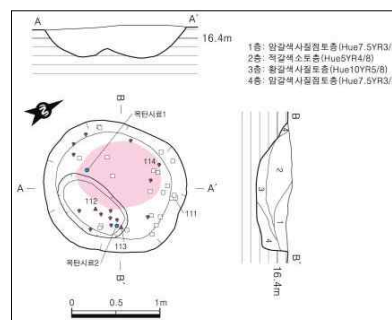
절대연대 분석결과 큰 시기차를 두고 매몰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즉 1층은 1호소토유구가 폐기된 이후 후축되거나 교란된 층으로 절대연대의 심각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토유구 내부 매몰토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4~2층까지는 일정한 방향으로 매몰된 반면 1층은 2층의 매몰토를 파괴하고 반대 방향으로 퇴적된 것이 확인된다. 이를 참고하면 결과적으로 1층은 4~2층과 시차를 두고 후축된 유구의 매몰토임을 알려주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구의 선후관계와 매몰토의 양상 그리고 AMS연대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신석기시대 초창기~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적이 존재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S2E4 Grid내 1호주거지는 상부에서 다량의 목탄이 노출되었는데 14C 분석결과 대체로 2,900~2,620 BC의 역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주거지 내부의 중앙 시설에 대한 절대연대 분석결과는 8,350~8,170 BC가 산출되어 매우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호주거지가 시기를 달리하는 유구와 서로 중복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고산리식토기 단계의 주거지가 축조된 이후 신석기시대 후기의 유구가 후축되고 심지어 청동기시대의 16호수혈유구가 재차 주거지의 동벽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³⁰⁾. 또한 N2W1 Grid내 18



〈그림 12〉 I 구역 S2E5 Grid내 5호수혈유구



〈그림 13〉 I 구역 N4E3 Grid내 1호소토유구

호수혈유구도 3점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1점(7,510~7,180 BC)을 제외하고 2점은 각각 4,710~4,500 BC와 3,470~3,370 BC의 편년이 산출된 바 이와 같은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 이처럼 동일 유구내 절대연대 결과의 큰 편차는 퇴적과정에서 시기를 달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교란되거나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웅변해 준다.

N2W1 Grid의 조사결과 1호주거지→13호수혈→14호수혈유구 순으로 축조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행하는 1호주거지의 절대연대 분석 값은 7,710~7,520 BC로 산출되었고 후축된 14호수혈유구는 3,960~3,710 BC에 위치한다. 따라서 유구의 축조순서와 절대연대 편년이 매우 정합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또한 S1W1 Grid내 집석식노지의 중복관계를 살펴보면 3호→4호→5호 순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절대연대 분석결과에서도 3호와 4호노지(7,820~7,580 BC)가 5호(7,650~7,510 BC)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위치하고 있다.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유구의 축조순서와 절대연대의 양상에서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전술한 내용들은 유구와 AMS 분석자료의 선후관계가 매우 정합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고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IV. 정주환경과 주민집단의 성격

1. 정주성 환경의 인식

연중 거주를 의미하는 정주생활은 고고학적으로 저장시설, 주거지, 무덤 등의 영속적 시설과 함께 토기, 갈판 등의 무거운 유물과 계절적 연속성을 증명하는 동물유체가 활용된다. 그리고 취락을 영구적인 정착 개념의 정주로 인식하면서 이동과 정착의 과도기적 단계를 '반정주'라는

30) 동 주거지와 내부 중앙시설은 동일한 흑갈색사질점토(Hue7.5YR2/1)가 퇴적되어 있으며 반면 주혈의 충진토는 암갈색사질점토(Hue7.5YR3/4)가 매몰되어 구별된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유적Ⅲ』, 2017, 93-95쪽).

용어로 정립하기도 한다.³¹⁾ 더불어 정주는 하나의 거주 공간에서 연중 지속되는 거주방식을 의미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을 줄이고 비교적 오래 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집단의 일부라도 같은 장소에 연중 거주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³²⁾ 더 나아가 몇 채의 주거가 동시에 존재하고 그 토지와 주거가 계속 또는 반복해서 이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주의 필요조건으로 논의하는 사례도 있다.³³⁾

동아시아 일대 신석기시대 초창기 정주취락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우선 러시아 아무르강과 연해주 일대에서 1만 년 전부터 얇은 반수혈주 거지가 확인되고 있지만 기원전 6,000년 이후 주거지와 저장혈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다.³⁴⁾ 후빙기의 아무르강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이 풍부하고 강에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주민의 이동을 최소화 시키는데 토기 제작을 위한 점토 채취과정은 단계적으로 반정주생활에서부터 가능하게 된다.³⁵⁾

후빙기 이후의 환경변화는 수렵채집 위주의 생업경제와 함께 바다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상정된다. 이는 당시 주민집단의 다양한 식량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자원의 획득으로 인해 바다와 인접한 곳은 반정주적인 성격의 유적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수렵채집 행위의 병행은 주변지역으로의 활동영역 확대라는 두 가지 에너지체계를 갖추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해양환경의 변화 이전에는 수렵채집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생업시스템이 점차 바다를 활용하는 생계패턴으로 다변화되었다고 정의할 수

31) 安承模, 「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 출현의 상관관계-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韓國新石器研究』 第11號, 韓國新石器學會, 2006, 26쪽.

32) 유지인,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1쪽.

33)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406쪽.

34) 安承模, 앞의 논문, 2006, 36쪽.

35) 김재운, 「아무르 강 하류와 연해주의 신석기 초창기 토기」, 『韓·日 初期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64쪽.

있다.

중국에서는 초창기의 토기가 기원전 10,000년을 전후하여 출현하고 7,000~5,000 BC의 북중국에서는 이미 농경과 정착 생활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³⁶⁾ 또한 일본 열도에서도 조몬 초창기에 수혈식주거지³⁷⁾가 등장하는데 시즈오카현(靜岡縣) 쿠즈하라자와(葛原沢)Ⅳ유적을 비롯하여 토치기현(栃木縣) 노자와(野沢), 아마나시현(山梨縣) 우에노하라(上野原) 유적³⁸⁾에서도 확인된다.³⁹⁾

최근 남한지역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양양 오산리와 고성 문암리유적에서 기원전 6,000년을 상회하는 연대 값이 도출되어 주목된다.⁴⁰⁾ 이처럼 한국에서도 기원전 6,000년 경 두 유적을 시작으로 취락이 등장하였고 기원전 4,000년경에는 본격적인 정주취락이 출현하기 시작한다.⁴¹⁾ 무엇보다도 오산리와 문암리에서는 주거지를 비롯해 토기요지와 함께 저장과 매장시설 등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신석기시대 초기에 이미 정주의 성격을 갖춘 취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요컨대 동아시아 일대는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에 정주 혹은 반정주의 취락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기원전 6,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주취락이 조성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36) 리 평, 『중국고대사』, 이청규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42-44쪽.

37) 조몬 초창기 수혈식 유구 출토 토기편의 탄화물에 대한 절대연대(AMS) 측정결과 교정연대는 13,700~13,200 BP로 이르게 나타난다(고바야시 겐이치, 「일본 초창기의 주거 연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104쪽).

38) 우에노하라유적은 기원전 9,500년경 조몬 초창기 처음으로 등장한 정주취락에 해당한다(스티븐 마이든, 성춘택 역, 『빙하이후-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462쪽).

39) 國立歴史民俗博物館, 『縄文はいつから!?—1万5千年前になにがおこったのか』, 國立歴史民俗博物館 企画展示, 2009, 49-51쪽.

40) 구자진, 「한반도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특징과 전개양상」, 『한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한국신석기학회 학술총서1, 2009, 300-301쪽.

41) 배성혁, 「신석기시대 취락의 공간구조」, 『韓國新石器研究』 第13號, 韓國新石器學會, 2007, 2-3쪽.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의 고산리유적에서도 초기의 반정주성 취락이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후와 해양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 수렵채집 중심의 생계패턴에서 바다자원을 활용하는 생업시스템이 추가되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수렵대상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주민집단 역시 이주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초식동물에 대한 수렵은 비고차로 500~600m, 직선거리로는 100km 이내의 소규모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소형의 초식동물은 정착성이 높는데 일본 사슴의 생태를 관찰한 결과 한 개체군의 계절이동은 20~30km 범위에 불과하다.⁴²⁾

〈표 7〉 거점유적과 주변유적의 직선거리(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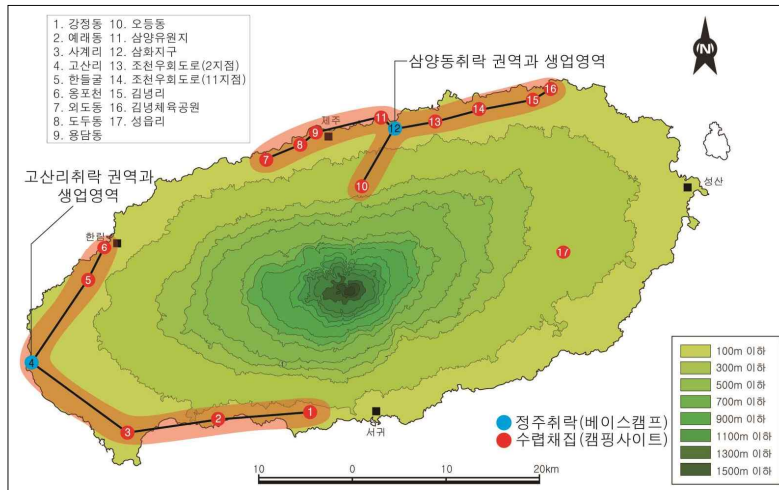
거점유적	유적명	직선거리	성격
고산리	한들굴	9.4	캠핑유적
	사계리	13.4	캠핑유적
	옹포천	13.9	수렵공간
	예래동	22.3	캠핑유적
	강정동	30.7	중심지유적
삼양동	용담동	7.0	수렵공간
	도두동	7.7	캠핑유적
	오등동	8.7	캠핑유적
	조천리	11.7	캠핑유적
	외도동	13.6	캠핑유적
	김녕리	17.5	캠핑유적

상술한 내용을 반영하면 고산리유적은 해안과 맞닿은 곳에 위치하므로 수렵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이동거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고산리 주민집단은 중소형 초식동물의 수렵, 수산자원의 활용, 견과류의 획득, 그리고 자생식물의 자원화를 통해 반정주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신석기시대 초창기유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며칠(2~3일) 이내에

42)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475쪽.

왕복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7>과 <그림 14>를 참고하면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⁴³⁾의 유적은 고산리유적을 중심으로 볼 때 반경 30km 내외의 영역권에는 한들굴, 옹포천, 사계리, 예래동, 강정동유적 등이 위치한다. 이에 반해 삼양동유적은 고산리에서 40km가 넘고 심지어 김녕리는 직선거리로 60km 이상 벗어나 있다. 유적간 거리를 고려하면 오등동을 비롯한 용담동, 조천우회도로, 김녕리는 삼양동유적과 연계된 생업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14〉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거점과 생업영역(박근태, 2016에서 재편집)

이처럼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는 고산리와 삼양동유적을 거점으로 주변 30km 이내의 수렵채집 및 식량원 획득범위를 갖춘 주변유적이 산재한다는 결과를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은 곧 베이스캠프의 성격을 갖는 두 곳의 정주 혹은 반정주취락을 중심으로 식량원 획득을 위

43) 유적의 성격은 박근태의 논고를 참고하였다(박근태, 「고산리유적의 석기조성과 생업」,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226쪽).

한 소규모 캠핑사이트가 일정 영역내에 분포하는 것을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산리에서 출토된 다량의 성형석기는 유적의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수렵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가공과 제작을 위한 석기 제작장으로 활용되었고 주거와 관련된 부가시설의 축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고산리식토기가 이동성이 강한 소규모 수렵채집 집단의 조리⁴⁴⁾에 일회용으로 사용된 후 폐기되었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⁴⁵⁾ 필자는 이와 같은 견해에 동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동성이 강한 소규모 집단이 일시적인 취사를 위한 토기제작으로 보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고산리식토기와 주변 토양의 화학적(광물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특정지역의 선택된 흙으로 제작되었다는 점⁴⁶⁾도 좋은 품질의 토기제작을 위해 다양한 실험적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조리 혹은 취사와 관련된 탄착흔과 그을음 및 산화소실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⁴⁷⁾

또한 조몬 초창기(전엽)의 용기선문토기는 환저 혹은 첨저에 가까운 환저 등 다양한데 자비용 토기는 환저와 첨저가 불에 닿는 면적(열효율)이 평저보다 높다.⁴⁸⁾ 현재 고산리식토기는 원저 1~2점을 제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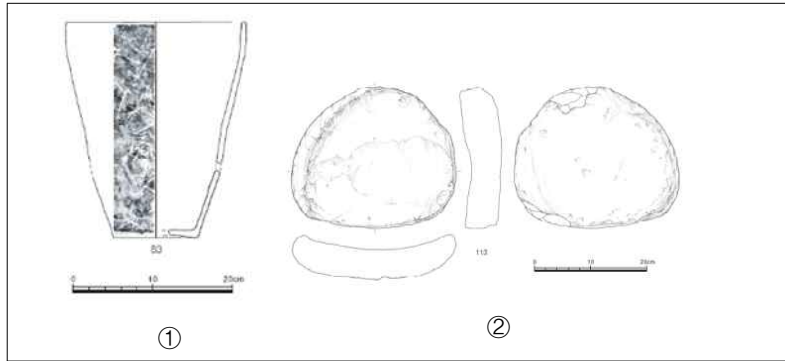
44) 패류와 견과류는 상온건조와 훈증 등의 전처리를 위해 끓이는 경우가 많고 탄닌과 기름제거 및 추출(油脂)의 수단으로도 발전한다(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천선행 옮김, 2015, 482쪽). 최근 조몬 초창기 토기의 탄화물 분석결과 식물성 식료뿐만 아니라 육상동물과 수산자원을 포함한 동물성 식량의 조리에도 토기가 사용되었다(다나카 소이치, 「동아시아 신석기 시대 연구로 본 제주도 고산리 유적의 위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6, 265쪽).

45) 소상영, 앞의 논문, 2016, 203쪽.

46) 강정동과 오등동, 김녕리유적의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은 동유적 출토 고산리식토기와 화학적으로 동질성이 높아 바탕흙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산리유적은 다르게 확인된다(장성운·이기길, 「왜 고산리식토기에 식물 비집이 사용되었을까?」, 『한국상고사학보』 제102호, 2018, 18쪽).

47) 정수옥·나가토모 토모코, 「토기의 탄소부착흔을 통해 본 소성과 조리방법」, 『韓國上古史學報』第65號, 韓國上古史學會, 2009.

48) 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91-92쪽.



〈그림 15〉 고산리유적 출토유물(① 고산리식토기 ② 대형 연석)

는 대부분 평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일시적인 자비용기로 단정짓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⁴⁹⁾

고산리식토기는 7,600 BC를 전후하여 출현하고 4,500 BC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⁵⁰⁾ 이러한 주장은 고산리식토기의 제작과 사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다량의 성형석기의 제작과 대형 연석⁵¹⁾, 집석식노지의 활용은 고산리유적이 장기적으로 점유되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인 셈이다.

2. 주민집단의 성격

고산리유적은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수렵과 석기제작을 위한 장소이며 또한 고산리식토기는 이러한 석기제작과 관련된 일시적인 취사용 도구로 이동성이 강한 집단이 장기간 동안 점유했던 유적으로 해석하

49) 일본 내 용기선문토기 단계 이전의 토기는 취사 흔적이 많지 않다. 때문에 일상적인 조리보다는 한정적이고 계절적 이용으로 상정하는 논의가 있다(工藤雄一郎, 앞의 논문, 2013, 55쪽). 또한 담그기 혹은 발효처리 식품의 저장수단으로 토기에 보관하는 경우도 확인된다(하야시 켄사쿠, 앞의 책, 2015, 482쪽).

50) 소상영, 앞의 논문, 2016, 203쪽.

51) 대형 연석은 그 무게(7,680g)를 감안하면 고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는 견해가 있다.⁵²⁾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와서 점유하고 이동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매우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아무리 단기적으로 반복 점유되었더라도 다량의 고산리식토기와 성형석기, 연석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러한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고산리유적은 석재를 채집하고 석기를 제작했던 석기제작장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량의 유물이 확인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⁵³⁾ 석기제작만을 위한 이동성이 강한 주민집단의 일시적 점유라면 굳이 성형석기를 다량으로 제작하여 폐기하거나 식량의 조리를 위하여 많은 양의 토기를 제작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석재만을 확보하여 이동하거나 아니면 석기제작 후 고산리유적을 이탈하여 목적지로 빠르게 귀환한다면 다량의 성형석기와 토기제작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표 7>을 참고하면 정주취락(베이스캠프)에서 수렵공간인 주변유적(캠핑사이트)이 2~3일 이내의 단기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 것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준다.

오히려 일시적인 점유와 이동을 위해서는 더욱 더 이동성이 강한 유물조합이 발현되어야 하지만 고고자료에서는 정반대로 구현되고 있다. 예컨대 일시적이고 이동성이 강한 주민집단으로 해석할 경우 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유구의 축조, 성형석기와 토기의 대량 생산, 대형 갈판과 같은 정착형 생업도구의 제작, 대규모 집석식노지의 축조, 절대연대 분석 자료에서 도출되는 초창기~조기 중심의 장기적인 유적 점유 현상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 어렵게 된다.

고산리 주민집단은 다변화된 생업경제를 영위하기 위해 정주성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 일시적으로 이탈하여 수렵활동 후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고산리유적은 수렵채집 집단이 복합생계의 중심인 거점유적을 기반으로 원거리 수렵활동을 위한 베이스캠프적인 기능을 하였고 이는 바로 정

52) 소상영, 앞의 논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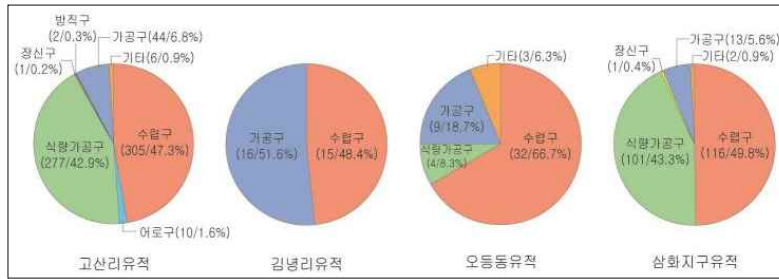
53)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고산리유적Ⅱ(2구역-2차)』, 2017b.

주 혹은 반정주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이동성이 강한 수렵 채집민이라면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거점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수렵채집과 같은 식량자원의 획득은 결과적으로 자원을 따라 이동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이동성을 지닌 집단이 고산리 유적에서 반복적으로 거점을 확보하고 이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단기적일지언정 반복적인 점유를 했던 유적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저장과 정주의 개념이 포함된 생업활동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반복적인 점유의 원인에는 대규모의 정주취락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일정 규모의 취락을 구성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로 보건대 고산리유적은 신석기시대 초창기 이후 주민집단의 정주화 혹은 반정주화된 취락으로 해석되며 수렵채집과 어로활동을 병행하는 생업경제⁵⁴⁾가 유지되었다고 추정된다. 그것은 많은 양의 고산리식토기가 모두 조리에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저장과 발효 및 자비용 등 여러 기능에 활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지역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유적별 석기조합상(<표 4>와 <그림 16>)을 살펴보면 수렵채집이 주된 생업시스템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수렵구를 살펴보면 전체 957점중에서 468점(48.9%)으로 석기조성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 석기제작의 모멘텀이 수렵구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식량가공구는 382점(39.9%)이 출토되었는데 점유율을 보면 역시 채집활동을 통해 식량획득에 집중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54)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생업활동으로 수렵과 어로, 채집과 함께 원시농경을 제시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박근태, 앞의 논문, 2016).



〈그림 16〉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유적별 석기조성 분포도

반면 유적별 석기조합상을 분석해보면 우선 고산리유적은 수렵구가 47.3%(305점)를 차지하는데 당시 식량자원 획득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식량가공구 역시 42.9%(277점)의 높은 점유율은 채집행위도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음을 의미한다. 고산리유적에서는 침두형석기인 석촉을 중심으로 하는 석기조합이 특징적이다.⁵⁵⁾ 석기 중에서 화살촉과 석창(침두기)은 수렵구로 분류되는데 현재 고산리유적의 석기조성비를 분석해보면 50%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⁶⁾ 석제어망추는 10점(1.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렵채집 활동에 비해 어로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케 한다. 하지만 다수의 어형석촉과 함께 유적이 해안환경에 인접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어로도구의 낮은 점유율만으로 어로활동이 미진했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삼화지구유적은 수렵구가 49.8%(116점), 식량가공구는 43.3%(101점)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석기조성비를 놓고 보면 고산리유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동동유적은 개체수가 적지만 수렵구(66.7%/32점)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식량가공구(8.3%/4점)는 매우 낮게 확인된다. 이것은 수렵을 위한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왜냐하면 해안면에 인접한 유적에서는 수렵과 채집구의

55) 고재원, 『遺物로 본 濟州島 高山里文化』,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11쪽.

56) 박근태, 앞의 논문, 2016, 215쪽.

비율이 높은 반면 해발고도가 높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중산간 지역에서는 채집보다 수렵구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인 정주성 환경과는 반대로 수렵을 위한 단기적인 유적의 성격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에 해당한다. 즉 오동동유적은 수렵에 집중하기 위한 곳으로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캠핑유적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오동동유적은 해안과 가까운 삼화지구에 정주취락을 갖추고 단기적인 수렵을 위해 이동했던 일시적인 거점유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 초창기~조기 단계의 정주성 취락은 고산리와 삼양동권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당시 제주지역은 고산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 생업권역과 삼양동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있는 북부지역 권역으로 나뉘어진다. <그림 14>를 참고하면 신석기시대의 고산리권역은 비교적 원거리 생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삼양동권역은 근거리에 다수의 생업공간을 확보하는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산리유적에서 다량의 석기와 토기가 출토되는 것은 이러한 수렵패턴의 차별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원거리 수렵활동을 위해서는 다량의 석기를 휴대하고 이동해야 하지만 근거리 수렵은 베이스캠프와 캠핑사이트 간 수시로 왕복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량의 석기 제작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원거리 수렵으로 획득한 식량원의 장기간 보관유지와 식료가공 및 저장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다량의 토기제작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산리 주민집단은 해양성 연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렵채집 위주의 생업경제에서 벗어나 어로활동과 자생식물의 활용 등 다변화된 생계패턴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이동성 생활방식에서 탈피한 정주성 환경이 조성되었고 수렵채집 구성원과 비수렵채집 구성원의 역할이 분리되었다. 이는 곧 원거리 수렵에 참여하는 성인을 제외하고 어로활동과 식료가공 및 저장, 토기의 제작과 같은 정착지내에서도 가능한 생산행위는 비수렵채집 구성원이 담당하였

을 것이다. 고산리식토기의 대량 생산은 결국 저장과 조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수렵과 어로활동에 의해 획득한 짐승과 물고기, 어패류 등을 가열하여 섭취하거나 저장하는 문화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지도 모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산리 주민집단은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집석식노지를 축조하면서 정주성 취락을 형성하고 수렵채집 활동을 위한 원거리 이동과 복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수렵채집을 위해 원거리 사냥에 나섰던 구성원은 일정기간 거점유적을 이탈하여 이동하면서 생활하고 정착지로 복귀한 후 다시 수렵활동에 참여하는 생활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보건대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의 소규모 유적들은 정주지에서 이동하여 수렵채집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고산리유적은 이처럼 정착과 이동을 병행하는 반정주성 취락에 해당하며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이동보다는 수렵채집을 위한 소규모적 이동이 상정된다. 그러나 원거리 수렵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수렵민은 고산리취락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V. 맺음말

고산리유적은 신석기시대 초창기 이후의 생활유적에 해당하며 산출된 절대연대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7,820~7,510 BC를 중심으로 출현하기 시작한다. 초창기 단계의 고산리 주민집단은 원거리 수렵채집과 어로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생업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적이 점유된 이후 신석기시대 후기까지도 계속해서 취락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고산리식토기가 성행하는 단계에 가장 집중되었고 이후 용기문토기 단계를 거치면서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는 11,000년 전 해수면이 대략 40m 정도 내려가 있었고 다시 7,000년 전 쯤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변화된다. 고산리유적은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으며 연안환경의 변화는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다변화된 생업패턴으로 전환된다.

고산리유적은 정착과 이동을 병행하는 유적에 해당하며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이동보다는 수렵채집을 위한 소규모적 반복 이동이 상정된다. 그러나 수렵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구성원은 정착화된 취락에서 토기제작, 식량가공 및 저장, 어로활동 등 비수렵민의 생업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산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집석식 노지, 대형 연석, 다량의 성형석기와 토기는 장기간에 걸친 정주성 환경을 갖춘 취락의 증거로 해석된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고산리유적은 신석기시대 초창기 이후 주민집단의 정주 혹은 반정주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참고문헌

- 康昌和, 「濟州 高山里 新石器文化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 고바야시 겐이치, 「일본 초창기의 주거 연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고재원, 「遺物로 본 濟州島 高山里文化」,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 工藤雄一郎, 「縄文時代の 시작과 環境變動」,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 구자진, 「한반도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특징과 전개양상」, 『한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한국신석기학회 학술총서1, 2009.
- 具滋振, 「한국 신석기시대의 집자리와 마을 연구」, 崇實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縄文は いつから!?-1万5千年前になにがおこったのか』,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企劃展示, 2009
- 金慶柱,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青銅器學報』 6號, 韓國青銅器學會, 2010.
- 김명진, 「OSL 연대측정을 통한 제주 고산리 유적의 형성과 점유시기 결정」, 『분석과학』 29(6), 한국분석과학회, 2016.
- 김명진·이용주, 「고산리유적 퇴적층과 목탄분석을 통한 유적 형성과정과 점유시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김재운, 「아무르 강 하류와 연해주의 신석기 초창기 토기」, 『韓・日 初期 新石器文化 比較研究』, 第10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2013.
- 다나카 소이치, 「동아시아 신석기 시대 연구로 본 제주도 고산리 유적의 위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리 평, 『중국고대사』, 이청규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박근태, 「고산리유적의 석기조성과 생업」,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방문배, 「고산리유적 유구의 성격과 정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배성혁, 「신석기시대 취락의 공간구조」, 『韓國新石器研究』 第13號, 韓國新石器學會, 2007.
- 小林謙一, 「縄文時代前半期の實年代」,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第137集, 2007.
- 소상영, 「고산리 유적 출토 토기의 자연과학 분석을 통한 제작기술과 사용연대 추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소상영, 「제주 고산리 유적의 편년과 성격」, 『韓國新石器研究』 第33號, 韓國新石器學會, 2017.
- 스티븐 마이든, 성춘택 역, 『빙하이후-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20,000~5,000BC』,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安承模, 「동아시아 청주취락과 농경 출현의 상관관계-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韓國新石器研究』 第11號, 韓國新石器學會, 2006.
- 유지인,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林潤也, 「九州における縄文時代竪穴住居の變遷」, 『日韓新石器時代の住居と集落』, 日韓新石器時代研究會 제7회 발표자료집, 2007.
- 임재수, 「동북아시아 후빙기 자연환경과 고산리지역의 환경 복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 장성운·이기길, 「왜 고산리식토기에 식물 비집이 사용되었을까?」, 『한국상고사학보』 제102호, 2018.
- 정수옥·나가토모 토모코, 「토기의 탄소부착흔을 통해 본 소성과 조리방

- 법·농도유적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65號, 韓國上古史學會, 2009.
-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고산리유적 I (2구역)』, 2017a.
-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고산리유적 II (2구역-2차)』, 2017b.
- 濟州考古學研究所, 『제주 사계-인성유적』, 2017c.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2014.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I』, 2015.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II』, 2017a.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V』, 2017b.
- 崔基龍, 「韓半島 後水期の 植生 및 氣候 變遷史」, 『韓國 新石器時代の 環境과 生業』, 東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第1回 學術會議 資料集, 2001.
- 하야시 켄사쿠, 『일본 신석기시대 생업과 주거』, 천선행 옮김,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5.
- 河仁秀, 「嶺南海岸地域의 新石器文化 研究-編年과 生業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 하인수, 「남해안지역 용기문토기의 편년」,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2.
- 한국지질환경연구소,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지역의 퇴적환경 변화와 유구 내부토의 토양 특성 연구」, 『제주 고산리 유적 III』,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 黃喆周, 「韓半島 東·南海岸地域 隆起文土器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2.

〈그림출처〉

- <그림 3>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I』, 2015.
- <그림 4~8, 11>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2014.
- <그림 12>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II』, 2017a.
- <그림 13>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 IV』, 2017b.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Historic Site of Gosan-ri in the Neolithic 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Groups

Kim, Kyoung-Ju *

The relics of Gosan-ri are the remains of the Neolithic Age that first appeared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ince the formation of the first site, settlements continued to appear until the late Neolithic Period.

The Gosan-ri site appeared in the course of human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offshore environment led to subsistence economy patterns of using marine resources. Like this, villagers in the Gosan-ri site formed a sedentary settlement due to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made a living by hunting-gathering and fishing. In this sense, the Gosan-ri site represents a village for settlement and movement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for a small-scale movement for hunting and gathering rather than for a collective movement of the entire community.

Dwelling sites, open fields, a great deal of pottery and molded stoneware, and large grinding plates excavated in the Gosan-ri remains are considered as a proof of long-term sedentary settlement. 14C age dating results suggest that since its inception in the beginning of the Neolithic Period, the Gosan-ri settlement continued into early, middle and late stages of the period.

* Assistant Director of Je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Key-words: beginning, sedentary settlement, subsistence economy, Gosan-ri style pottery, villagers

논문투고일: 2019.05.09.

심사완료일: 2019.05.27.

게재확정일: 2019.06.04.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고찰

황 시 권*

- I. 머리말
- II.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 1. 문헌분석 - 『耽羅紀年』과 『耽羅記略』
 - 2. 기능분석 - 裨補・守門將 및 救恤・防疫
 - 3. 형태분석 - 돌하르방과 돌장승 비교
- III.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 IV. 맺음말

국문초록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2호 돌하르방은 고유한 제주 돌문화의 상징으로서 문헌기록상 1754년 金夢煒 목사에 의해 처음 세워졌다. 조선시대 제주 3읍성 성문 앞에 모두 48기가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濟州邑城 돌하르방은 24기 가운데 1기가 분실돼 현재 23기가 남아있고, 旌義縣城 12기, 大靜縣城 12기가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1971년 8월 26일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현존하는 47기 가운데 1960년대 중반 제주읍성 동문 밖에 세워졌던 8기 중에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 옮겨진 2기를 제외시킴으로써 지금까지 45기만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돌하르방이 제작된 시기(1754)와 최초의 문헌기록(1918) 사이의 160년 넘는 큰 차이로 인해 그 신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인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돌하르방의 제작시기와 관련한 문헌분석은 물론 기능분석과 형태분석을 다양하게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문

* 명지대학교 미술사학박사, tamline@hanmail.net

현고증과 함께 당대의 시대적 사회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설치동기와 목적 등의 기능성은 물론, 비슷한 시기에 먼저 제작된 육지 돌장승과의 형태를 자세히 비교분석해봄으로써, 돌하르방의 제작시기가 보다 더 명료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돌하르방, 돌장승(석장승), 웅중석, 김몽규, 김석익

I. 머리말

제주 돌문화에는 불모의 자연과 싸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획득하여온 제주사람의 삶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본질은 삶의 치열성과 진지함, 성취된 생활양식의 질박성에 있으며, 돌같이 순박하면서도 견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 그러기에 청동기시대 支石墓인 고인돌과 선돌 같은 유적을 시작으로 絶海孤島 제주의 고유한 돌문화 역사는 제주사람들에게 있어 절박했던 생존의 역사라고 하는 데서 더 큰 문화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2호 돌하르방²⁾은 3읍성 성문 앞에 모두 48기가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濟州邑城 돌하르방은 24기 가운데 1기가 분실돼 현재 23기가 남아있고, 旌義縣城 12기, 大靜縣城 12기가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돌하르방의 크기는 각 성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57~238cm로 가장 크고, 정의현은 120~177cm 내외, 대정현은 108~146cm 규모로 더 작을 뿐만 아니라 형식파괴도 제일 심하다. 또한 대부분 돌하르방은 원래 세워졌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지만, 정의현성 12기는 옛 모습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복원된 성문 앞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1971년

1)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171쪽.

2) 문화재로 지정할 때 붙여진 명칭이다. 민속학자 현용준(1963년)과 김영돈(1968년)의 현지조사에서는 ‘돌하르방’, ‘守護石’, ‘守門將’, ‘두릉머리’, ‘童子石’, ‘翁仲石’, ‘偶石木’, ‘벽수머리’, ‘돌영감’, ‘망주석’, ‘무석목’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8월 26일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현존하는 47기 가운데 1960년대 중반 제주읍성 동문 밖에 세워졌던 8기 중에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 옮겨진 2기를 제외시킴으로써 지금까지 45기만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이다.

다공질의 여러 종류 현무암³⁾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1754년(英祖 30) 金夢煒 목사에 의해 세워졌다는 최초 문헌기록은 心齋 金錫翼(1885~1956)이 1918년 발간한 編年體 역사서인 『耽羅紀年』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754년 전후 발간된 제주관련 인문지리지인 李元鎮 목사의 『耽羅志』(1653), 朴長復 목사의 『耽羅志』(1834~36경), 李源祚(1792~1872) 목사의 『耽羅志草本』(1843경) 등에서는 한결같이 ‘웅중석’에 관한 문헌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돌하르방의 구체적인 제작시기가 언제인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돌하르방이 세워진 때와 최초 문헌기록이 160년 넘는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인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당대의 시대적 사회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설치동기와 목적 등의 기능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엇비슷한 시기에 앞서 제작된 육지 돌장승과의 형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돌하르방에 관한 문헌기록이 보다 더 명료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최초의 돌하르방 문헌기록에는 제주읍성 성문 밖에 세웠다는 간단한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제주읍성 돌하르방을 만들어 세울 때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도 같이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몇 가지 문헌자료와 조형분석을 통하여 이 점에 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3) 황시권, 「제주 돌하르방의 종합적 연구」,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39-51쪽 참조. 거의 대부분 돌하르방이 각 성문 주변에 산재한 현무암을 가지고 만들었음을 2014년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4) 1915년 저술을 끝마치고 1918년 발행한 『탐라기년』은 938년(고려 태조 21)부터 1906년(광무 10)까지 제주역사를 4권에 나눠 썼다. 고려 태조 21년 이전의 역사를 外書라 명명했고, 고종 10년 이후를 附錄이라 하여 本卷과 구별시켰다. 특히 外書라고 이름 지은 것은 그 내용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정사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의심되는 바를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해 論贊하고 있다.

II.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김석익의 『탐라기년』이 출간되기 직전인 1800년대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리 중심의 인문지리서 편찬과 더불어, 지역출신의 관리나 유학자들에 의해 제주역사를 바라보고 기술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펼쳐진다.

제주역사를 제일 먼저 편년체로 기술한 사람은 대정읍 신도리 출신 一齋 邊景鵬(1756~1824)으로 『耽羅事績』을 저술했다. 24세 때 향시에 합격하고 나서 1794년 38세 늦은 나이에 급제한 이후, 대정현감을 거쳐 1820년(純祖 20) 전라 만경현령에서 파직된 다음 제주로 낙향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탐라국이 세워진 사실, 백제가 탐라를 친 사실, 탐라국이 신라에 항복한 사실, 탐라가 고려에 조공한 사실, 국가 간의 외교에 관계되는 이야기와 인물, 지리에 관련된 사적을 고려 현종 때까지 시대별로 서술하고 있다.⁵⁾ 그렇지만 그 이후 조선시대의 역사가 누락되어 미완성에 그치고 있다.

특히 茶山 丁若鏞(1762~1836)의 제자 가운데 經世學에 관심을 가졌던 李綱會(1789~?)는 주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周禮』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경세의 목적으로 『耽羅職方說』을 쓰기도 했다. 제주도의 일반적인 인문지리 현황을 담으면서도 『주례』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것이 눈에 띄며,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목한 부분들이 많았다.⁶⁾ 총 2권 1책으로 구성된 이 역사서는 제1권에서 제주의 인문·지리·경제·군사시설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2권은 「相贊契始末」로서 흑산도에서 만난 제주유배인 金益剛에게 전해들은 1813년 발생한 梁濟海 관련 獄事사건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전기를 列傳 형식으로 함께 수록하였다.⁷⁾ 실제 그가 제주를 다녀간 기록이 없

5) 변경봉, 『변경봉문집』, 허남춘·김병국·김새미오 역, 탐라문화연구소, 2010, 24쪽.

6) 조성산, 「이강회의 『탐라직방설』과 제주도」, 『다산학』 12호, 2008, 77쪽.

7) 이강희, 『탐라직방설』, 현행복 역, 각, 2013, 31쪽; 이강희는 전남 강진에 유배 온 다산 정약용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학자로서, 1818년 흑산도의 우이도에 ‘玄洲書屋’ 연구실을 차려놓고 『탐라직방설』 등 여러 저술을 남겼다.

기에 몇몇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바른 역사인식에 근거하고자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석익의 『탐라기년』(1918)에서 처음 기술된 돌하르방 즉 웅중석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영조) 30년 목사 김몽규가 성문밖에 웅중석을 세웠다.

(英祖) 三十年 牧使 金夢奎 設翁仲石於城門外.

(영조) 31년 (...) 목사 홍태두가 문묘가 비습한 곳에 있다 하여 향교를 광양에 옮겨 세우니 이는 전 목사 김몽규의 의논에 좇음이었다.⁸⁾

三一年 (...) 牧使 洪泰斗 以文廟卑濕 移建鄉校于廣壤 踵前牧使 金夢奎議也.(文廟在鄉校內)

실제 김몽규 목사는 1752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부임하였다. 김석익이 쓴 『耽羅觀風案』에서는 그의 업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1752년 12월 도입해 성문밖에 웅중석을 세우고 운주당과 관덕정을 중수하였다. 1754년 10월 임금님 탄생일에 祝壽하는 글이 미급하여 순영의 장계를 받고 파직되었다.⁹⁾

壬申十二月到任 設城門外翁仲石修運籌堂觀德亭 甲戌十月以誕日箋文未及 陳賀自巡營啓罷.

8) 『탐라문헌집』교육자료 29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413쪽, 한자 원문은 1990년 杳文會 중심으로 제주문화사에서 발간한 『심재집』 향토자료총서 2권을 인용하였다. 앞서의 교육자료에는 목사 金夢奎의 불꽃 ‘奎’자가 별이름 ‘奎’자로 모두 잘못 誤記되어 있는데, 『탐라기년』 원문에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앞부분에만 틀려 있다. 김몽규 목사가 직접 남긴 방선문의 마애명이나 1759년(英祖 35) 4월 세워진 제주향교의 선정비인 ‘牧使金公夢奎尊聖待士碑’에는 ‘奎’자로 되어 있으며, 1843년경 발간된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초본』에도 마찬가지로 ‘奎’자로 표기되고 있다.

9) 『심재집』, 제주문화사, 1990, 265쪽; 이 책에는 『탐라관풍안』 원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림 1〉 제주시 방선문의 영주목사 김몽규 마애명, 1754년, 탁본.
제주중앙문화연구소 소장(왼쪽). 목사 김몽규 존상대사비, 1759년, 제주시 용담동
제주향교 내(오른쪽)

이러한 문헌기록으로 보아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웅중석’이라 하여 김몽규 목사가 1754년 세웠음을 알 수 있으며, 지금도 그가 남긴 마애명이나 그를 기리는 선정비가 전해온다<그림 1>. 이 웅중석 명칭은 1931년 편찬된 李膺鑑(1871~?)의 『毛羅國書』에는 ‘웅중’이라 하여 삼성혈에 옮겨진 4기 돌하르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⁰⁾ 이후로도 金斗奉이 저술한 『耽羅志』(1933) 및 『濟州島實記』(1936), 그리고 1954년 간행된 淡水契 편 『增補耽羅志』에서는 김석익의 저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다. 특히 김두봉의 『탐라지』는 김석익의 아들인 김계연 선생이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서, 김계연 선생 기증유물특별전 도록인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에서 1835년 전후 출간된 박장복 목사의 『탐라지』와 함께 『탐라지-목관편』이란 명칭으로 잘못 소개하고 있다.¹¹⁾

10) 我石 이응호는 1891년(高宗 28) 칠봉서당을 창설한 橘堂 李基璵의 아들이다. 부친에 이어서 文淵書당을 개설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심재 김석익이 그에게 글을 배웠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참조).

11)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박물관, 2004, 25쪽; 이 자료에는 김두봉의 『탐라지』를 『탐라지-牧官篇』이란 제명으로 1912년경 金鐘鉉이 편집하여 김두봉이 간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담당 학예연구사는 이 책이 1834년부터 약 2년간 부임한 박장복 목사의 『탐라지』를 필사한 것이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1954)에서는 김석익의 저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¹²⁾ 다음은 첫 번째 지리 편의 名所古跡과 마지막 관풍안에서의 웅증석과 김몽규 목사에 대한 기록으로, 김석익의 『탐라기년』에서 발견되는 김몽규 목사의 마지막 이름을 똑같이 잘못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翁仲石 : 濟州邑城 東西南 三門 外에 在하였고, 4087年 甲戌 英祖 三十年에 牧使 金夢奎가 創建한 바인데 三門 毀散로 因하여 二座는 觀德亭 前, 二座는 三姓祠 入口에 移置되었다. (85쪽)

防禦使 金夢奎 : 英祖 二十八年 壬申 十二月 到任하고 越 二年 甲戌 十月에 誕日에 箋文陳賀 未及事로 因하여 巡營으로부터 狀罷하다. 翁仲石을 三門城外에 建하고 運籌堂과 觀德亭을 重創하다. 立碑. (457쪽)

따라서 김석익의 『탐라기년』이 출간된 이래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까지 간행된 제주관련 모든 인문지리서에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754년 김몽규 목사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定說化 시켜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약간 구체화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및 『承政院日記』 등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김몽규 목사는 1727년(영조 3) 무관직인 宣傳官부터 시작, 1730년 訓練院主簿・訓練判官・都總都事를 거쳐 평안도 博川郡守에 제수되었다. 1732년 포도청의 우청인 右邊浦盜從事官과 副司果를 지낸 후 1733년 海南縣監이

라 했으나, 본 연구자가 유물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한 바로는 다르게 판명되었다. 즉 박장복 목사의 책에는 ‘선생안’이 아주 간략하며 김몽규 목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반하여, 『탐라지-목관편』에는 김몽규 목사에 대해 ‘壬申十二月到任 新設城門外翁仲石修運籌堂 甲戌十月以誕日撰文未及 陳賀事自巡營狀罷’이라 하여 김석익의 『탐라기년』 내용을 거의 베껴 쓰고 있다. 판권에는 1933년(昭和 8) 3월초 金洪範이 인쇄하고 김두봉이 편집・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국립제주박물관의 특별전 자료에는 출간연도나 편집인이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 12)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는 당시 김문희, 김범준, 김경중, 김석우 등 제주석학 12명이 결성한 계모임 ‘담수계’에서 1953년 5월 집필을 끝내고 1954년 9월 발간한 제주 인문지리서이다. 처음에는 인쇄 활자체가 아닌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다. 인용출처는 2004년 제주문화원에서 발행한 영인본이다.

되었으며, 1734년 訓練正으로 승진하여 평북의 鐵山府使 1735년 자강도 북서부의 滿浦僉使를 지냈다. 1736년에 東伍軍의 최상부 단위인 忠原營將을 제수받고 종4품 무관직인 副護軍이 되었다. 이어 1738년 함북 북서쪽의 茂山府使 1940년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羽林衛의 羽林將으로 정3품의 무관직을 제수받고 武臣副護軍이 되었다. 같은 해에 무관들에게 高選으로 추앙받는 국왕 직속의 內乘과 禁軍將에 올랐다. 1742년 자강도 중서부 압록강 연안의 渭源郡守로 발령받고 付副護軍을 겸직하였다. 1744년 평북 초산군의 理山府使 1747년 慶尙左水使를 거친 후 1748년부터 1751년까지 경기도 해안방어를 담당하는 南陽府使로 영전되었다. 뒤이어 1752년부터 1754년까지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후, 1758년에는 武臣으로 궁궐에서 임금을 모시고 열린 經筵에 참여했다.¹³⁾

그러나 이 행사를 끝으로 그에 대한 문헌상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헌에는 1723년(경종 3) 무과 別試인 丙科에 합격한 金夢燾가 있다. 그가 제주목사 김몽규가 맞다면 1693년(숙종 19) 태어난 癸酉生으로 이때 나이 이미 31세여서 1758년이면 66세가 되기에, 제주목사 김몽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¹⁴⁾

‘石翁仲’이라고도 불리는 ‘웅중석’의 명칭은 대개 고대 제왕이나 대신의 능묘 앞에 세운 석인상을 말한다.¹⁵⁾ ‘웅중’의 유래는 중국 진시황 시대 南海의 거인 阮翁仲을 일컫는다. 신장 1장3척에 기질이 용맹하여 臨兆를 굳게 지켜 명성을 떨쳤다. 흉노족을 벌벌 떨게 했던 그가 죽자 구리쇠로 동상을 만들어 함양궁 사마문 밖에 세웠다. 구리나 돌로 만든 偶像을 일컫는 말로 쓰인 웅중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승의 뜻도 있다.¹⁶⁾ 이러한 웅중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의 신화전설에도 나오며,¹⁷⁾ 베

13) 황시권, 앞의 논문, 2015, 8-9쪽.

14)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 출전: 『上之三年癸卯時選別試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5) 정승모, 「돌하르방과 타지역 석상 비교」,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2007, 40쪽.

16) 황중기, 『한국학사전』, 국학자료원, 2002, 567쪽.

트남의 신화와 전설에서도 李翁仲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¹⁸⁾ 우리나라의 경우 『승정원일기』와 정약용의 『詩文集』 등 여러 문헌에 나오는데, 성문 앞이나 높은 인물 무덤 앞의 석상, 돌장승을 일컬어 웅중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⁹⁾

1. 문헌분석-『耽羅紀年』과 『耽羅記略』

그렇다면 『탐라기년』 <그림 2>에서 김석익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웅중석 즉 돌하르방이 1754년 김몽규 목사의 지시로 세워졌음을 기록했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에 따르면 실제로 김목사가 1753년 성곽방어집무실인 運籌堂과 군사훈련시설인 觀德亭²⁰⁾을 중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牧民官으로서 제주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을 백성들인 民의 소원하는 바를 스스로 알아차려 官이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²¹⁾, 돌하르방 제작이 이뤄졌다고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가 재임했던 2년여 동안 백성들이 바라던 향교이설 계획을 미리

-
- 17) 위엔커[袁珂], 『중국신화전설 2』, 전인초·김선자 역, 민음사, 1999, 350-352쪽.
 18) 무경(武瓊),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박희병 역, 돌베개, 2000, 57-59쪽; 이 책의 본이름은 『嶺南撫怪列傳』이다. 베트남의 慈廉懸 출신으로 본명은 李身이며, 키가 2장3척으로 장대할 뿐만 아니라 날래고 사나웠다. 安陽王 때에 진시황이 침략하려 들자 이신을 바쳤으며, 진시황은 그를 무관으로 임명하고 천하를 통일한 후 임조를 지키게 했다고 전해온다. 이익의 『星湖雜說』 20권의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19) 정승모, 앞의 책, 2007, 40-45쪽 참조.
 20) 1448년(世宗 30) 제주목사 辛淑晴이 군사훈련청으로 창건했다. 제주관아 중에 가장 규모가 크며, 원래 3칸으로 이후 여러 차례 중수와 개축 과정을 거쳤다. 1480년(성종 11) 梁贊 목사, 1559년(명종 14) 이영 목사, 1690년(숙종 16) 李宇恒 목사, 1753년(영조 29) 김몽규 목사, 1778년(정조 2) 黃最彦 목사, 1833년(순조 33) 한응환 목사, 1851년(철종 2) 李玄功 목사 때에 중수되었다. 그리고 1882년(고종 19) 박선양 목사가 관덕정을 너비 13칸, 가로 10칸, 높이 5칸으로 중건하였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참조).
 21)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248쪽.



〈그림 2〉 김석익, 『탐라기년』, 1918년, 국립제주 박물관 소장

마련해 후임목사가 바로 실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훗날 그의 이러한 선정을 기리는 공덕비까지 제주 유림들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이로 보아 김몽규 목사는 부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주사람들의 안전한 삶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미루어볼 때 제주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술하고자 했던 심재 김석익에게 있어, 김몽규 목사의 행적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심재는 구한말부터 6·25 동란 이후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뛰어난 향토사학자이자 저술가로서 한학자, 서당교육자, 서예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조선중기 제주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 明道菴 金晉鏊(1605~1663)의 후손이며, 1909년 제주의병장으로 활동했던 金錫允의 아우이다. 이 『탐라기년』 이외에도 『耽羅人物考』, 『耽羅觀風案』, 『耽羅賓興錄』, 『破閑錄』, 『海上逸史』 같은 역사저술과 함께 『檀城詩話』, 『檀城書壇名家抄』, 『儒理漫筆』, 『雜全散異』 등의 저서를 방대하게 남겼다.²²⁾

특히 김석익의 『탐라기년』 서문을 쓰면서 浮海 安秉宅(1861~1936)이 밝힌 제주관련 문헌과 인문지리서 가운데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玄德 聞(1817~1869)이 저술한 『耽羅紀略』이다. 안병택은 이 책에 대해 邑誌 體를 탈피하여 史家 나뉘므로 거의 완성시켰으나 자료부족과 문장의 매끄럽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김석익 또한 외서 편에서 현덕문의 『탐라기략』 가운데 삼국시대 조공관련 한 부분과 관련해 논하고 있다.²³⁾ 김석익의 또 다른 저서인 『파한록』 상권에서는 늦게 태어나서 현덕문의 저서 전부를 보지는 못했으나, 그의 『기략』 한권을 보건대 거칠어 세련되지 못했으나 전서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옛것을 좋아하고 널리 견문을 익혀 펴낸 그의 방대한 저술활동은 제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할 만하다며 칭송하고 있다.²⁴⁾ 더불어 김석익의 『탐라인물고』에서는 『四禮集說』, 『儒家選文』, 『탐라기략』 등의 저술 35권이 그의 집에 소장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⁵⁾

그러기에 이 『탐라기략』을 쓴 현덕문의 생애와 저술활동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면, 김석익이 자신의 저서에서 맨 처음 언급한 ‘용중식’ 관련 부분은 현덕문의 저술 내용에 바탕을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서 그 스스로 현덕문의 『탐라기략』을 읽은 소감을 직접 논평하고 있고, 현덕문의 출생시기가 1800년대 초반이어서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거쳐 올라가면 돌하르방이 만들어진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직간접으로 전해들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月谷 현덕문은 제주도에 거주해온 연주현씨의 뛰어난 인물 가운데

22) 김동전,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박물관, 2004, 125-127쪽.

23) 『탐라문헌집』, 앞의 책, 1976, 338쪽, 347쪽; 서문을 쓴 부해 안병택은 제주 조천리에서 태어난 인물로 젊어서 전라남도 장성으로 이주했다. 당시 호남 성리학의 대학자 蘆沙 奇正鎭과 그의 손자 松沙 奇宇萬에게 학문을 배워 전라도와 제주도에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그의 사후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글 모음집 『浮海漫稿』가 남아 있다(2018.4.12.일자 국립제주박물관 보도자료).

24) 김석익, 『濟州속의 耽羅-심재집』, 오문복 외 역, 도서출판 보고사, 2011, 63쪽.

25) 김석익, 앞의 책, 2011, 164쪽.

하나로 손꼽힌다. 세칭 월곡 선생으로 추앙되는 그는 현재 제주시 노형동인 月郎村 태생으로 일찍이 굴림서원에서 수학했다. 그는 줄곧 학문을 연마하여 聖人の 행실을 본받고 배워서 후진을 가르쳤으며, 예가 제서를 모아 『사례집설』을 저술하였다. 이어서 그는 『탐라기략』과 『華東雜誌』를 펴냈고, 1857년 제주 판관 洪敬燮의 명으로 『橘林院誌』를 수정 편찬하였다. 또한 현덕문은 『유가선문』 28권을 완성하였는데 이 책에는 『孔子年譜』로부터 기타 事跡, 우리나라 신라·고려·조선에 걸친 儒賢들의 사적은 물론 詩律·書文·雜著 등이 광범위하게 정선 수록되었다.²⁶⁾

이러한 현덕문의 학식과 덕망은 널리 호남유림까지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에게 관운은 별로 없었다. 두 번이나 한양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의 고배를 마신 이후 더는 벼슬자리에 뜻을 두지 않았다. 특히 현덕문이 완성한 28권의 『유가선문』은 제주목사 李後善과 趙義純이 서문을 썼는데, 두 사람은 한결같이 박식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舍南儒林薦』에는 “濟州郡의 현덕문은 총명하고 민첩하며 순수하고 실질적이다. 스승을 존경하고 친족을 사랑하며 타고난 성실과 힘을 다해 학업에 힘썼다.” 라면서 그를 찬양하고 있다.²⁷⁾

맨 먼저 월곡 현덕문의 구체적인 생애와 『탐라기략』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족보를 찾았다.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를 통하여 확보한 『延州玄氏世譜』 <그림 3> 내용을 살펴보면, 현덕문의 출생 연도와 업적은 물론 바로 윗대 조상들의 생몰 연대와 활동상황도 보다 구체적

26)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延州』 제2호, 1986, 88-89쪽; 제주판관 홍경섭을 通判 洪敬燮로 잘못 표기하고 홍경섭의 명에 의해 편찬한 것을 그에게 의심나는 부분을 물어 보완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화동雜誌』를 『화동雜記』로 잘못 쓰고 있다.

27)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앞의 책, 1986, 89쪽; 원래 글에는 『유가선문』의 서문을 쓴 제주목사 이후선과 조희순 이름을 李俊善과 趙義經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후선의 경우는 『승정원일기』 고종 무진(1868 동지) 2월 18일자 같은날 앞글에서는 李俊善으로, 뒷글에서는 李後善으로 기록하였는데, 『各司謄錄』이나 『響山集』 기록에 따르면 이후선이 맞는 표기임이 확인된다. 또한 족보기록에는 이후선은 맞게 쓰고 있지만 조희순은 趙義純으로 틀리게 썼다. 『향산집』은 조선말 경상북도 안동출신 문신 李晩燾(1842~1910)의 문집이다.

〈그림 3〉『연주현씨세보』, 2000년 경진보, 현덕문의 가계도

으로 기록되고 있다.²⁸⁾ 이 족보에 의하면 월곡의 증조부는 玄光輔(1739~1826)로 留郷座首와 향교훈장을 역임한 것을 알 수 있다.²⁹⁾

마을의 有志이자 유학자인 증조할아버지 현광보는 己未生으로 돌하르방이 제작되기 훨씬 이전인 1739년 태어났으며, 87세까지 천수를 누리 乙酉年(1826) 말에 타계하였다. 증손자 현덕문이 1817년 태어난 것을 감안할 때 그는 무려 10년이나 증손자와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문헌상 돌하르방이 제작된 1754년에는 그의 나이 15세로 혈기왕성

28) 『延州玄氏世譜』 2000년 庚辰譜 상권,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2001, 354쪽, 365쪽 참조.

29) 위 족보에서 증조부 현광보의 업적에는 ‘壬寅與權義震應尋宋尤庵滴盧建碑遺墟伋揭板事見耽羅地誌라 기록돼 있으며, 조부인 玄鶴老(1760~1836)의 업적으로는 ‘英祖乙巳贊三乙册祠直署記見耽羅遺事라 적혀 있다. 월곡의 부친 또한 유림 교장을 지낸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유림집안으로서 증조부는 『탐라지』, 조부 현학로는 『탐라유사』 편찬에 관계했고, 증손자 현덕문이 『탐라기략』을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사람들이 직접 기록한 역사서로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것이다. 현덕문의 업적으로는 ‘好學篤行搜集有儒家選文二十八卷州牧李後善趙義純並作序文函稱傳雅又有耽羅記略梅林杅誌四禮集說華東雜誌等合四冊著述爲南州儒宗事見三綱儒行篇及湖誌輿覽이라 쓰여 있다.

한 청년이었던 것이다.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를 수소문하여 현덕문의 후손인 玄昌翹(1956~)씨를 만나 『탐라기략』을 소장하고 있는지 확인했다.³⁰⁾ 현창의 이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큰덕으로 매년 가서 책 말리는 걸 보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장마철이 지나 책을 말려두지 않으면 고서들이 영커 붙어버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탐라기략』의 존재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친족 간에 추가로 확인해봤지만 장손집의 대가 끊기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나마 보관되어온 고서들도 많이 못쓰게 되고 잃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얻을 수 있었던 수확은, 만약 현덕문이 『탐라기략』 속에 돌하르방에 관해 기록을 남겼다면, 이는 역사적 기록으로서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史實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증조부인 현광보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현덕문은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는 돌하르방에 큰 관심이 갔을 터이고, 그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돌하르방이 실제 만들어지기 전부터 살았던 증조할아버지의 생생한 체험담을 전설처럼 직접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현덕문의 후손들 주변이나 그가 교류했던 호남유림의 후손 가운데 혹시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문헌 찾는 노력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기능분석—裨補・守門將 및 救恤・防疫

돌하르방의 제작시기를 파악함에 있어 문헌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제작 목적과 쓰임새 고찰을 통한 기능분석이라고 하겠다. 이를

30) 방문인터뷰, 2013년 10월 7일. 이후 2회에 걸쳐 추가 전화면접을 통해 친족 간에 『탐라기략』 소장유무를 확인했으나, 책을 보관하고 있는 후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4〉 인도네시아 발리 베사키 사원의 석상, 높이 20~70cm, 김병모 촬영(왼쪽·가운데) 인도네시아 문쿠위누아의 석상, 높이 153cm, 슬라웨시섬, 가중수 촬영(오른쪽)

근거로 하여 돌하르방의 연원을 살펴본다면 보다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제주 돌하르방에 대한 확실적인 문헌기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연원에 대한 여러 학설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돌하르방의 혈연관계가 과연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석상과 맺어져야 옳으냐는 논란거리인 셈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있는 베사키사원의 석상들이 돌하르방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보다는 몽골의 석상 ‘훈출로’와 더 닮았다고 반박하는 학자들의 대립각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 물을 오가며 비슷한 시기에 성행한 육지 돌장승의 영향을 받았거나, 일부의 기단부에 정낭홈이 파인 것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제주자생설을 외치는 학자들도 생겨났다.

전자의 경우는 거시적인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주장한 것으로서, 1980년대 초 인도네시아 발리 석상에 근거한 ‘남방기원설’은 김병모 이외에 재일교포 학자 가중수가 2010년 이후 새롭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해류 방향과 문화전파 방향이 일치한다는데 근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화교류라든가 석상의 조형적 비교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그림 4>.³¹⁾

반면, 몽골 동남쪽 다리강가지역 석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북방기원설은 1990년대 이후 몽골과 정식 수교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이는 13~14세기 고려와 몽골의 복속관계 속에서 100년 가까이 국영목마장을 제주에 두고 파견된 몽골 관리자들이 직접 운영했는데, 제주 돌하르방은 이들이 오래 거주하며 남긴 많은 몽골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주채혁, 최서면, 최기호, 조오순 등 한국몽골학회(일명 한국몽골秘史연구회) 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박원길, 정성권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몽골 석인상들은 실존했던 인물들을 본떠 만든 경우가 많고, 대다수가 위아래 全身의 사실적 묘사, 등 받침대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좌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석인상에 묘사된 의상·변발·무기·장식물류는 13~14세기 몽골인이 지니던 것으로, 오른 손에는 거의 식기를 들고 있다. 남성상 이외에 여성을 묘사한 석인상이나 당시 유행하던 모자를 쓴 형태도 있다. 대부분 의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벌거벗은 나체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은데, 남성 성기를 하체에 조각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그림 5>.³²⁾

북방기원설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조선무속을 연구한 아키바 다카시[秋葉隆](1886~1960)가 선구자라 할 것이다.³³⁾ 이외에도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등이 가세하고 있는데, 이들은 돌하르방을 石武人으로 색다르게 표기하고 있다.³⁴⁾

31) 황시권, 앞의 논문, 2015, 54-56쪽;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 1』, 고래실, 2006; 가중수·기무라 시게노부, 『한국 석상의 원류를 찾아서』, 북코리아, 2011 참조하였다.

32) 데 바이에르, 『몽골 석인상의 연구』, 박원길 역, 해안, 1994, 38-43쪽.

33)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34)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濟州島』,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106-107쪽.



〈그림 5〉 동몽골 다리강가 지역 훈출로들, 허르긴현디의 석상, 장장식 촬영(왼쪽) 일탄오보의 석상(가운데) 및 람트의 석상(오른쪽), 『몽골 석인상의 연구』 도판

1) 전래신앙적 요소—裨補・守門將

이에 반해서 토속적인 민속학적 관점에서 육지전래설과 제주자생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오랜 기간 장승을 연구해온 이종철은 기능면에 있어서 훈출로와 돌하르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제주의 돌하르방은 성문을 수호하는 지킴이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데 비해, 몽골 석인상은 위대한 조상에 대한 기념물로서 무덤유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마을과 무덤은 공간이미지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는 석상 또한 기능이 전혀 별개이기 때문이다.³⁵⁾ 김유정의 경우도 두 지역의 석인상이 형태나 분위기가 유사하다고 하여 돌하르방의 기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조형미술품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기능과 형태의 유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석공의 표현기술이 떨어질수록 인체 형상을 새기는 표현력의 수준 또한 낙후되어 인종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떠나서 엇비슷해지기 때문이다.³⁶⁾

35) 이종철, 『한국의 장승』, 민속원, 2009, 179쪽.

36)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 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219-220쪽.

육지전래설을 대표하는 석상으로는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된 돌장승을 들 수 있다.³⁷⁾ 돌하르방이 장승의 한 갈래라고 하는 육지 전래설은 초기부터 주장한 제주 민속학자 김영돈 외에 김두하, 정승모, 주강현 등 민속학 연구자 중심이다. 도내미술가 문기선, 양용방 이외 김유정, 김정선 등 소장학자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원래 장승의 명칭은 ‘長柁’에서 비롯되었는데, ‘柁’ 자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造語이다. 이 글자는 ‘기억할 것’을 적어 붙이는 木札, 紙札이나 占卜에 쓰는 점대로 쓰이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장생의 의미를 바꾸기 위하여 찾던 가운데 우리나라만 쓰는 새로운 한 자어가 만들어진 것이다.³⁸⁾

장승은 불교적인 법수와 더불어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국가도로 즉 官道인 管路마다 촘촘하게 박혀 있는 路標장생은 물론, 읍락·성문·마을·사찰에 각각 읍락비보, 성문수호, 경계표, 佛法수호 등의 장생까지 합쳐져서 그야말로 발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였다<그림 6>. 민속학자 주강현은 정의현에서 돌하르방을 ‘벽수머리’라 부르는 것에 주목하고, 돌하르방과 육지 벽수와 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³⁹⁾

특히 이 가운데 장승의 기능에는 防疫도 있는데 疫神을 쫓아내는 풍습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 권 2 「處容郎望海寺」조에는 처용과 역신 이야기가 나오며, 鄕歌인 「處容歌」로 아직도 전해오고 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려서 문 앞에 붙이고 역신을 쫓았으며, 이러한 처용놀이는 불교와 습합된 세시풍속의 ‘제웅’ 팔기로 바뀌어 전래해왔던 것이다.⁴⁰⁾ 처용의 逐神은 춤

37)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공식명칭은 ‘石長柁’이다. 연구주제인 ‘돌하르방’ 용어에 걸맞게 이 논문에서는 ‘석장승’을 ‘돌장승’으로 통일시켜 표기하기로 하였다. 원래 ‘중요민속자료’라는 명칭이었으나 2017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38) 김두하, 『장승과 벽수』, 대원사, 2011, 46쪽.

39)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1』, 한겨레신문사, 2004, 162-163쪽.

40) 안길모, 『불교와 세시풍속』, 명상, 1993, 128-130쪽; 제웅이란 벼짚으로 만든 인형으로 음력 정월 14일 밤에 집밖으로 던져서 판다. 이때 머리에다 동전을 넣거나 배부위에 종이돈을 넣어두면, 동네아이들이 이를 꺼내서 놀이 돈으로



〈그림 6〉 경남 창원 관룡사 돌장승(좌), 높이 216cm(왼쪽), 높이 220cm(오른쪽), 경북 상주 남장사 돌장승(우), 높이 186cm.

에도 등장하는데 해마다 그믐에는 대궐마당에서 여러 가지 탈을 쓰고 궁중 정악과 불교음악 영산회상의 연주 속에 처용무를 추며 역귀를 내쫓았다.⁴¹⁾

장승은 솟대신앙과 더불어 마을의 수호신 가운데서 下位神으로 신앙된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에는 나무장승이 많고 남부지역에는 돌장승이 많은 편이며,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질병·재앙을 막기 위해서 마을제 형식의 장승제를 지낸다.⁴²⁾

쓴다. 제웅팔기 풍속은 처용의 관용과 불보살의 加持力을 이용하여 한해의 안녕을 축원하고 악귀를 쫓자는 데 의의가 있다.

41)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는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疫神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춰서 전염병을 옮기려던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가 바탕이다. 이 춤은 5명이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향을 상징하는 파란색(동), 흰색(서), 붉은색(남), 검은색(북), 노란색(중앙) 옷을 입고 춘다. 춤의 내용은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하여 악운을 쫓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통일신라에서 고려후기까지는 한 사람이 춤을 추었다.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때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다섯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성종(재위 1469~1494) 때는 더욱 발전시켜 궁중의식에 사용하였다. 문화재청 사이트(<http://www.cha.go.kr>), 우리지역문화재 항목 참조.

42)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210-211쪽.

천대받던 기층 문화권의 마음을 투영한 육지부 돌장승은 호남지방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작시기 또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주 돌하르방이 제작된 1754년을 전후로 하여서는 가장 뛰어난 돌장승이 세워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북의 부안 동문안·서문안 당산 돌장승(1689), 전남 나주 운흥사 돌장승(1719) 및 불회사 돌장승, 전북 남원 실상사 돌장승(1725), 전북 남원 서천리 돌장승, 전북 순창 충신리·남계리 돌장승, 전남 여수 연등동 벽수(1778)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경남 통영시 문화동 벽수(1906)는 형태와 표정 모두 과기스럽고 한층 과장시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돌장승의 공통점은 마을이나 사찰 또는 성문을 수호하는 수문장으로서 裨補적인 기능은 물론, 마을안경을 담보하는 防禦적인 성격도 지닌다는 점이다.⁴³⁾ 이에 비춰볼 때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목적과 기능 또한 성곽을 지키고 백성의 安穩를 살피고자 했다는 점에서 돌장승과 그 역할과 성격이 같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 제주자생설은 1963년 맨 처음 돌하르방을 현지 조사한 제주민속학자 현용준을 필두로 제주민속박물관장 진성기 등에 의해 논의되었다. 도내 향토사가인 홍순만 역시 돌하르방의 외지유래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용준 견해로는 성을 쌓은 무렵에는 제주 가옥의 유다른 풍습에 따라 대문을 대신하는 ‘정낭’을 걸쳐서 성문을 대신했으리라 보고 있는데, 이는 돌하르방이 세워진 기단석의 홈 구조 때문이다<그림 7>.

실제 돌하르방이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맡았다면, 행정구역이 제주목과 대정현·정의현 3개로 나뉘지던 때가 1416년(태종 16)으로 얼마 없어 성을 쌓았기에, 1754년 와서 비로소 돌하르방을 세웠다는 것은 수백 년 동안의 물리적 공백을 어떻게든 메꾸어 설명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몇몇 기단석에는  및  형태 구멍이나  및  형태의 홈이 파여 있으며, 바로 이것이 ‘정낭’을 걸쳤던 시설

43) 김두하, 『벽수와 장승(수정증보판)』, 집문당, 1995, 221쪽.



〈그림 7〉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돌하르방 기단 흙 형태, 경복궁 경내, 서쪽과 동쪽(우). 이곳 2기는 아직 문화재 지정이 안되었다.

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성문 양쪽 모퉁이에다 돌하르방이 세워지기 전에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정주목’을 세우고 ‘정낭’을 걸쳤던 시설이 우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인 것이다. 특히 정낭은 ‘정주목’이라 하여 무속신앙과 결부된 聖物로서 제주에선 매우 신성시하여 왔다. 따라서 원래는 성문을 대신해 단순히 ‘정낭’을 걸친 시설만 되어 있었다가, 성문이 만들어지고 돌하르방이 세워지면서 그 기능이 남겨져 기단석에다 앞서와 같은 형태의 흙을 파서 ‘정낭’을 걸쳤으리라 보고 있다.⁴⁴⁾

하지만 이런 주장은 3읍성 전체 돌하르방 기단석에 정낭 흙이 파여 있지 않고, 제주읍성 돌하르방 가운데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2기, 제주대박물관 댐 앞 2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입구 1기, 제주목관아 1기 등에서만 정낭 흙이 남아있는 관계로 논리적 타당성이 그리 높

44)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61-262쪽.

지 못하다. 이런 까닭에 제주 자생설을 편 연구자들 또한 결국 육지전래설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앞서와 같이 제주 돌하르방의 연원과 기능에 관해 살펴본 바 육지전래설 즉 돌장승의 영향을 받아서 돌하르방을 제작했을 것이라는 추론이야말로 매우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고찰할 수 있다.

2) 사회적 상황—救恤・防役

이에 덧붙여서, 돌하르방이 제작될 당시 제주의 사회적 상황을 고찰해봄으로써 돌하르방의 제작 동기나 이유가 훨씬 명료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예로부터 제주는 아주 맑은 날이면 남해안일대 높은 산봉우리와 전망 좋은 섬에서 우뚝 솟은 한라산이 바라보일 정도였지만, 제주해협의 험악스런 파도는 육지와와의 왕래를 더 어렵게 만들어 절해고도의 서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빠르면 운 좋게 하루정도면 제주섬 북쪽해안가 포구에 닻을 내릴 수 있었으나, 몹시 거친 계절을 만나면 한 달 넘게 남해안일대 해남, 강진의 여느 포구에서 하염없이 죽치고 기다려야만 했다.⁴⁵⁾

특히 김몽규 목사가 돌하르방을 세웠다는 기록보다 20여년 앞서서 쓴 鄭運經(1699~1753)의 『耽羅見聞錄』을 보면 그 당시 제주사람들의 생활상과 문화수준을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그는 1731년 9월 부친인 목사 鄭必寧(1677~1753)을 따라 제주에 건너와 같이 머물며, 낮 설고 물선 척박한 섬땅의 문화와 생활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놓았기 때문이다.⁴⁶⁾

45) 이익태, 『知瀛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10, 30쪽; 1694년(숙종 20) 5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治溪 李益泰(1633~1704)가 물러나던 해인 1696년 늦봄에 쓴 『지영록』에는 한양에서 출발해 제주 화북포구로 들어오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그는 해남 대둔산의 白雲臺 上峰에서는 한라산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올라갔으나, 심한 바다안개 때문에 실패한 경험담도 적고 있다.

46) 정운경, 『탐라견문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정민 역, 휴머니스트, 2008, 서설

한라산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몇 자 아래는 모두 돌이다. 그래서 흙의 성질이 쉬 흠어져 힘이 없다. 밭을 가는 자가 씨를 뿌리고 나면 바로 소나 말을 몰아 밭아준다. 그러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가서 남는 것이 없다. 또한 열흘만 가물면 반드시 거북등처럼 갈라진다. 비가 조금만 내리면 아래로 씻겨 내려가 씨를 다치게 한다. 그래서 해마다 기근이 들어 백성 먹이기가 극히 어렵다. 육지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을 2~3일에 나누어 먹는다. 부역에 기꺼이 응하지만 크게 힘을 쓰지 못한다. 땅에 맞는 곡식이라고는 조와 보리와 메밀 등 몇 종류뿐이다.⁴⁷⁾

또한 김몽규 목사 보다 조금 앞선 1749년(영조 25) 63세 때 제주목사로 부임한 鄭彥儒(1687~1764)는 첫해 여름에 대풍이 불어 飢民이 속출하자 조정에 救護粟을 요청하여 賑給에 앞장섰다. 구휼에 매달리며 그가 쓴 120句 가사체 『耽羅別曲』에는 그 당시 제주민의 몹시 힘든 생활상을 매우 잘 그려내고 있다(표1).⁴⁸⁾ 원활한 구휼활동은 제주목사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였다.

1721년(景宗 1) 문과에 급제한 정언유는 중앙의 여러 관직에 있다가 1748년 경상도 영해부사를 거쳐 1749년 가을 제주목사로 내려오게 된다. 이듬해 극심하게 가뭄이 들자 그는 조정에서 받은 구호미 3천석으로 굶주린 도민들을 진휼하며 대동미를 3년간 면제시켜 주었다. 그의 기행가사에는 백성의 간고한 삶을 보고 큰 비탄에 빠지면서도 백성들에 대한 구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참조: 이 책에는 「瀛海奇聞」, 「耽羅記」, 「循海錄」, 「海山雜志」, 「탐라견문록」, 「橋譜」 등 6편의 글이 차례로 실려 있는데 해외 표류민을 인터뷰한 「탐라견문록」이 절반분량을 차지한다. 「영해기문」은 기존 제주관련기록을 주제별로 추려 편집한 것이고, 「탐라기」는 1732년 2월 23일부터 5박6일간 섬 전체를 일주한 여행기록이다. 「순해록」은 1732년 4월 12일부터 4박5일간 바닷가를 여행한 내용이고, 「해산잡지」는 그때그때 기록해둔 제주의 풍물과 풍광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며, 「굴보」는 제주감굴을 15가지 종류로 나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47) 정운경, 앞의 책, 정민 역, 2008, 188-189쪽.

48) 제주문화원이 1999년 발간한 『南遊錄・達告辭・耽羅別曲・訓民篇』 가운데, 『탐라별곡』은 양중해의 해제본과 함께 원문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인용부분은 이 책의 54-55쪽이다.

〈표 1〉 정언유, 『탐라별곡』 (부분 발췌)

(상략)	
어여쁠사 우리 백성	무삼 일로 偏苦하며
衣食이 艱窘하니	흥미가 있을 손가
八陽足踏 겨우 하여	薄田을 경작하니
짧은 호미 작은 보섭	辛苦히 매 가꾸어
오뉴월 진력하여	西成을 바라더니
造物이 忌劇하고	天時도 그릇되어
惡風과 심한 霖雨	해해마다 孔極하니
田畝를 돌아보면	兵馬로 짓밟은 듯
各穀을 둘러보면	鐵鞭으로 짓찧는 듯
남은 이삭 주어내니	빈 끼플 뿐이로다
무엇으로 公債 갚고	어찌구려 살아갈꼬
거리거리 모든 飢民	駕橋 잡고 일는 말이
서러울 손 우리 性命	나라에 달렸으니
流民圖 옮겨다가	人君 계신데 알리고저
가죽옷 풀 戰笠이	이 무슨 衣冠이고
모밀 밥 橡實粥이	그 무슨 음식일고
歲歲에 國恩 입어	羅錦絺綌 虛實하니
請粟도 낮이 없고	생계도 茫然하다
牧子 一族飽作 구실	이에서 더 설우며
船格의 貿易 무리	그 아니 難堪한가
滄溟이 限隔하고	邦禁이 嚴截하니
살 곳에 못 가기는	紇干山엔 새갓도다
슬프다 너의 艱苦	내 어이 모르리오
(하략)	

이처럼 육지로 쉽게 나다닐 수 없는 어려움과 기근에서 오는 艱難, 역병과 같은 질병 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주사람들에게 민간신앙과 무속적인 마음에 빠져들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사면이 거친 바다에 둘러싸여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았던 제주도의 경우에는 ‘神堂’ 문화가 일찍부터 핵심적인 마을신앙으로 번성하였다.⁴⁹⁾ 하지만 1702년(숙

49)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24-25쪽; 제주의 각 마을마다 신당이 있었으며 줄여서 ‘堂’이라고 한다. 마을의 聖所로서 곳을 하는

종 28) 이형상 목사가 부임한 그 해 가을에 耽羅巡歷을 하면서 신당을 불태우고 훼손한 사찰만 각각 129곳과 5곳, 농부로 환속시킨 무속인수는 무려 285명이나 될 정도로 강력한 탄압을 받는 큰 위기도 있었다.⁵⁰⁾ 하지만 이러한 조선시대의 강력한 ‘崇儒抑佛’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당 문화가 제주인 가슴 속에 면면히 이어져온 것은 가난하면서도 순박한 民草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크나큰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담했던 18세기 제주의 사회상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사서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 제주읍성 밖에다 거대한 돌하르방들이 세워졌던 18세기는 기근과 질병에 신음해온 桎梏의 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통계를 보면 1700년대 제주의 기근과 癘疫 발생 현황 가운데서, 전국에 비해 기근이 자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역의 발생건수가 매우 적은 것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제주도에 돌하르방이 세워지던 1754년을 전후하여 2차례나 疫疾 전염병인 천연두의 발병으로 인해서 많은 제주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볼 수 있다<표 2>.

<표 2> 1700년대 제주의 기근·여역 발생현황⁵¹⁾

연대		1700	1710	1720	1730	1740	1750	1760	1770	1780	1790	합계
제주	기근	1	3	1	3	4	2	6	2	2	2	26
	여역	0	2	0	0	1	2	0	0	1	0	6
	합계	1	5	1	3	5	4	6	2	3	2	32
전국	여역	3	4	4	2	5	2	1	2	2	1	26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를 살펴보면 여역의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本鄕堂’과 가지 처서 나온 ‘가짓당’이 여럿 있는 경우가 많다.

50) 『탐라순력도』 39면 그림 「市浦拜恩」 기록의 일부, 燒火神堂一百二十九處 破毀寺刹五處 巫覡覲歸農二百八十五名; 하순애, 「18세기 초 제주인의 신앙생활과 신당파괴사건」,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333쪽.

51)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에서 여역과 역질 관련 내역을 직접 찾아서 분석한 자료이다.

알 수 있다. 1700년대 들어 첫 피해사례는 1714년이였다. ‘숙종 40년 갑오(1714, 강희 53)조’의 3월 24일 기록을 보면, 제주에 역질이 크게 유행해서 1천여 명이나 죽었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인 8월 16일에는 제주목사 邊是泰가 장계하여 올리기를, “본도에 여역이 크게 번져서 5천여 명이 죽었는데, 수백 첩의 약으로는 모두 구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니, 임금의 醫司에 명하여 상당한 약물을 더 보내주라고 하였다.

1750년을 전후한 전국의 여역 발생과 피해사례를 보면 훨씬 더 심각하다. 1742년에 흥년이 들어 4월 팔도에 여역이 크게 유행했다. 이어 1749년 12월에는 각 도에 여역이 크게 유행해 死者가 5~60만 명이였다. 그리하여 서울과 각 도에서 국가차원의 厲祭를 지내주었다. ‘영조 26년 경오(1750, 건륭 15)조’에는 금년에 큰 역질이 퍼져서 사망한 백성이 거의 수십만에 이르러 들판에 드러난 骸骨이 뒹굴고 있으며, 여염마을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때가 어떤 시절입니까?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하고 있다. 바로 같은 해인 1750년 제주에도 여역이 발생하여 882명이나 사망하였다.

1752년에는 疹이 전국에 크게 유행하여 12월에 영조가 非常敕旨를 내렸으며, 1753년에도 또다시 진이 크게 성행하자 『東醫實鑑』·『增補萬病回春』 등의 의서를 재차 간행하여 보급시켰다. 특히 ‘영조 33년 정축(1757, 건륭 22)조’에는 제주의 세 고을에 역질이 크게 번져 사망한 자가 5백여 명에 이르렀고, 경기·함경도에는 더욱 불같이 타올라서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끊임없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역 질환을 물리치기 위해 나라에서는 醫書를 발행하여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의 원혼을 달래주려고 국가차원의 제사인 여제까지 올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⁵²⁾

52) 이형상 목사(재임기간 1702.7~1703.6)는 제주도내 신당파괴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1703년 천연두가 세 읍에 만연하자 神床을 설치하지 않고 사람마다 약을 복용케 하였다. 하지만 그의 후임자가 神祀를 크게 행하고 醫生을 파하여 다시 신당을 차리게 한 것에 대해서 몹시 노여워했다(이형상, 『南嶺博物』, 이상규·오창명 역, 푸른 역사, 2009, 120-121쪽).

따라서 이 당시를 전후하여 육지지방에서는 힘없는 민중들이 염원을 한테모아 곳곳에 장승을 세우고, 그 힘으로 마을수호와 가정의 안녕을 지키려는 풍습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런 연유로 제주 또한 김몽규 목사가 관덕정과 운주당의 중수를 계기로 삼아, 읍성보호와 주민안녕을 위해 육지장승을 빼닮으면서도 독창적인 돌하르방을 성문 밖에 세운 것으로 충분히 사료된다고 하겠다.

3. 형태분석-돌하르방과 돌장승 비교

인류문화는 언제나 순수하고 고립적인 형태로만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미술사적 관점을 가지고 돌하르방의 제작 연원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남방기원설·북방기원설·육지전래설·제주자생설의 경우 각각의 주장에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유사한 사례들만 가지고서는 보편성을 지니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 미술사적 관점 - 미메시스

우선 문헌기록대로 돌하르방이 김몽규 목사의 지시에 따라 세워진 것이라면, 제주 돌하르방과 같은 조형특성을 지닌 *mimesis*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⁵³⁾ 기능면에 있어서는 육지 돌장승과 거의 동일하나 제작기법상의 형태면에서는 비슷한 만큼의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돌장승 하나만 가지고서 육지전래설을 주장하기에는 객관성을 확

53) *mimesis*는 예술창작의 기본원리로서 그리스어로 模倣이나 再現을 일컫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미메시스'를 '자연의 재현'이라고 말했는데, 플라톤에 의하면 모든 예술적 창조는 미메시스의 형태라는 것이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http://www.britannica.co.kr>) 참조. 미메시스 이론과 관련해 발표한 논저로는 권혁성,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미메시스와 예술」, 『미학』 제74집, 한국미학회, 2013.06; 정석현, 「아도르노 미메시스 개념의 의미」, 『철학논총』 제70집, 새한철학회, 2012; 원준식,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이 있다.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육지 돌장승을 기본으로 삼고 주변의 여러 문화예술적 조형요소들을 융합하여 탄생시킨 것이 바로 제주 돌하르방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초 제안자인 김몽규 목사가 자신의 구상대로만 직접 조각상을 만들도록 한 게 아니라, 제작목적과 조각형태를 전해들은 석공들의 창작솜씨가 한데 결합하여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점에 더욱 그렇다.

실제 김몽규 목사는 文臣처럼 유교사상에 투철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武臣이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제작자들과 공유하면서도 그들의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는 제주목사로 부임하기 이전인 1733년에 해남현감을 지냈으며, 1747년 경상좌수사 부임에 이어 1748년부터 1751년까지는 한양도성을 지키는 전위대였던 경기도 화성의 남양부사를 역임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부임길에 조선시대 9大路인 영남대로와 호남대로(일명 삼남대로)를 두루 오가면서 문화적인 체험을 충분히 겪은 그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돌장승 이외에 그가 염두에 두었을 만한 석상으로는 전남 여수 鎭南館의 '石人'이나, 제주로 내려오는 중요한 길목이자 강진 兵營城 어귀에 있는 하고마을 虹橋 앞에 세워진 '병영성 홍교 벽수를 일레로 들 수 있다. 또한 제주에서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복신미륵'의 조각형태도 충분히 예술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여수석인의 경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영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 당시에 왜적의 공격이 심하므로, 그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높이 2m의 석인 7기를 제작하여 진나라의 용중석처럼 擬人化시켜 놓음으로써 적의 눈을 속여 승전의 길로 이끌었다고 전해온다.⁵⁴⁾

이와 비슷한 일곱 용중에 관한 이야기는 천재 방랑시인 梅月堂 金時翊(1435~1493)이 관서지방인 평안도를 떠돌면서 지은 '七翁仲'이란 시

54) 여수시, 『여수시문화재도록』, 2001, 35쪽.

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저 언덕 위에 뻗쳐 선
일곱 웅중 (···) 강변에 우
뚝 솟아 길이 섰구나. 당
나라 황제는 제풀에 물러
서고 수나라 병사들도 참
패를 당했거니 (···) 우거
진 풀대만이 아득히 펼쳐
졌네.”⁵⁵⁾ 『新增東國輿地勝
覽』 권52에는 이 칠웅중
과 칠불사에 대한 일화를
엿볼 수가 있다.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성에 있는 칠
불사의 창건은 乙支文德
의 살수대첩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612년(영양왕



〈그림 8〉 여수석인, 전남 유형문화재 제33호
높이 2m, 화강암

23)에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 南岸에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칠 때, 7인
의 승려가 옷을 입은 채 유유히 걸어 청천강을 건넜다. 이에 속은 수나
라 대군이 일시에 강을 건너다 수심이 깊어 거의 모두 물에 빠져 죽었
다. 싸움에서 크게 패한 수나라 군사가 물러간 후 일곱 승려의 신묘한
업적이 세상에 전해지자 이를 기리기 위해 성 밖에 절을 지었다. 이때
일곱 승려를 상징하는 七佛石像도 세워졌는데, 바로 이 사찰 앞에 서있
는 7개의 돌기둥을 일컫는 것이다.

원래 여수석인은 여수시내에 7기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6기가 유실되
어 없어지고, 현재 1기만이 2001년 4월 17일 국보 제304호로 승격된

55) 원문 詩는 다음과 같다. 岸上七翁仲 鳳皇今幾年 慣看千古事 長立一江邊 唐帝
親征返 隨兵敗績旋 山河渾不變 沒脛草連天; 김시습, 『금오신화에 쓰노라』, 류
수·김주철 역, 보리, 2005, 37-38쪽. 이 책은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1990년
펴낸 『김시습 작품집』을 보리출판사에서 다시 펴낸 것이다.

여수 진남관의 앞뜰에 남아있다. 재료는 화강암이며 머리에 관모를 썼고,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기다란 도포자락 사이로 笏을 들고 있다. 이 석인상은 口傳돼 내려오는 임진왜란과 관련한 유물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그림 8>. 따라서 김몽규 목사가 무신이었던 만큼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일화는 충분히 알만한 위치였다고 여겨진다.

전남 강진 병영성의 경우 종2품 무관인 兵馬節度使가 전라지역 병마를 통솔했던 중요한 요새로서 남해안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제주뱃길의 요충지였다. 이곳 병영성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홍교 앞 좌우에 나란히 세워진 벽수는 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 전해오던 것이다. 불행히 1984년 도난당해 사진자료만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벽수를 새로 복제하여 세워 놓았다. 하고마을을 가로지르는 배진천의 拜箋閣 옆에 세워진 홍교는 약 300년 전 이곳 출신인 劉漢啓(1688~1794) 정승의 금의환향을 기념해 만든 것이라 전한다. 장승제를 지낸 유래는 없지만 마을사람들은 이곳 벽수에 입을 맞추면 소원성취한다고 해서 동네아낙네들의 祈子 정성이 깃들여 있다.⁵⁶⁾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된 홍교는 유한계가 1730년(영조 6)에 崇祿大夫가 된 것을 기념하여 梁漢祖가 감독 준공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전반에 건축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⁷⁾ 그러기에 병영성 홍교 벽수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병영성 홍교 벽수는 그 형태가 매우 특이하며 文武石이라고도 불린다<그림 9>. 길 왼쪽편의 벽수가 武將이고 오른쪽은 文官이다. 무장은 甲冑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목까지 덮은 투구鉢을 썼고, 어깨를 덮은 肩甲에는 비늘을 세긴 흔적이 보인다. 두 손은 양쪽허리에 팔꿈치를 붙인 채로 오른손은 약간 위로 올리고, 왼손은 조금 내려 앞으로 뻗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른 손에는 칼을 잡았으나 칼자루만

56) 『강진군마을사』 병영면 편, 강진군, 1991, 306-307쪽.

5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병영성 홍교’ 참조. 여기서는 劉漢啓가 劉漢所로 소개되어 있다.



〈그림 9〉 강진 병영성 홍교 석수(왼쪽), 1976, 김두하 촬영, 『석수와 장승』 도판.
칼라판 홍교 석수(가운데) 및 흑백판 정면사진(오른쪽), 『강진 병영성』 도판, 1984년
도난 분실됨.

남고 칼날은 부러져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의 문관은 관모를 쓰고 도포를 입었으며, 두 손은 가슴 한가운데로 모은 자세를 하고 있다.⁵⁸⁾

특히 강진 병영성은 제주를 오가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핵심길 목이었기에 김몽규 목사가 익히 알았거나 직접 살펴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육지를 왕래한 김몽규 목사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았다면, 실제 돌하르방을 조각한 석공들의 시각에서 미메시스를 찾는 일은 이와 달리 제주에서 만들어 세운 석상들임은 자명하다. 제주의 대표적인 돌조각 석상으로는 복신미륵, 동자석과 문인석, 신앙석 등을 들 수가 있지만, 그 규모나 형태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주읍성과 이웃한 2기의 복신미륵일 것이다. 제주읍성 동문 옆의 고려시대 만수사 터에 세워진 동자복 복신미륵과 서문 근처 위치한 해륜사 터에 서있는 서자복 복신미륵은 돌하르방을 만드는 석공들에게는 충분히 눈여겨 볼만한 대상이었다고 사료된다<그림 10>.

물론 이 복신미륵은 기능면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만 조각 형태면에서는 돌하르방과 공통적인 조형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머리에 모자의 표현이나 커다란 얼굴 모양, 상체를 강조하고 하체를 과감히 생략한 표현기법, 큰 받침대 등이 매우 비슷한 형태라는 점이다. 물론 구체적인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지

58) 김두하, 앞의 책, 1995, 790-791쪽.



〈그림 10〉 동자복, 1914, 일본인 도리이엽서(왼쪽)
서자복, 1950년대, 홍정표 촬영(오른쪽)

만, 신체비례와 조각기법 같은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돌하르방을 제작한 석공들에게 미메시스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여러 형태의 조형요소들이 미메시스 되어 돌하르방 제작과정에서 보다 더 창조적인 형태로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및 제작목적을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비록 돌하르방이 ‘官’ 즉 목사의 주도하에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民’ 즉 석공들인 제주사람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단지 육지 돌장승의 평범한 亞流가 아니라 청출어람의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판단된다.

2) 돌하르방과 돌장승의 조형분석

이제부터는 조형기법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게 돌하르방의 형태적인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시기를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돌하르방의 조형기법 즉 몸·얼굴 비례와 형태특징을 구체적으로



〈그림 11〉 제주읍성 동문 돌하르방(왼쪽), 1754, 225cm, 현
제주대학교박물관 앞 위치. 남원 실상사 대장군(오른쪽), 1725, 253cm,
남원 실상사 입구 위치.

고찰한 다음, 돌하르방과 형태적 親緣性은 물론이고 매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육지 돌장승의 조형특성에 관해 살펴보고 돌하르방과 닮은 점 및 다른 점에 관하여 비교 분석해볼 것이다.

돌하르방의 가장 큰 형태적 특징은 얼굴과 모자, 팔 등의 상체를 크게 강조하고 하반신 표현은 과감하게 생략해 기단석을 받쳐서 어느 정도 威嚴을 드러내는 정도이다. 그 가운데 제일 과장시켜 조각한 얼굴 표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우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익살스럽지만 조금은 근엄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와 같은 몸과 얼굴에 대한 표현은 육지 돌장승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체를 중시하고 하체를 과감히 생략하는 조형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돌장승에는 모자와 손동작 부분이 거의 빠져 있거나 아예 생략된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그림 11>.

더욱이 제주읍성 돌하르방 규모는 정의현성과 대정현성에 비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성문지기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으며 조형성도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얼굴과 몸체의 크기는 물론 조각기법 또한 육지

돌장승에 못지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전반적으로 몸·얼굴의 비례는 3~4등신으로 아주 짧은 편이지만, 오히려 얼굴 相好를 강조한 4등신 불상처럼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⁵⁹⁾ 하반신에 비해 두상 부분이 크게 강조되는 4등신 석상은 남·여 7·8등신이라는 이상적인 인체비례에는 맞지 않지만, 석상의 크기가 높을 경우에는 보는 이의 시선이 밑에서 위를 향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위엄성을 갖추면서도 한결 친근함이 드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육지 돌장승 또한 돌하르방과 마찬가지로 미학적인 인체비례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얼굴과 모자, 수염 등의 상반신을 크게 강조하는 대신 손이나 하체표현 등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조형기법을 채택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돌장승의 기본유형은 사람의 얼굴을 변형한 수호신상으로서 상징적 표현을 하고 몸체 하단의 가운데 부분에 장승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굴표현으로 통방울눈과 주먹코, 빠져나온 송곳니나 앞니, 戰笠形 또는 官帽形 모자가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이 사람의 모습을 빌면서도 왜곡과 과장을 통해 추구된 조형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가 있다. 그 하나는 도깨비나 사천왕 같은 수호신상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의 자화상적인 이미지이다. 이러한 두 유형은 생각한 바를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直情적인 것과 해학적인 것, 일종의 전형성을 제시하는 것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⁶⁰⁾

제주 돌하르방 47기 및 육지 돌장승 18기에 대한 몸·얼굴 비례분석

59) 일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4등신 불상으로는 서산마애삼존불의 협시보살, 경주 삼화령 석조미륵삼존불(일명 애기부처), 금동여래입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남산 열암골 마애불상,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일명 은진미륵)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서산마애삼존불, 삼화령 애기부처와 금동여래입상은 삼국 시대인 7세기 때 제작되고, 은진미륵 또한 고려전기 불상으로 968년(광종 19)부터 1006년(목종 9)까지 37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60) 유흥준·이태호, 「미술사의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 열화당, 1988, 163쪽.

과 더불어, 특색 있는 돌하르방 20기 및 돌장승 9기를 선정하여 형태적 특징을 10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세분화시켜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닮은 類似性과 다른 差異性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돌장승의 경우 주로 돌하르방이 제작되기 전 세워진 것들로서 전북 부안 서문안 당산 上元周將軍과 下元唐將軍(1689), 부안 동문안 당산 상원주장군, 전남 나주 윤희사 상원주장군과 하원당장군(1719), 나주 불회사 하원당장군, 전북 남원 실상사 대장군(1725)과 상원주장군(1731), 남원 서천리 당산 진서대장군 등이다.⁶¹⁾

① 닮은 점(유사성)

첫째, 모자는 대부분 모정이 뾰족한 병거지 형태를 쓰고 있다. 돌장승의 경우에는 가끔 관모를 착용한 것도 있다.

둘째, 눈은 크게 부릅뜬 통방울눈 모양을 하고 있다. 돌하르방과 돌장승 모두 눈망울에다 때로는 이중의 동심원을 양각하여 강조시키고 있다.

셋째, 코(콧구멍) 모양은 큼지막한 주먹코를 하고 있다. 특 튀어나온 콧방울 밑에는 큰 콧구멍이 선명하게 음각돼 있다<그림 12~13>. 돌하르방의 경우 제주읍성 23기 모두가 콧구멍이 새겨져 있지만, 이들보다 작은 정의현성이나 대정현성의 것은 콧구멍이 새겨져 있지 않다. 이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읍성마다 제작 장인들이 각기 달라 소통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생긴 결과로 보인다. 돌장승에서도 전부 콧구멍이 새겨져 있으나, 초창기 부안 서문안과 동문안 당산의 돌장승들은 코 부분의 마모가 심하여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콧등의 선명한 주름살 표시는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육지 돌장승에서 모두 나타나는 공통적인 조형요소로서, 이는 성문이나 왕궁, 사찰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 맹수 같이 용맹스런 기상을 표출하기 위해 동물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귀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크거나 작은 일자형이다. 간혹 돌하

61) 황시권, 앞의 논문, 2015, 79-155쪽 참조.



〈그림 12〉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서쪽 돌하르방(왼쪽) 제주대박물관 맨 앞 북쪽 돌하르방(오른쪽) 코 모양



〈그림 13〉 전라남도 나주 운흥사 상원주장군(왼쪽) 전북 남원 실상사 대장군(오른쪽) 코 모양

르방과 돌장승 모두 C자형 또는 3자형 모양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입은 보통 일자형으로 음각하고 있다. 때로 양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와 미소를 짓기도 하고, 약간 화난 듯이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다. 두 볼은 약간 볼록하게 양각돼 있는데, 돌장

승보다는 돌하르방의 볼이 더 선명하고 두툼하게 표현된다.

여섯째, 등신 비례는 이상적인 인체비례와 달리 몸·얼굴 비례가 모두 3~4등신으로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모자와 얼굴, 긴 수염이나 손동작을 좀 과장해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 하겠다. 대부분 실물보다 크게 제작돼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시각구조이기 때문에, 상체를 크게 강조하는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과 함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경주 삼화령 애기부처 같은 4등신 불상에서 보듯이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통해 위압적이고 괴기스러운 인상을 보완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기능은 돌하르방이나 돌장승 모두 읍성과 사찰보호·산천비보·방역 기능 가운데서 한두 가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주 돌하르방의 경우에는 읍성보호와 읍민의 안녕, 방역의 임무를 함께 띠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른 점(차이성)

첫째, 손과 팔은 돌장승의 경우에 그 표현이 거의 없으나, 돌하르방에는 전체적으로 손과 팔이 새겨져 있다. 규모가 제일 큰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세워진 위치에 따라 어깨를 위로 치켜들면서 왼손을 올리거나 반대로 내리는 등 매우 규칙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경우 이런 원칙이 점점 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이마의 경우 돌하르방에는 白毫 표현이 전혀 없지만, 돌장승에서는 대부분 백호가 이마 한가운데나 아래쪽 미간 사이에 또렷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사찰 앞에 세워진 호법장승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형태면에 있어서 불교적인 색채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치아 역시 돌하르방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비해, 돌장승에는 대부분 반쯤 입술을 벌려 드러난 치아와 함께 양끝에 팔자형 뼈

드렁니가 큼지막하게 빠져나와 있다. 이는 아주 사납고 험상궂은 얼굴 표정을 통해서 못된 악귀를 물리치려는 辟邪進慶의 의도가 하나의 표현요소로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수염은 돌하르방에는 치아와 마찬가지로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다. 돌장승에서는 짧은 콧수염이나 길쭉한 채수염, 덩수룩한 구레나룻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여장승인 경우에도 더러 수염이 새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체형(성별)은 돌하르방은 대부분 원형이나 타원형에 가까운 몸체를 조각하고 있으며 성별의 구별이 없다. 돌장승의 경우 길쭉한 장방형의 사각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돌하르방과는 달리 성별을 나누어 명칭을 붙이고 보통 한 짝을 이루어 세우고 있다.

여섯째, 기단석(정낭 흙)의 경우 원래부터 돌하르방에는 기단이 만들어 있었지만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다. 특히 제주읍성 돌하르방 기단에는 정낭형태의 흙이 깊게 파여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는 마소나 마차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낭을 걸쳤던 자리로 판단된다. 일부 민속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낭은 '정주목'이라고 하여 신성시 했으므로, 돌하르방은 전래되어 오지 않고 제주에서 자생했다는 제주자생설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기단에 정낭 흙을 만들지 않고 일부 기단에서만 보인다는 점에서 제주자생설의 이론적 명분으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돌장승은 대체로 기단석 없이 땅속에 묻혀 있으나, 남원 실상사 대장군이나 상원주장군과 같이 커다란 기단석 위에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

일곱째, 명칭 즉 銘文은 돌하르방에는 전혀 새겨 있지 않으나, 돌장승의 경우는 대부분 정면 하단에 명칭을 크게 음각하고 있다. 보통 상원주장군이나 하원당장군, 南正重과 火正黎처럼 중국의 고대국가 장수 명칭이거나 고문헌의 명문을 따오기도 하지만, 진서대장군·방어대장군·토지대장군처럼 방위나 일반적인 명칭을 새기기도 한다.

여덟째, 祭儀는 돌하르방의 경우에 행해지지 않았으며, 돌장승의 경우는 당산제나 장승제 형식으로 제의식을 거행하는 곳이 많았으나 지

금은 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제례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그림 14>.



〈그림 14〉 나주 운흥사 상원주장군과 아낙네, 『문화재대관』(왼쪽).
부안 서문안 당산 돌장승 제례의식, 『한국무속도록』(오른쪽)

위와 같은 돌하르방과 돌장승의 표현 양식적 유사성과 차이성을 다시 요약하여 정리해보면 <표 3>처럼 조형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돌하르방과 돌장승의 조형적 형태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큰 틀에서 조각형태가 유사한 것은 돌하르방이 제작시기가 앞선 돌장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성이 드러나는 것은 제작하는 주체가 전혀 다른 데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돌장승의 경우 경제력이 커진 마을사람들이나 사찰스님과 불자중심으로 세워졌다면, 돌하르방은 지방 목민관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신앙적이거나 과기스러운 형태표현이 절제되고 생략되었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사료된다. 그 대신에 얼굴표정이나 손과 어깨동작을 근엄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생동감이 훨씬 살아나는 시각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돌하르방은 육지 돌장승을 단순히 미메시스한 작품이 아닌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개척했다고 할 것이다.

〈표 3〉 돌하르방과 돌장승의 조형형태 비교⁶²⁾

구분		돌 하 르 방	돌 장 승
닮은점	모자	•대부분 모정이 뾰족한 병거지 형태	•병거지 형태, 가끔 관모 착용
	눈	•부릅뜬 통방울 눈 모양	•부릅뜬 통방울 눈 모양
	코 (콧구멍)	•제주읍성 23기 모두 콧구멍 있음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각 12기 모두 콧구멍 없음	•콧구멍 새겨져 있음
	귀	•대부분 크거나 작은 일자형 •C자형이나 3자형 모양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대부분 크거나 작은 일자형 •C자형이나 3자형 모양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입	•보통 일자형, 때로 양끝 부분이 살짝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와 미소 짓기도 하고 화가 난 듯이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음	•보통 일자형, 때로 양끝 부분이 살짝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와 미소 짓기도 하고 화가 난 듯이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음
	비례 (등신)	•몸·얼굴 비례가 모두 3~4등신 이내로 매우 짧음	•몸·얼굴 비례가 모두 3~4등신 이내로 매우 짧음
	기능	•읍성보호, 읍민 안녕, 방역 임무	•읍성과 사찰보호, 방역기능
다른점	손(팔)	•팔과 손이 새겨져 있음	•팔이나 손 표현이 거의 없음
	이마 (백호)	•백호 표현 없음, 음각선 주름	•이마 한가운데나 아래쪽 미간 사이 또렷하게 백호 표현
	치아	•표현 없음	•팔자형 빠드렁니
	수염	•표현 없음	•짧은 수염, 길쭉한 채수염, 덥수룩한 구레나룻을 다채롭게 표현
	체형 (성별)	•원형이나 타원형 •성별 없고, 한 쌍을 이룸	•길쭉한 장방형의 사각 형태 •성별 있고, 한 쌍을 이룸
	기단석	•있음	•거의 대부분 없음
	명칭 (명문)	•없음	•정면 하단, 크게 음각함
	제의	•없음	•당산제 또는 장승제 (현재 단절됨)

62) 황시권, 앞의 논문, 2015, 156쪽.

Ⅲ.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제주읍성 돌하르방과는 달리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각 성문 밖에 세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규모 및 형태면에서 작아지고 조형양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각 성문마다 8기에서 4기씩만 세워지며 얼굴의 시선방향, 양손의 위치, 어깨 치켜 올리기 자세 등의 균형이 깨지면서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것은 제주의 3읍성 돌하르방이 김몽규 목사의 직접적인 지시로 동시에 세워지지 않았음을 오히려 방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돌하르방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시기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연구자로는 정성권이 있다. 세 읍성 돌하르방 가운데 조각수법이나 장식물 표현, 같은 지역 내에서의 현격한 조각능력 차이를 보이는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가장 먼저 건립된 후 순차적으로 정의현성과 제주읍성에 조성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는 100년 가까이 몽골이 제주도를 관할한 사실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몽골 석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그 또한 세부적인 조각 형태가 서로 달라 훈출로와 돌하르방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원나라 말기 제주에 피난공결을 짓기 위해 석공들을 데리고 왔던 역사적인 사실에 미루어, 이들이 체류하며 남긴 석인상 가운데 5기 정도가 대정현성의 돌하르방 제작에 직접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추의 근거로는 우리나라 장승에는 나타나지 않는 허리띠 장식이 발견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으며, 돌하르방의 건립 순서 또한 몽골의 석공이 남긴 석상이 대정현성 앞으로 옮겨져 일부 쓰였고, 제주 풍토와 쓰임에 알맞게 나머지 돌하르방들을 변형시켜 만들어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정의현성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조성되었을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⁶³⁾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몽골의 석공들이 제주에서 제작한 몇 개의 석

63)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 『사학지』 제34집, 단국대출판부, 2001, 78-84쪽.



〈그림 15〉 제주읍성 동문 밖 돌하르방(왼쪽), 정의현성 동문 밖 돌하르방(가운데), 대정현성 돌하르방들(오른쪽), 19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정현성만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있다.

상이 400여년이 지난 뒤 화려하게 부활해 제주 돌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제주읍성 돌하르방에 대한 문헌기록은 물론 각 고을마다 어느 정도 독자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보건대, 합리적인 典據로 작용하기에는 적잖이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5>. 또한 대정현성의 경우 1418년(태종 18) 처음 축조할 때 제주읍성이나 정의현성과 달리 동서남북 4문이 만들어졌다. 북문은 나중에 폐쇄시켜 3문만 남아 있다는 문헌기록으로 미루어,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12기만 전해온다는 점에서 수치상으로도 맞지 않다. 따라서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축성 초기가 아니라 3문으로 성문이 축소된 이후에 만들어졌음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18세기 제주지역의 재정에 관한 문헌기록 중에 제주순무어사 朴天衡이 지어올린 서계를 보면 제주의 平役庫는 1738년(영조 14) 제주어사로 파견된 李度遠에 의해 처음 창설된 것을 알 수 있다.⁶⁴⁾ 제주의 民庫 가운데 대표적인 평역고는 軍役을 진 자들에게 면제해 주고 대신 쌀을 내는 방식을 적용하여 설치했으며, 각 읍과 현의 군인 급여는 물론 중앙의 공물헌납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⁶⁵⁾ 특히 田結稅는 중앙정부에서

64) 『書啓輯錄』 濟州巡撫御史 朴天衡書啓; 서계집록은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암행어사들이 지어올린 서계를 모아 엮은 정책서로, 불분권 9책의 필사본이다. 편자 및 간행연대 미상이며 1777년(정조 1)부터 1794년까지의 서계가 실려 있다. 濟州巡撫御史 박천형의 서계는 제4책에 실려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65) 李源祚, 『耽羅錄』 중 擬減役均稅議, 『탐라문화총서 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190쪽.

가장 중요시한 수세항목이었지만 제주에서 거둬들인 전결세는 그 양이 적어 중앙에 상납하지 않고 제주소재 관청의 재정에 충당되었다.⁶⁶⁾ 이 밖에 중앙의 관리파견이나 목사의 순력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供星穀이나 표류인에 대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供彼庫 제도를 만들어 각 읍현의 재정에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⁶⁷⁾

이러한 재정운영 형편으로 볼 때 제주읍성의 경우는 관청건물의 중수과정에서 돌하르방의 제작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지만, 정의현과 대정현성에서는 제작동기가 크게 없었기에 각 지역별로 재정에 맞게 돌하르방의 규모나 수량, 조각형태가 조금씩 달리 나타나지 않았는가 한다. 돌장승의 경우는 18~19세기에 걸쳐 2백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형태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반해, 돌하르방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성마다 조형적인 차이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3읍성의 재정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돌하르방이 세워진 이후 제주에 머물고 나서 남긴 石北 申光洙(1712~1775)의 『耽羅錄』을 통해서도 그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⁶⁸⁾

신광수는 1764년 52세에 의금부의 금부도사 金吾郎으로서 제주에 부임하였으나, 풍우로 뱃길이 막혀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45일 더 체류하게 되었다. 그는 이때의 모진 여정을 100여수의 시로 남겼는데, 당시의 제주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⁶⁹⁾ 특히 이 가운데서 「又憫荒」이란 시 속에는 “三縣三周供 荒年久客難”라는 구절이 나온다.⁷⁰⁾ 이것은 그가

66) 『濟州邑誌』 田稅, 이 책은 편자와 편년 미상의 제주·대정·정의읍지로, 1780년부터 1782년경까지 작성된 「제주읍지」·「대정현지」·「정의현지」를 저본 삼아 펴낸 後寫本으로 보이는 책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67) 『서계집록』, 앞의 책; 제주목에서는 使客支應米를 거두어들였으나 정의현과 대정현은 달리 비용을 징수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될 때마다 각 현에서 번갈아가며 경비를 댔다.

68) 이 『탐라록』은 1764년에 지은 것으로서, 『석북집』에 실려 있다 이 문집은 1975년 『崇文聯芳集』 속에 재수록되었다(『송문연방집』, 탐구당, 1975, 해제 참조).

69) 부영근, 「석북 신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 제8집, 영주어문연구회, 2004, 53쪽.

70) 『석북집』 권7, 『송문연방집』, 앞의 책, 1975, 154쪽; 이 서책은 신광수의 시문

제주목관아에 체류할 때 3현에서 세 번씩 돌아가며 식사를 대주고 있어, 흥년에 오래 머물기 몹시 난처한 처지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외에 비록 김몽규 제주목사가 직접 제작지시와 재정지원을 했거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정의현감 呂遇周는 1751년 7월부터 1754년 2월까지 그리고 대정현감 李熙春은 1751년 7월부터 1754년 5월까지 길게 부임한 것으로 미뤄볼 때, 서로 간에 돌하르방 제작과 설치에 관한 상호교감은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기에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세워질 때나 그 직후에 만들어 세운 것이라 판단함이 여러 정황상 옳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고유한 제주 돌문화의 상징으로서 자리 매김된 돌하르방의 제작시기에 관해 문헌분석과 기능분석, 형태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제 돌하르방이 제작되었다는 시기와는 달리, 이에 대한 문헌기록이 160여년 지난 후에야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 주장과 학설이 난무하여 돌하르방의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새롭게 시도한 문헌분석에 있어서도 역사적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사료발굴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 늦기 전에 어딘가 혹시 있을지 모를 사료발굴을 위한 학계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꾸준히 펼쳐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돌하르방의 문헌기록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보다 자세히 밝혀내기 위해 돌하르방의 기능과 형태적 특성을 국내외의 유사한 조각상들과 병행하여 다양하게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로 문헌기록의 명확성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

집으로 총 16권 8책이며, 1906년(광무 10) 그의 후손 申觀休가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었다고 생각된다.

제주 돌하르방의 활발한 학문적인 연구와 더불어 꼭 필요한 과제는 돌하르방의 온전한 보존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돌장승의 경우 이미 18기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이에 비해서 돌하르방은 현존하는 47기 가운데 45기만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제외돼 있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기를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동시에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집

- 『강진군마을사』 병영면 편, 강진군, 1991.
- 『南遊錄・達告辭・耽羅別曲・訓民篇』, 제주문화원, 1999.
- 『南嶺博物』, 이형상, 이상규·오창명 역, 푸른 역사, 2009.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문화재청, 2005.
- 『書畧輯錄』
- 『石北集』 권7.
- 『崇文聯芳集』, 탐구당, 1975.
- 『승정원일기』
- 『신증동국여지승람』
- 『심재집』, 제주문화사, 1990.
- 『여수시 문화재도록』,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1.
- 『(역주)증보탐라지』, 담수계 편, 제주문화원, 2005.
- 『역주탐라지』, 이원진, 김찬흠 외 역, 푸른 역사, 2007.
- 『(역주)탐라지초본』 상하, 이원조, 제주교육박물관, 2007-8.
- 『延州』 제2호,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1986.
- 『延州玄氏世譜』 2000년 庚辰譜, 2001.
- 『제주읍지』
- 『조선왕조실록』
- 『知瀛錄』, 이익태,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10.
- 『탐라견문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정운경, 정민 역, 휴머니스트, 2008.
- 『탐라록』, 이원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탐라문헌집』 교육자료 29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디지털서귀포시문화대전, 서귀포시 <http://seogwipo.grandculture.net>
-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제주시 <http://jeju.grandculture.net>
-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

2. 논문 및 저서

가종수·기무라 시게노부, 『한국 석상의 원류를 찾아서』, 북 코리아, 2011.

김동전,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박물관, 2004.

김두하, 『벽수와 장승(수정증보판)』, 집문당, 1995.

김두하, 『장승과 벽수』, 대원사, 2011.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여행 1·2』, 고래실, 2006.

김석익, 『제주속의 탐라-심재집』, 오문복 외 역, 보고사, 2011.

김시습, 『금오신화에 쓰노라』, 류수·김주철 역, 보리, 2005.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탐라문화』 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김정선, 「옹중석: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데 바이에르, 『몽골 석인상의 연구』, 박원길 역, 해안, 1994.

무경(武瓊),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박희병 역, 돌베개, 2000.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변경봉, 『변경봉문집』, 허남춘·김병국·김새미오 역, 탐라문화연구소, 2010.

부영근, 「석북 신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 제8집, 영주어문연구회, 2004.

아카마쓰 지조·아키바 다카시, 『조선무속의 연구 상·하』,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안길모, 『불교와 세시풍속』, 명상, 1993.

원준식,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위엔커[袁珏], 『중국신화전설 2』, 전인초·김선자 역, 민음사, 1999.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 유홍준·이태호, 「미술사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 열화당, 1988.
- 이강희, 『탐라직방설』, 현행복 역, 각, 2013.
- 이종철, 『한국민속신앙의 탐구』, 민속원, 2009.
-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濟州島』,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 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사학지』 제34권, 2001.
- 정승모, 「돌하르방과 타지역 석상 비교」,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 공원, 2007.
- 조성산, 「이강희의 『탐라직방설』과 제주도」, 『다산학』 12호, 2008.
-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1』, 한겨레신문사, 2004.
-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시기;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청대사림』 6, 청주대사학회, 1994.
-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황시권, 「제주 돌하르방의 종합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황충기, 『한국학사전』, 국학자료원,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Production Time of Dolhareubang(Totem pole) in Jeju Island

Hwang, Si-Kwon *

Dolhareubang, the symbolic icon of Jeju Island, was built by Jeju Minister Kim Mong-Kyu(金夢煒) in 1754. 48 Dolhareubangs were made in Jeju 3 castles during the Chosun Dynasty. Today, 23 (1 lost) among 24 from Jeju castle, 12 from Jeongui castle, 12 from Daejeong castle, total 47 are passed down to present. In the year of 1971, 45 of them have been designated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lk materials No.2 ; 2 that were transferred into the entrance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Seoul during mid 1960s were excluded.

This paper studies Dolhareubang which represents the innate characteristics of Jeju. For this study, multiple forms of research was made like literature research, functional analysis and form analysis related with art historical origin, production time and molding characteristics of Dolhareubang. The first literature record of Dolhareubang had problem of credibility because it was found 160 years later in 1918 than actual time which Dolhareubang was first made. Literature research was made for the investigation that this record has validity. Also, by consideration of purpose based on establishment period and analytical shape comparison to Korean

* Myongji University, Ph.D. in Art History

Traditional Stone Totem pole of the land, production time of Dolharubang will be clearly represented.

Key-words: Dolhareubang, Korean Traditional Totem pole, ONGJUNGSEOK,
Kim Mong-Kyu, Kim Seok-Ik

논문투고일: 2019.05.10.

심사완료일: 2019.05.27.

게재확정일: 2019.06.04.

태평양 전쟁 말기 요카렌(予科練)의

제주도 주둔과 위안소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윤^{**} · 고성만^{***}

- I. 들어가며
- II. 일본 해군의 제주도 주둔과 해안특공기지
 - 1. 실태 및 현황
 - 2. 구축 공사
- III. 태평양 전쟁 말기 성산 지역의 군사기지화
- IV. 제45신요대의 배치와 요카렌의 군사훈련
- V. 두 곳의 위안소
- VI.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봄부터 제주도가 결호 작전(決號作戰) 지역에 편입되면서 약 7만 8천여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다. 미군의 제주도 상륙과 지상전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에서 산악 지대에 이르기까지 섬 전역에 대규모의 방어 시설도 구축됐는데, 그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3월 23일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개최한 <지역과 기억을 통해 본 일본군성노예제>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회의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 준 김성례, 김소라, 김득중 선생님과 투고 논문에 대한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E-mail: chomin999@hanmail.net)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E-mail: wikigarden@jejunu.ac.kr)

일본 본토와 인접한 성산 지역 역시 본토 결전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화기와 병력이 집중됐다. 그 과정에서 자폭용 병기인 신요(震洋)와 제45신요대(震洋隊) 소속의 요카렌(子科練) 생도들이 배치됐고 위안소가 설치·운용되기도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쟁 말기 성산 지역의 상황을 현지 조사와 목격자 인터뷰, 사료 분석을 통해 실증하는 것에 있다. 조사 결과, 성산 지역에 총 19개소의 군 관련 시설이 파악됐는데, 그 중에는 위안소 두 곳의 존재도 확인됐다. 위안소의 상황을 목격했던 성산 주민은 당시 이 지역에 주둔했던 육·해군 가운데서도 오직 요카렌만이 유일하게 위안소를 이용했고, 그들이 ‘단추가 일곱 개 달린 멋진 군복을 입고’ 위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장면을 톡톡히 기억하고 있었다. 제주도에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나 연구가 아직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학술적, 사회적 의의는 자못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성산 지역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추가 조사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또한, 일본 제국권 내에 신요대가 주둔했던 지역에서 위안소가 어떠한 양상으로 운용됐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요카렌, 신요, 성산, 위안소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 일본 해군이 제주도 동부의 성산 지역에 구축했던 군사 시설에 대해 현지 조사와 목격자 인터뷰, 사료 분석을 교차하며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결호 작전(決號作戰)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부상되면서 성산 지역이 빠른 속도로 기지화 되고, 자폭 병기와 대원들이 실전 배치되는 과정에서 위안소가 설치·운용됐던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군은 미군의 제주도 상륙과 지상전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에서 산악 지대에 이르기까지 섬 전역에 대규모의 방어 시설을 구축했는데,

그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¹⁾. 이에 대해 2005년부터 실시된 <일제하 제주도의 일본군 전적지 조사 연구>에서는 당시 일본군이 구축했던 비행장과 지하호, 격납고 등 관련 군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가 파악됐고, 그 과정에서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²⁾. 그러나 기존의 <전적지 조사 연구>는 군사 시설 위주의 현황 파악이 주된 목적이었던 탓에 전쟁 말기에 전황이 악화되고 해당 지역이 급속하게 기지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적 현상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점에서 이 논문은 <전적지 조사 연구>가 남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일본 본토와 가장 가까운 성산 지역 역시 결호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화기와 병력도 집중됐다. 특히 육·해군의 주둔과 함께 ‘신요(震洋)’라는 폭탄을 탑재한 자폭용 보트가 배치되면서 성산 일출봉 해안가에 갯도 진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1944년 겨울부터 1945년 4월까지 진행됐다.

이 논문은 1945년 4월 성산 지역에 신요 부대가 도착, 주둔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전쟁이 끝나고 철수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목격했던 주민 4명과, 이 지역의 전후(戰後)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주민 2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토대로 한다.³⁾ 특히, 성산 지역에 주둔했던 제

1) 2000년 이후 그 중 일부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02년 5월에 모슬포 알프르 비행장의 비행기 격납고가, 2006년 12월에 알프르 비행장의 지하병커를 비롯한 12개소의 일본군 전쟁유적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주도에 일본군들이 남겨 놓은 전쟁시설이 언론의 조명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지하갯도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한경면의 가마오름 유적지에도 2004년 평화박물관이 개관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2) 연구결과는 조성윤·지영임·허호준(2007), 조성윤(2008a, 2008b), 제주역사문화진흥원(2008, 2009, 2011, 2012, 2013) 등에서 소개하고 있다.

3) 면담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의 정보와 면담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이름	성별	출생연도	면담 일시 및 장소
오시종	남	1929년	2010년 6월 16일 및 12월 28일 구술자의 자택, 2011년 1월 26일 성산리 마을회관, 2019년 4월 18일 성산리 내 음식점
신영춘	여	1932년	2010년 12월 28일 구술자의 자택

45신요대(震洋隊)의 군사 시설 및 위안소, 병사들의 훈련과 일상생활을 근거리에서 관찰했던 주민 오시종의 기억과 증언은 태평양 전쟁 말기 성산 지역의 상황을 목격자의 시선에서 재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당시 나이가 어려 군대에 징집되거나 노동력으로 동원된 적이 없었다. 그는 1945년 4월경 자신의 집에서 30미터도 채 되지 않은 곳이 군에 접수되어 위안소로 사용됐기 때문에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위안소에 드나드는 군인들과 그곳 여성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동안 제주도에 위안소가 있었다는 연구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복수의 목격자 면담과 현장 확인, 그리고 일본측 사료를 교차 분석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Ⅱ. 일본 해군의 제주도 주둔과 해안특공기지

1. 실태 및 현황

전황이 악화되자 일본 해군은 1944년부터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특공 병기(特攻兵器)를 제작하여 실전 배치했다. 특공 병기는 카이텐(回天)이라 불리는 어뢰정과 신요(震洋)라 불리는 베니어 보트가 주종을 이루었다. 모두 폭탄을 장착한 채로, 선발된 해군 병사가 직접 조종하여 최종적으로는 미군의 함정을 향해 돌진, 충돌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해군은 이 자폭 병기를 조종하여 미군 함정에 돌격할 탑승원으로 요카렌(子科練)⁴⁾ 생도를 재훈련 시켰다.

현원조	남	1926년	2010년 12월 28일 구술자의 자택
오은자	여	1929년	2010년 12월 28일 구술자의 자택
오기병	남	1934년	2011년 1월 6일 구술자의 자택
한전복	남	1951년	2010년 12월 28일 및 2011년 1월 26일 성산리 마을회관

4) 요카렌은 ‘해군비행예과연습생(海軍飛行子科練習生)’의 약칭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서구 열강에 뒤처질 수 없다

요카렌은 대부분 20세 전후의 젊은이들로 구성됐다. 당초 14~17세의 청소년들을 선발했는데, 주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 비행사가 부족했던 전쟁 초기에는 조종사 양성이 큰 과제였다. 그러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보유하던 비행기가 미군의 공격을 받아 거의 다 떨어지고, 미군에게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그 이후부터는 비행훈련을 받았던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일본 해군은 그들을 자살 공격을 감행할 자폭 병기의 조종사로 활용하였다. 그렇게 전쟁 말기에 요카렌 생도들이 카이텐이나 신요를 조종하는 훈련을 받게 됐던 것이다.

일본 해군은 미군의 제주도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신요대를 전략 배치시켰다. 신요대는 모두 제146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는데, 각 부대원이 180~200명 규모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2만에서 3만 사이의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부대들은 일본 전역에, 그리고 대만과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제주도에도 3개의 부대가 배치되었다.

신요의 특성상 특공정을 숨겨두기 위한 갯도 진지는 모두 해안가에 구축되었다. 조성윤(2008a, 2008b)과 제주역사문화진흥원(2008, 2009)에 따르면, 일본 해군이 구축한 해안특공기지는 성산 일출봉 해안과 고산 수월봉 해안, 서귀포 삼매봉 해안, 조천 서우봉 해안, 대정 송악산 해안 등 5개소가 확인된다. 모두 각각 10~20개의 갯도 진지가 해안에 남아 있는데, 내부는 70~80% 정도가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입구는 함몰된 경우가 많은 상태이다. 갯도 진지를 구축할 당시에는 갯도 입구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유도로(誘導路)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두 파도에 휩쓸리면서 부서져 흔적 일부만이 확인되는 정도이다. 그 중에서 수월봉의 갯도가 가장 많이 파손된 상태이다.

는 발상에서 일본 해군은 1930년부터 요카렌을 모집했다. 14~17세의 소년들을 각지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24만 명이 입대했고, 그 중 약 2만 4천명이 요카렌 양성 과정을 거쳐 전장으로 보내졌다. 그 가운데 약 80%에 이르는 1만 9천명이 전사했다. (予科練平和記念館, 『予科練平和記念館年報』, 2012,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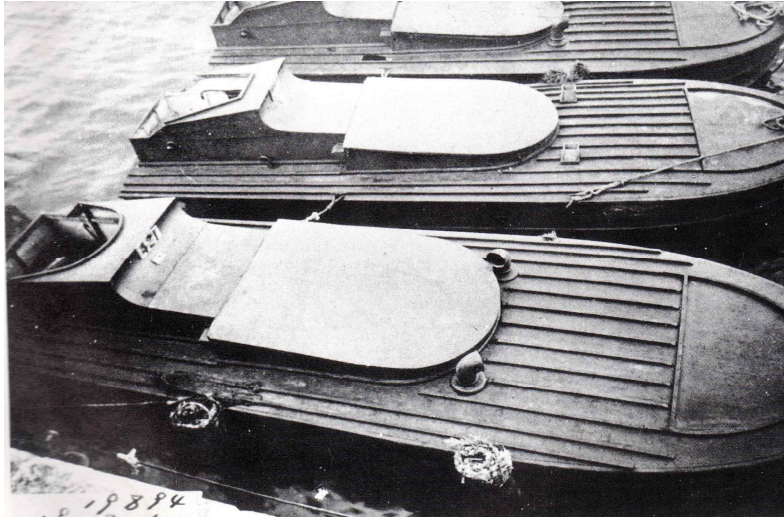
5개소 가운데 갯도 진지의 완성도가 높고 주둔 부대의 성격이 명확히 파악되는 곳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일본 해군의 해안특공기지와 주둔 부대의 특징

지역	성산 일출봉 해안	서귀포 삼매봉 해안	고산 수월봉 해안
주둔 부대	제45신요대	제119신요대	제120신요대
별칭	무라야마 부대 (村山部隊)	다나가 부대 (田中部隊)	오노 부대 (小野部隊)
인원	188명	187명	191명
신요 유형	신요정(震洋艇) 1형 50척	신요정 5형 26척	신요정 5형 26척
갯도수	18개	12개	10개
숙소	장교는 민가를 빌려 사용. 사병은 급조한 막사 6동을 이용.	갯도 절벽 위에 주거용 막사 설치	한림면 민가 및 고산소학교 사용

震洋會(1990)와 奥本(2013)에 따르면, 성산 일출봉 해안과 고산 수월봉 해안, 서귀포 삼매봉 해안의 갯도 진지는 해군 수상 특공정(海軍水上特攻艇)인 신요(震洋)를 숨겨 놓기 위해 구축한 특공정 비닉호(特攻艇秘匿壕)임을 알 수 있다. 震洋會(신요회)는 신요대 출신으로 구성된 전우회인데, 그들이 남긴 기록에서 위 세 지역에 신요대가 주둔했던 사실이 확인된다⁵⁾.

5) 第五十六震洋隊隊員有志(2004), 이완희(2014) 역시 1945년 4월 3개 부대가 제주도 배치된 사실에 대해 적고 있다.



〈그림 1〉 1형(型) 진양정⁶⁾. 고산, 서귀포와 달리 성산 지역에는 이 기종이 배치됐다.



〈그림 2〉 성산 일출봉 남서측 사면 일대 해안가에 구축된 갯도 진지(2011년 3월 30일 필자 촬영).

6) 震洋會, 1990a, 『寫真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上巻』, 国書刊行会, 27쪽.

제주에는 <표 1>의 3개 지역과 유사한 형태의 해안 갯도 진지가 조천 서우봉과 대정 송악산에서도 확인된다. 조천 서우봉 해안의 갯도 진지는 규모와 구조, 특징이 표1의 세 지역과 비슷하지만, 실제 해군이 주둔했거나 신요가 배치됐던 기록이 없고, 갯도 진지 역시 종전까지 미완성 상태였다. 대정 송악산 해안에 있는 갯도 진지 역시 1945년 8월 시점까지 미완성 상태였다. 송악산 갯도의 내부 직경은 다른 4개소 보다 훨씬 길어 10m 이상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신요가 아닌 동체 길이가 14~16m에 이르는 카이텐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5개소의 해안 갯도 진지 중 일반인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은 송악산 해안에 구축된 것인데,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갯도 진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특히 갯도 진지와 송악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올레 10코스로 편입, 개발되면서 천정 부분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현재는 갯도 진지에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밖에 일출봉과 서우봉, 그리고 수월봉에 위치한 갯도 진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

제119신요대의 거점 지역이었던 삼매봉 해안가의 진입로에는 ‘황우지 12동굴(日本軍陣地窟)’이라는 제목의 안내 팻말이 세워져 있다⁷⁾. 그러나 갯도 3개소의 입구부가 붕괴되어 현재는 9개소만이 확인된다. 또, ‘回天’이라는 자폭용 어뢰정을 숨기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삼매봉의 갯도 진지는 대부분 해안에서 밀려들어온 자갈이 입구부터 1/3 가량 쌓여있는 상태이다.

7) 안내 팻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제주를 통한 미군의 일본 본토상륙에 대비하여 제주도에 7만5천에 이르는 관동군을 배치하고, 제주전역을 요새화한다. 이 작전이 이른바 ‘결7호작전’이다. 이 곳 황우지 해안에 있는 12개의 갯도는 당시 일본군이 미군 상륙에 대항하기 위한 回天이라는 자폭용 어뢰정을 숨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동굴이 하나로 통하게 엮여져 있다. 제주 전역을 요새로 만드는 일에는 제주 사람들의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구축 공사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약 7만 8천여 명의 일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육군 58군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밑에 제111사단, 제121사단, 제96사단, 제108여단, 그밖에 포병대 등 각종 특수부대가 배치되어 미군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병력이 제주도에 집중된 것은 일본군 사령부, 즉大本營(大本營)이 수립한 본토 결전(本土決戰) 작전 때문이었다.

이 병력은 모두 육군이었고, 대부분 1945년 3월 이후에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 이전에 제주도에 주로 해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해군이 제주도 작전의 주체였다. 특공정 비닉호 구축 역시 해군이 주도했으며, 신요대의 배치는 같은 해 4월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요대가 배치된 4월에도 특공정을 숨겨 놓을 강도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1944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에 해군 특공대를 배치하기로 계획이 세워지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 역시 1944년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된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다⁸⁾.

해안특공기지 5개소의 구축 공사는 모두 일본 해군 시설부가 담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조선인 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해안 특공 시설의 건설 계획을 수립한 것은 해군 시설부 203부대이고, 공사의 지휘감독은 시설부 소속 군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본의 건설 및 토목회사들이 담당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는 전라남도의 탄광에서 모집해왔고, 하급 노동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제주도내 각 마을 주민들을 동원했다. 일본군 병사들이 직접 동원되어 굴착했던 다른 지역의 지하호나 각종 토치카들

8) 조성윤, 「알프스 비행장-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41호, 2012.

과는 달리 해군이 담당하던 지역은 일본 토목회사를 통해서 민간인이 굴착 작업에 동원됐다. 광양광산에서 일하다가 동원되었던 장한중(남, 1922년생)의 증언을 들어보자.

결혼은 1943년에 했고 제주 간 건 45년 정월달에 갔어요. 그때는 전시 시대가 되가지고, 왜놈들이 광산 종업원들을 전부 노동자로 데코 갔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 광산에서 800명이 동원이 됐는데. 1차, 2차, 3차로 갔는데 나가 1차로 갔어요. 그때는 여수서 군함으로 갔는데. ... 여기서 제주 가는데 4일이 걸렸어요. ... 성산포는 뽕 돌리가 바다인디 전부 옆이 절벽 이거든. 거기다가 뽕뽕 돌려 구녕을 파는 거라. 터널을. 광산 사람들이 구녕을 잘 뚫는게 전부 광산이라. 북한 광산 사람도 다 소집했거든. 그래가꼬 서귀포로 가고 저 끝에 모슬포로 가고, 제주 시내 성 내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작업한 건 뭐고 하니 이 산, 물하고, 산하고 딱 지경에 딱 맞춰 가꼬, 물이 만조가 되면 딱 그 근처까지 닿게 되면 그 발로 구덩을 파고 들어갔어. 거기다가 뭐라고 하나면 요새 리어가 같은디, 요만한 바위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 늪을 구멍에 전부 숨겨 놓는 거라. 뽕뽕 돌면서 왜말로 교라이뽕(魚雷艇)이라고 하는디. ...그 굴이 한 굴이 아마 한 7m 그 정도 깊이 안 들어갔어요. 그걸 인자 교라이뽕(魚雷艇) 밑에 리어카를 딱 수평해서, 물이 들면 딱 수평이거든. 근디 거그서 한 10m는 비스무리 물 3m 깊이 정도까지는 공구리를 한다고 그래가꼬 좀 왔다 그러면 쪽 밀어버리면 빠져 부러. 어디 가면 물이 이시니까 ... 우리가 맡은 굴이 17갠가 돼.⁹⁾

장한중은 광양광산에서 화약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광양광산에서 일하던 광부, 화약 기술자들과 함께 제주도로 보내졌다. 그들은 여수에 모여 일본 군함과 목선을 타고 서귀포항을 통해 들어왔다. 당시 동원되었던 광산 기술자들은 광양군 옥룡면의 광양광산을 비롯하여 다른 전남지역의 금은동광 기술자들도 있었다.¹⁰⁾

9) 장한중과의 면담은 2009년 2월 6일 황석규가 자택을 방문해서 이루어졌다.

10) 일본 아사다(淺田) 화학공업(株)이 운영하던 해남 옥매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남군 문내·황산면에 살던 이들이었는데, 1945년 3월 하순께 제주도로 강제 동원됐다. 그들은 제주 모슬포 인근 지역과 구좌읍 해안 동굴, 산방산 등지의 군사시설물 구축 공사장에 투입됐다(『한겨레신문』 2012년 1월 9일 자).

서귀포 삼매봉 해안의 특공 기지는 성산 일출봉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시작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매봉에 동원됐던 오경성(남, 1930년생)이 진술한 당시 작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3월경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갯도 굴착 작업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작업은 군인들과 경북 출신 노무자들이 했고, 제주도 노무자들은 갯도 진지 앞 축항공사를 주로 했으며, 돌이나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작업도 했다. 밀물이면 작업을 하지 못해서 썰물 때만 작업했는데, 갯도 진지 내부에는 보트에 바퀴달린 배를 넣어두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암반이라 공사의 진척이 느려 다 완성하지 못하고 해방되었다. 동굴 양쪽에 큰 갯목을 세우고, 바닥에는 마루를 깔고, 3중으로 천장을 고정시켰다. ㄷ자로 휘어진 쇠목으로 갯목을 서로 고정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당시 오경성이 작업했던 곳은 지금의 삼매봉 해안이 아니라 그 보다 동쪽에 위치한 현재 '칠십리교' 인근의 해안 지역이었다¹¹⁾. 1945년 4월말 다나카(田中) 부대의 본부중대가 도착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지역은 신요정을 감추어 놓았다가 유사시에 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됐다. 그 결과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재의 위치, 즉 삼매봉 해안의 '황우지 12동굴'이라 불리는 쪽으로 변경하였다. 갯도 바로 위쪽으로는 현재 감굴 과수원으로 활용되는 평지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다나카 부대가 이곳에 텐트를 치고 주둔했었다고 증언한다.

Ⅲ. 태평양 전쟁 말기 성산 지역의 군사기지화

일본인들은 제주읍은 물론 한림, 서귀포, 대정 모슬포와 함께 성산포에 진출하여 집중 거주하고 있었다. 일출봉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취락이 형성된 성산 지역은 일제 시기 제주도에서도 손꼽히는 일본인 거주

11) 그 위쪽으로 '프린스 호텔'이 들어서 있었으며, 그 후 '한국SGI 연수원'으로 바뀌었다.

지역이었다. 당시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대부분 야마구치현(山口県), 나가사키현(長崎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등의 어촌 출신으로 제주도에 들어와서도 수산업 관련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직접 배를 가지고 들어와 조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조개를 가공해서 만드는 단추공장이나 통조림공장, 감태공장 등 다양한 수산업 관련 제조업도 들어와 있었다. 일제 말기 성산포 일대에도 단추공장을 비롯하여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여러 제조 가공업체들이 있었고, 일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주택과 여관, 식당 등이 있었다¹²⁾.

본토 결전을 위해 육군 제58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예하 부대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집중 배치된 것이 1945년 3월부터였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식민지 지배기 내내 제주도를 자신들의 수비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었으며, 우도에도 경비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 해군이 본토 결전 준비를 위해 1944년 12월부터는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 특공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둔지로 결정한 곳은 성산 일출봉 해안이었으며, 이어서 서귀포의 삼매봉과 고산의 수월봉 해안이 후보지로 정해졌다.

12) 성산리 마을회, 『城山浦誌 해뜨는 마을』, 2004, 353-365쪽.



〈그림 3〉 일제 말기 성산 지역에 구축됐던 군 관련 시설(필자 작성).

<그림 3>은 일제 말기 성산 지역에 설치됐던 육·해군 시설을 비롯하여 특히 제45신요대 관련 시설을 주민들의 증언과 현지 조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총 19개소의 유의미한 지점이 파악됐는데, <표 2>와 같이 시설별 구분이 가능하다.

<표 2> 일제 말기 성산 지역에 구축됐던 육·해군 관련 시설

	육군 관련 시설	해군 관련 시설	기타 시설
시설명	⑭진발 육군 주둔지역 ⑮/⑳전파 탐지 관련 시설	④노무자용 함바 ⑥신요 거처 장소 ⑦위안소1 ⑩위안소2 ⑪신요 폭파 장소 ⑬진발 해군 주둔 지역 ⑯신요 특공정 비닉호 ⑰신요 훈련 구역	①감태·툇 가공공장 ②통조림 공장 ③감태 가공공장 ⑧명월관 ⑨일출여관(日出旅館) ⑫발전소 ⑮신사 ⑰기계실
소 계	3개소	6개소	10개소

특이한 점은 해군 관련 시설의 수가 육군에 비해 훨씬 많고, 그 중에서도 제45신요대 관련 시설이 주민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성산포에서 육군을 봤던 기억은 잘 안 나네. 주로 해군을 만난 것 같으니까”(오기병, 남, 1934년생)와 같은 증언이나 ‘요카렌’, ‘보트’, ‘나나츠 보탄과 같이 제주도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듣기 어려운 군사 용어를 성산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림 1>과 <표 2>을 통해서는 성산 지역 내에서도 일출봉을 주변으로 한 해안가에 해군 관련 시설이 집중 배치돼 있었고, 일출봉 남서쪽 해안을 따라 배치된 제45신요대 관련 시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두 군데로 확인되고 있는 위안소 역시 제45신요대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IV. 제45신요대의 배치와 요카렌의 군사훈련

제주도에 주둔했던 신요대는 진해경비부(鎭海警備府) 소속 제45, 119, 120신요대였다. 세 부대는 성산환(城山丸)이라는 수송선을 통해 제주로 배치됐다. 그들은 이 배로 4월 6일 일본 사세보(佐世保) 항구를 떠나 이틀 뒤인 8일 성산포에 도착했다. 그 가운데 제45신요대는 성산 일출봉에, 제119신요대는 서귀포 삼매봉에, 제120신요대가 고산 수월봉 해안에 배치된다. 부대를 관할하는 책임자의 이름을 따서 각각 무라이마(村山) 부대, 다나카(田中) 부대, 오노(小野) 부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濟州島 海軍部隊의 司수으로서 海軍報道部로부터 浜田少佐 着任”¹³⁾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 지역 중에서 본부는 성산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제45신요대가 도착한 성산포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막사도 준비되지 않았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교는 민가를 빌려서 숙식을 했고, 병사들은 시설부가 급조한 띠로 만든 병사(兵舎) 5, 6동에 나누어 주둔했다.

신요 보트를 격납시킬 갭도 진지 역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¹⁴⁾. 신요대가 배치된 후에도 해군시설부가 조선인 광산 노무자 2~3백 명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작업한 결과 가까스로 4월말에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동굴 내부의 습기 때문에 전기 계통에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문제가 많아 결국은 보트의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2정대(艇隊)와 4정대가 가지고 온 신요 1형(型) 50척을 별도의 장소로 옮기고, 나머지는 일출봉 옆 해안 모래밭에 뒤집어 놓고 그 위에 각종 위장을 하여 거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군의 마틴 쌍발기(マーチン双発機) 2대로부터 총격과 폭격을 당한 적이 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13) 震洋會, 『寫真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上巻』, 国書刊行会, 1990a, 96쪽.

14) 奥本剛, 『陸海軍水上特攻部隊全史 - マルレと震洋, 開発と戦いの記録』, 潮書房光人新社, 2013, 112쪽.

제45신요대가 도착할 당시 성산포에는 해군 시설대 뿐만 아니라 이미 육군 부대도 주둔해 있었다. 당시 상황을 오시종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해군들은 ‘무라야마 부파이(村山部隊)’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몇 사람이 안 왔어요. 나중에 굴을, 시설을 하는 과정에다가 보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요카렌(予科練)’들이 오기 시작하대요. 그니까 지금 그 ‘요카렌’들도 병사를 짓지 못해 가지고 소나무 잘라다가 임시 막사를 만들어가지고 지냈거든요.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성산일출봉의) 주차장 하는데, 절간 들어서 가지고 주차장 이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바로 그 장소에 ‘요카렌’들이 주둔합니다. 일출봉에는 전파탐지기 부대가 있었고 만군, 그 만주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부락에 상주되어 있었고 여기에도 한 3개 부대 정도가 따로따로 주둔되어 있었죠.

당시 성산 지역에 들어온 육군은 제108여단 예하 부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대는 재소집병들로 구성된 일종의 예비군 부대로 평균연령 40대가 주축이었고, 1945년 초에 급조된 부대였기 때문에, 소총 이외에는 별다른 무기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 육군 병력은 이를테면 물을 길는다든지 하는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고, 보초를 서거나 신요 보트를 지키고, 요카렌 생도들이 훈련을 할 때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는 역할이 맡겨졌다.

반면 새로 도착한 제45신요대는 신요의 실전 훈련에만 전념하였다. 신요대 병사들은 모두 요카렌 출신으로 20세 전후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상하의 일체형의 훈련복을 착용하고 매일 조를 편성해서 신요 보트에 올라 일출봉 일대 해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고 있었다. 훈련은 신요 보트를 굴속에서 꺼내 바다로 이동시킨 다음, 그것을 탐승조가 타고 나가서 가상 적 군함에 돌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오시종의 증언을 들어보자.

물이 없어 노니까 우물물을 길어 나르는 것도 일반 병사들이 길어 날랐거든요. 그런데 그 요카렌들은 단지 훈련만 받지 그런 잡일은 하질 안해.

보트를 맨들 적에도 요카렌들은 손을 안대요. 하여튼 훈련할 때만 앉아 가지고 허는 모양이에요. 그 부대가 따로 있어요.

보트가 굴 속으로 이동을 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요카렌들이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보트를 굴속에) 전부는 못 집어넣었어요. 보트를 운반하는 구미(組)가 있고, 타서 나가는 구미가 있고, 일출봉에서 나가면 저 십지코지까지 몇 바퀴 돌아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훈련하는 모습을 일체 보지 못 허도록 했지만은 우리는 뭐 보초서는 경비들하고 친하니까 쫓그려 앉아가지고 훈련하는 거 구경했지요. 그렇게 갔다왔다 갔다왔다 하면서 훈련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108여단 소속의 육군 병사들과 비교할 때, 신요 보트에 탑승하여 훈련했던 요카렌 생도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 존재였다. 그들에게는 일체의 잡일이 주어지지 않았다. 잡일은 모두 육군 병사들의 몫이었다. 해안의 굴을 파는 작업도 모두 시설부와 조선인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요카렌 출신 병사들은 미군이 나타났을 때 몸을 던져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로지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대접해주는 것이었고, 따라서 평소에 그들은 매일 매일의 훈련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그런 그들에게 휴일에 위안소에 가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커다란 특권이었을 것이다. 이 병사들이 주말, 휴일이 되면 제복을 갖추어 입고 나들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마을이 작고 어디 놀 데가 없었단”(오시중) 성산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줄을 서 기다리던 곳이 바로 위안소였다.

V. 두 곳의 위안소

위안소를 이용했던 것은 제45신요대 소속 장교들과 요카렌 생도들이었다. 오시중은 그들을 “나나츠 보탄”(七つボタン, 7개 단추)으로 기억하고 있다. 요카렌 생도의 제복에는 앞부분에 7개의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데, 이것은 그들의 상징과도 같다¹⁵⁾.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 제복의 7개 단추가 70여 년이 지난 오씨에게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었다.

요카렌들은 인원이 그다지 많질 않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위안소들 차려 가지고, 다들 정장들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시리 허는 거 많이 봤지요.

오시중에 의하면, 성산 지역에서 운용됐던 위안소는 두 곳이었다. 한 곳은 일반 민가를 개조하여 사용됐고(위안소1), 다른 한 곳은 일본인이 운영하던 여관이 사용됐다(위안소2).



〈그림 4〉 위안소1(〈그림 1〉의 ㉗). 우측 뒤편으로 성산 일출봉이 보인다. ㄱ자 형태의 위안소 건물이 현재는 지형(녹색 지붕)으로 남아 있다. 주변은 성산리 143-100이다. 2019년 4월 18일 필자 촬영.

15) 요카렌의 대명사로 불리는 '나나츠 보탄'은 세계 7대륙, 7대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요카렌 생도들이 전세계 하늘을 누비며 활약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子科練平和記念館, 『子科練平和記念館年報』 第1号, 2012, 6쪽). 2010년에 개관한 요카렌평화기념관(子科練平和記念館) 역시 '입대(入隊)-훈련(訓練)-심정(心情)-비상(飛翔)-교류(交流)-궁박(窮迫)-특공(特攻)' 등 이들의 '나나츠 보탄' 제복을 모티브로 한 7개의 상설 전시실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위안소2(〈그림 1〉의 ⑩). 당시의 위안소 건물은 철거되어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다. 지번은 성산리 139-20이다. 2019년 4월 18일 필자 촬영.

위안소1은 당시 오시중의 거주지에서 3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위안소의 외관과 그곳의 여성들, 그리고 휴일이면 위안소 앞에 늘어섰던 '나나츠 보탄'의 모습을 자주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먼저 오시중의 집과 가까웠던 위안소1에 대해 들어보자.

거기가 ㄱ자로 된 집이었는데, 일본군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방이 한 7, 8개 정도 있었어요. 한 7, 8년 전(2002년경-필자 주)까지는 그때 그 집이 온전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를 해 버렸지요.

위안소1에서 동북 방향으로 불과 백 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안소2의 상황도 오시중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

거기는 원래 초가집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키 만큼 한 담이 있었는데, 또 그 위로 담을 세 단 더 쌓았어요. 밖에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길 건너편이 일출여관이라고, 히노데료칸(日出旅館)이라고 했지요. 나카무라(中村)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여관이었는데, 초가집도 그 사람 건물이었어요. 거긴(위안

소2) 여관이 아니고, 나카무라가 개인적으로 종업원들을 투숙시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위안소로 만든 거지요. 초가집 지붕에 입구를 갈대로 둘러 쳐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끔 막았어요. 여관 주인이 가지고 있던 초가집을 위안소로 징발한 것 같아요.

오시중에 따르면, 위안소를 드나들던 이들은 요카렌 뿐이었다고 한다. 그는 위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요카렌 외에는 거기 줄 서는 것을 못 봤어요. 오로지 요카렌만. 매일 다녔는지 아니면 가는 날을 정해서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쉬는 날 오후 되면은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부근에는 동초가 서 있었으니까 우리는 멀리서나 보지 가까이서는 못 보고요. 그 앞에서 정렬을 해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요카렌들이 훈련할 때는 스즈키복을 입거든요. 그런데 거기 올 적에는 ‘나나츠 보탄’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가끔 마을에서 ‘나나츠 보탄’ 입은 거 봐지면 ‘아 오늘은 위안소 가는 날이구나’ 생각을 하지요. 거기 말고는 이 동네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구경할 데도 없었고, 또 주위에는 헌병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한편, 같은 시기 제주도 서쪽 끝 고산에서 촬영된 요카렌 생도들의 사진(<그림 6>)은 반대편 성산에서 운용됐던 위안소와 오시중의 기억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고산에 주둔했던 제120신요대의 정대장(艇隊長)이었던 무라카미 츠기오(村上次男)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도내 타 부대(제45, 제119)의 기지 및 주변 민가의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탑승원을 비롯한 부대원이 여가를 보낼만한 곳이 없어서 불쌍하기도 했었다. 반면, 대원들 사이에는 여러 측면에서 관계가 대단히 돈독해졌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후 이후 현재까지 다른 부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¹⁶⁾



〈그림 6〉 1945년 5월 고산리 소학교 앞에서 촬영된 제120신요대 소속 요카렌의 단체 사진(震洋會, 1990b: 180쪽)

같은 시기에 제119신요대와 120신요대가 주둔했던 서귀포와 고산 지역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었는지, 혹은 두 부대의 요카렌 생도들이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 성산을 드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산 지역에는 요카렌 생도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고산과 성산을 잇는 도로 사정이나 긴박하게 전개됐던 전황을 고려할 때, 그들이 수시로 성산까지 다녀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위의 ‘여가를 보낼만한 곳이 없어서 불쌍...관계가 대단히 돈독...다른 부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지속됐던 고산 지역의 상황은 성산 지역에 배치됐던 45신요대의 요카렌 생도들과 그곳의 위안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된다. 震洋會(신요회)가 1990년에 간행한 두 권의 사진집에도 ‘다른 부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증명하듯, 120신요대만이 당시 고산리 소학교 앞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그림 6>. 반면, 제45, 119신요대의 경우는 각각 성산과 삼매봉을 시찰하고 갯도 진지나 주변의 민가를 촬영한 사진만이 소개되고 있다.

16) 震洋會, 『寫真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下巻』, 国書刊行会, 1990b, 180-181쪽.

오시중에 의하면 성산 지역 두 곳의 위안소에는 각각 5~7명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을까. 오시중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여자들은 밖으로 잘 나다니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지 마을에는 나타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우리야 알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지. 당연히 내용도 모르지요. 관리도 다 그 쪽에서만 하니까.

1970년대 오시중은 당시 위안소에서 목격했던 여성을 한 차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때 위안소에 있었던 여자 분을 나중에 만난 적이 있어요. 전쟁 끝나고 군대 다녀와서 내가 버스 운전기사를 했는데, 학생들을 태우고 한림 협재굴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분을 다시 만났지. 맨 처음에는 나를 피하다가 나중에 차차 얘기를 듣게 됐는데, 참... 한 사람 한 사람만 상대를 했던 것이 아니고, 하루에 2~3명 될 때도 있고, 5~6명 될 때도 있고...; (내가) 들으면서도 뭐하고..., 말투가 제주도 분인데, 어디서 징발을 당했는지 말하지도 않고... 소라껍데기로 만든 기념품을 좌판에 넣어 팔고 있었는데 용모나 행색이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한편, 조사 과정에서 면담에 응했던 성산리 주민 모두가 당시의 위안소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기병(남, 1934년생) 역시 요카렌이 주둔하던 시기에 성산에 살고 있었지만 위안소로 지목된 곳과 먼 거리에 거주했고, 현원조(남, 1926년생)는 전후 성산에 돌아왔기 때문에 위안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밖에 신영춘(여, 1932년생), 오은자(여, 1929년생) 역시 위안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¹⁷⁾ 단지 이들의 기억 속에 요카렌들은 ‘웃을 잘 차려입은, 친절하고 다정했던

17) 이에 대해 한천복(남, 1951년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제는 우리 삼춘네 윗세대 분들이 거의 안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삼춘네(오시중-필자주) 집은 바로 거기(위안소-필자주) 가까운 곳에 살았으니까 다 봤던 거지요”

군인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친절했어요. 마을에 좀 배운 처녀들하고는 친절하게 말도 하고 그쪽으로 일 하러 가도 잘 대해주고 못 살게 굴거나 하지 않았습니니다. 주민들과는 다정하게 살았지요. (오은자)

1개 중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민폐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절간고 구마로 떡을 만들어 주면 잘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보급 받은 건빵 같은 것을 우리한테 주고 크게 행패 부렸거나 그런 기억은 없어요. 전쟁 끝나고 4·3때 군인이나 경찰, 서청들이 와서 잔학 행위 한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일본 군인들이 신사였지. (오기병)

Ⅶ. 결론을 대신하여

일본군의 결호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미군은 제주도에 상륙하지 않았고, 8만 여명의 일본군은 전투 준비만 하다 철수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미군 함대와의 ‘결전’을 준비해 왔던 신요대 역시 실전에 투입되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임무가 종료되었다.

종전과 함께, 신요대는 보트에 탑재해 두었던 폭약을 바다 속으로 던져 처분한 뒤, 갯도 진지 옆 해안가에 보트를 모아 소각하였다¹⁸⁾. 그리고 제주도내 전 부대원은 서귀포에 집결, 진해(鎭海)를 거쳐 하카타(博多)로 이동한 뒤 해산됐다. 제45신요대는 188명 전원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119신요대는 신요 보트가 육상에서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5명이 죽고, 1명이 병사했다. 정비대장 이토 키사크(伊藤喜作) 특무중위(特務中尉)는 자결했다. 종전 직후 제주도에서 자결한 육군 장교는 여러 명 있었지만, 해군은 이토 중위가 유일했다. 120신요대도 191명 중 2명이 신요정 폭발 사고로 전사했다¹⁹⁾.

18) 오시중에 의하면, 제45신요대는 종전 직후 성산을 떠나기 직전에 <그림 1>의 ⑪에서 폭탄을 제거한 신요를 폭발시켰다.

살아 돌아간 신요대는 전후 震洋會(신요회)라는 명칭의 전우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제45, 119, 120신요대원들 역시 신요회에 소속되어 매년 모임을 가졌고, 그들 중 일부는 제주도를 다시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신요회가 1990년에 간행한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사 진집 인간병기 신요특별공격대)에는 요카렌 전우회 멤버들이 전쟁 중에 주둔했던 지역을 찾아가 회상하는 내용이 각 부대별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에 주둔했던 3개 부대도 기록을 남겼다. 직접 제주를 방문해서 과거 자신들이 주둔했던 지역을 답사하고, 신요정을 숨겨 놓았던 갭도 진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다른 부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돈독한 관계가 지속됐던' 120신요대 소속 요카렌 생도와 그들의 가족 19명은 1987년 10월 고산 지역을 다시 찾았고, 차귀도가 보이는 포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²⁰⁾

제주도에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나 연구가 아직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만난 성산 주민 6명 가운데서도 위안소의 상황을 목격하고 그 곳의 여성을 직접 만난 것은 오시중이 유일하지만, 그의 증언은 수차례의 인터뷰와 현지 조사, 그리고 일본측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기록과 기억 사이에는 심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다. 때문에 오시중의 기억과 목격담을 보강해줄만한 새로운 증언자를 더 찾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균형적 상황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는 전쟁 말기 성산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주민 뿐 아니라 성산에 주둔했던 요카렌 생도 혹은 그 유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료 발굴도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1987년 요카렌

19) 奥本剛, 『陸海軍水上特攻部隊全史—マルレと震洋, 開発と戦いの記録』, 潮書房 光人新社, 2013, 112쪽.

20) 震洋會,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下巻』, 国書刊行会, 1990b, 181쪽.

전우회가 제주를 방문한 뒤 남긴 기록과 1990년에 간행한 앨범이 유일하다. 전우회 조직의 특성상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소식지나 문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파편적인 단서들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에 유용한 매개가 될 것이다.

일본 본토를 비롯한 부속 도서, 중국, 대만, 마닐라, 필리핀, 보르네오 등 일본의 제국권에 신요대가 어떻게 주둔했었는지, 또 위안소가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 돌아갔던 요카렌 병사들은 젊은 시절 목숨을 내걸고 특공대원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주둔했던 제주도를 어떻게 기억해 왔을까. 그들에게 기지 주변의 주민들, 특히 위안소에서 만났던 여성들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까. 남은 과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시키는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성산리 마을회, 『城山浦誌 해뜨는 마을』, 2004.
-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 나남, 2014.
- 조성운·지영임·허호준,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2007, 선인.
- 조성운 편,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 보고서 I』, 보고서, 2008a.
- _____,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보고서, 2008b.
- 조성운, 『알뜨르 비행장-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과정』, 『탐라문화』 41호, 2012.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 I }-제주시권-』, 2008.
- _____,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 II }-서귀포시권-』, 2009.
- _____,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 I }-제주시洞지역권-』, 2011.
- _____,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 II }-서귀포시권-』, 2012.
- _____,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 III }-제주시읍면지역권-』, 2013.
- 震洋會,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上卷』, 国書刊行会, 1990a.
- _____,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下卷』, 国書刊行会, 1990b.
- 奥本剛, 『陸海軍水上特攻部隊全史-マルレと震洋, 開発と戦いの記録』, 潮書房光人新社, 2013.
- 第五十六震洋隊隊員有志, 『海軍水上特攻隊 震洋-三浦市松輪にあった第五十六震洋隊岩館部隊の記録』, 元就出版社, 2004.
- 子科練平和記念館, 『子科練平和記念館年報』 第1号, 2012.

ABSTRACT

Yokaren soldiers and military brothels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An Exploratory Study on Sung-san Area in Jeju—

Cho, Sung-Youn^{*} • Koh, Sung-Man^{**}

The number of the Japanese army had been increasing on Jeju island since the spring of 1945, the last stage of the second World War. As the battle on the land of Japan set into full swing, the weapons and troops were concentrated into Sung-san, geologically the closest to Japan, with the escalation of military tension.

This study aims at demonstrating military facilities constructed in Sung-san by the Japanese Navy, by conducting the field survey, interviews of witnesses, and 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nineteen places of military-related facility in total are figured out in Sung-san, while two of them were used as brothels for Japanese troops. The existence of the brothel facility is confirmed by a testimony of Oh Shi-jong, a resident of Sung-san. He still clearly remembers the scene even though it has passed 70 years that Japanese soldiers belonging to 'Yokaren Unit', dressed up with seven buttons-on fancy military uniform, were waiting in line in front of the building.

In our humble opinion, any study or research that the brothels for the Japanese army were existed in Jeju has not been made public in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world. For that reason, this study leaves task that additional inquiries into people who remember the condition of Sungsan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should be continued. Furthermore, a comparative study on how the brothels were operated in the region stationed by 'Yokaren Unit'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Empire is required.

Key-words: Yokaren, Shinyo, Sung-san, military brothel

논문투고일: 2019.05.10.

심사완료일: 2019.05.29.

게재확정일: 2019.06.04.

병문천 복개 과정을 통해 본 탐동 매립 반대 운동 이후 30년^{*}

이 재 섭^{**}

- I. 들어가는 글
- II. 탐동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태동과 연대
- III. 병문천 복개를 둘러싼 30년
- IV. 병문천이 주는 시사점
- V. 나가는 글

국문초록

이 글은 탐동 불법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결정되었던 병문천 복개 30여 년의 흐름을 추적한다. 탐동 매립 반대 운동의 부당 이익 환수 차원에서 나온 주민 운동의 성과이기도 한 병문천 복개는 또 다른 형태의 매립이자, 개발이었다. 탐동의 공유수면을 파괴한 불법 매립에 대한 이익 환수가 또 다른 공유수면인 병문천 복개로 진행된 것이다. 이는 개발업자와 제주시장, 제주도지사의 밀실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복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업체 선정 등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복개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했다. 복개 이후 자연재해가 늘었고, 주민 피해가 빈번했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저류지 또한 부실 공사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현재 병문천 복개 지구는 안전 진단을 받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220).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blueways@naver.com

고 있다. 병문천 하류 지역은 안전 진단 후 반복개·복원의 과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제주 지역 대형개발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밀실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본과 힘의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다. 이점에서 병문천의 사례를 살펴보는 일은 비단 30여 년 전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안을 살피는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병문천, 탐동 매립 반대 운동, 개발 이익 환수, 병문천 복개, 저류지

I. 들어가는 글

제주 탐동 불법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흘렀다. 불법 매립에 항거하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정치권력에 대항했던 기념비적 운동의 측면에서 지난 30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탐동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30년 전 탐동 불법 매립의 결과로 생겨난 해안도로 앞 탐동 바다에는 현재 제주 신행만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의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한 방파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동북아 거점 항만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항 외항 2단계 개발 및 탐동지역 파랑 내습에 따른 월파 방지를 위한 제주항 탐동 방파제 축조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¹⁾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 사업의 목적이 재해예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민사회는 현재 공사 중인 방파제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도면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신행과 탐동을 연계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²⁾ 제주시

1)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u.go.kr/join/evaluation/part9/09.htm> (검색일: 2018.07.30.).

2) 김재훈, 「[포커스] 제주신행과 무관하지만 무관하지 않은 탐동앞바다 방파제 공사」, 『제주투데이』(2018.06.05.), <http://www.jje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04> (검색일: 2018.10.29.).

탐동 해상을 대단위로 매립해 건설하는 ‘제주 신항만’ 건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항만 계획이 제주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항만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항만 계획이 도민사회의 합의나 고민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와는 무관한 세금낭비성 토건사업으로 일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크루즈항만 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신항만이 제주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극심한 해양 환경 피해를 시작으로 용두암과 용연, 용담 2·3동으로 월파 피해가 전이되어 도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해양 환경 파괴에 따른 어장 파괴와 기존 상권과의 충돌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1990년대 범양진영에 의한 탐동 공유수면 매립 이후 주변 지역의 경기 침체와 주거 환경의 낙후화가 더욱 심화됐는데 향후 신항만 건설 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³⁾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제주 사회는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탐동 불법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을 과거의 일로 여기고 회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본고는 탐동 불법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결정되었던 병문천 복개와 관련한 30년의 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탐동 매립 반대 운동의 성과이기도 한 병문천 복개는 범도민회의 요구와는 다른 결정이었으며, 또 다른 형태의 매립이자, 개발로 전이된 것이다. 병문천 복개는 개발업자와 제주시장, 제주도지사의 승인으로 결정되었으며, 복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업체 선정 등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복개과정도 지지부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병문천 복개 이후 복개지구에 자연재해가 늘었고, 이에 따른 주민 피해가 빈번했다. 이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저류지 또한 부실 공사로 인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복개 이후 갈피를

3) 홍창빈, 「대규모 탐동매립 신항만 반발...“그게 제주 미래 아니다”」, 『헤드라인 제주』(2016.12.30.),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5346> (검색일: 2018.10.29.).

잡지 못하는 병문천 문제는 마을 공동체를 넘어 제주시의 큰 현안이 되었다. 현재 병문천 복개 지구는 안전 진단을 받고 있으며, 병문천 하류 지역은 안전 진단 후 반복개·복원의 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본고는 탐동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이익 환수 차원에서 결정된 병문천 복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문헌 및 신문 기사, 제주도 보도 자료를 통해 병문천 복개 공사 진행 과정,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와 병문천 복개와의 관련성, 이후 병문천 복개 지역의 변화 양상인 푸른 숲 조성 사업 및 병문천 저류지 조성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병문천 복개가 지난 30년간 제주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탐동 매립 반대 주민 운동 이후 30년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탐동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태동과 연대

탐동은 제주항과 병문천, 용두암으로 이어지는 제주 도심권을 포함하는 중요 지역이다. 조성윤은 “탐동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가의 제주도 관광 개발 정책과 이에 편승한 개발 이익을 독점해 온 개발업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도시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⁴⁾ 탐동 매립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86년 7월, 제주시가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탐동 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후 1986년 12월 24일 정부는 탐동 공유수면 5만여 평에 대한 범양진영과 제주해양개발의 매립 공사 면허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줄속으로 승인한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장병규는 자연 환경 보존 및 수산 자원, 해양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건설부에 매립 반

4) 조성윤, 「개발과 지역 주민 운동: 제주시 탐동 개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Vol.16 No.3, 1992, 82쪽, 1992.

대 의견을 두 차례 냈으나 무시됐다. 도시 기본 계획의 변경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⁵⁾ 시행 1주일 전에 매립사업자 면허를 내주는 상식 이하의 결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매립사업자에게 매립지의 50%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엄청난 개발 이익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성윤은 “지나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 투기 금지의 필요성 때문에 건설부가 스스로 제안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절차를 밟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건설부는 제주도지사에게 탐동 지역의 매립 면허를 내줄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빨리 밟도록 독촉을 하고 있었던 것”⁶⁾이라며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건설부는 면허 승인을 하면서 ‘선보상 후착공’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범양개발은 어장 매립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해녀와 주변 횃집에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매립을 진행하였다. 또한 하수처리 대책을 마련한 뒤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었음에도 매일 5천 톤의 하수를 매립지 밖으로 그대로 배출하여 제주시 용담동 앞 어장이 크게 오염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 해녀들의 투쟁과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연대,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범도민회 등의 조직들이 구성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으며, 지역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조직하는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탐동 개발을 둘러싼 주민 운동은 제주 지역 주민 운동 가운데 가장 일찍 시작되었으며 다른 주민 운동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컸다.

5) 1962년 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매립사업 시행자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조항이 있어, 건설부도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1986년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법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 사업 면허를 내주어, 사업자가 공공용지를 제외한 50%의 매립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사업 면허를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내 주었다면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사업자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할 수 있었다(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625&efYd=19861231#0000> (검색일: 2019.04.22).

6) 조성윤, 앞의 논문, 1992, 86쪽.

1. 탐동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과정⁷⁾

1) 탐동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시작

탐동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은 1984년 7월 6일, 제주해양개발주식회사가 건설부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해 8월 13일, 제주해양개발이 매립 면적을 두 배 이상 확대한 165,463미터(약 5만 평)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변경 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6일, 제주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건설부에 제출하였다. 9월 26일에는 건설부로부터 매립 면허 신청을 반려 받았고, 10월 4일 제주시는 탐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도시 기본계획과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설부에 다시 요청하였다. 1986년 12월 24일, 건설부가 제2차 탐동 매립 개발 공사의 면허를 범양진영에 내주었으며, 상업시설의 확장이라는 매립 목적에 대해, 16만5천 평방미터(5만 평)를 허가하였다. 1987년 6월, 해녀들은 탐동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동의를 하고 범양진영으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았다.

2) 보상금의 불공평한 배분

한편 탐동 해안가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이들의 모임인 『탐동 번영회』는 집합적 보상을 요구하여, 한집당 3,5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녀들은 1인 6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해녀들은 보상금 배분 불공평에 대해 1988년 1월부터 제주시, 제주도, 청와대와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1988년 3월, 범양진영은 공사를 시작하였다. 해녀들의 불만이 증폭하여, 해녀들 40여 명이 집단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시위는 4월28일까지 50일 정도 계속되었다. 이들은 먹돌을 옮겨주기로 한 약속 이행과

7) II-1장은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에서 2014년 발간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집 I(1987.10~1997.09): 제주의 소리 영인본(제1호-제34호)』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1988년 3월 23일, 『제주대학교 탐동 불법매립 공동대책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해 4월 28일에는 새로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녀들에게 보상금 2억9천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먹돌을 옮겨주고 활석 10톤 트럭 250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3) 탐동 불법개발 이익 환수 투쟁

1989년에 들어서면서 주민 운동의 대상이 제주도 기업인 제주해양개발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었다. 3월초에는 『탐동 불법개발 이익 환수 투쟁 도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도민대책위원회는 탐동불법매립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 6월 9일에는 『탐동 개발 이익의 제주 사회 환원을 촉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개발 이익 환수라는 이슈를 확산시키게 되었고, 도지사에게는 『탐동 개발 이익 지역 사회 환원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개발 이익은 땅으로 환수해야 하며, 총 매립 면적 5만 평 중 도로, 공원, 주차장, 호안, 광장 같은 공공용지를 뺀 개발업자 귀속분(2만 5천 평)으로 상업용지의 절반인 12,500평”을 요구하였다. 9월에는 국회의 제주도 국정 감사에서 탐동 문제가 다뤄졌으며, 같은 해 10월 4일에는 국회 건설위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내무위는 탐동 매립 면허가 불법적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탐동은 제주도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 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받아들여 12월 19일에 의결,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1990년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3당이 합당하면서 민자당이 되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죽은 문서가 되었다. 한편, 같은 해 11월 3일에는 도지사와 시장이 범양건영과 개발 이익 환수의 내용을 병문천 복개로 합의하였고, 이에 11월 8일 탐동 불법개발 이익 환수 투쟁 도민대책위원회에서는 『탐동 단독 합의 무효화 선언 도민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단독 합의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였다. 11월 19일에는 학계, 종교계, 언론계, 농민, 학생 등 각계 대표와 사회단체 대표

51명으로 구성된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가 결성되었다.

결국, 탐동 불법 매립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범도민회에서 요구한 토지로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탐동문제대책위원회는 3자간의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집회를 결의함으로써 전면적인 싸움에 돌입했다. 당시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의 사무국장 김학준은 ‘제주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병문천 복개로 마무리 지으려는 관계당국과 업자들은 더 이상의 도민분열책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탐동 매립지로의 환수는 더 이상 거론할 여지조차 없는 도민의 여망임을 주장했다.⁸⁾

4) 범도민회의 내부적 분열과 병문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1990년 1월 10일에는 병문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병문천 복개 촉진대회’가 열렸다. 이 추진위는 관변 단체로 어용적 성격을 띠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에 탐대위와 병문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등장하였다.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는 「탐동소식」 제1호(89.12.30)에서 병문천복개추진위원회에 탐동투쟁 이익을 둘러싼 도민들간의 불협화음 쪽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저의를 묻고, 자신들의 사소한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탐동 불법 매립지 환수와 관련자 처벌을 위한 시민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⁹⁾

이후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에서는 그 수위를 낮춰 개발이익의 30% 환원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2월 17일에는 범도민회 협상 대표, 사업자인 범양건영, 시장 3자가 주민 숙원 사업으로 200억 상당의 병문천 복개와 탐동 땅 100평에 해당하는 장학기금 2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나, 3월에 진행된 범도민회 전체회의에서 3자간의 합의안

8)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탐동문제, 난항 불구 매듭 풀리려나. 관계당국·업자측 분열책동과 발뺌 여전」, 『제주의 소리』 통권22호 1990년 신년호(1990.01.20.), 9쪽.

9)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앞의 글, 9쪽.

은 부결되었다. 이후 범도민회에서는 내부적 분열이 일기 시작했다. 탑동매립반대운동에서 마지막에 동력을 잃은 것은 이와 같은 내부 분열 때문으로 합의 결과에 대한 엄청난 내부 반발이 있었다.¹⁰⁾

2. 개발 이익 환수 : 병문천 복개

개발 이익 환수의 최종 결정 사항은 병문천 복개였다. 그렇다면 왜 병문천 복개였을까? 여기에서는 병문천 복개가 가지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복개된 하천은 산지천이었다. 제주시 탑동 인근 지역 하천은 산지천, 한천, 병문천 등으로 이들은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이다. 이 중 산지천은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 제주시민들에게 식수원을 제공하던 ‘물의 하천’이었다. 산지천 하류는 1960년대 후반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일부 구간이 복개되고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옛모습을 잃었다.¹¹⁾ 1965년 5월 건설부 고시로 17,394㎡의 복개가 결정되어 1966년 12월부터 1982년 1월까지 복개 공구로 나뉘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일정 기간 점포의 대지로 사용토록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도시계획도로 및 시장부지로 고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산지천의 사례를 통해 병문천이 복개 이전의 과정을 살펴보고, 병문천과 관련된 문건 분석을 통해 개발 이익 환수로 결정된 병문천 복개와 합의의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지천의 사례

우리 사회는 1960년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제한된 토지의 최대 이용의 측면과 더불어 오염된 하천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천 고유의 기능을 무시한 채 복개를 하게

10) 임문철, 『제주 탑동 매립 반대운동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종합토론 녹취록,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2018.10.31.

11) 강시영, 『한라산의 하천』,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61-63쪽.

된다. 제주시 산지천은 이런 흐름 속에서 주거가 밀집되면서 각종 오물로 도시 미관을 해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에 걸쳐 남수각에서 용진교까지 600m 구간을 복개하여 상가건물을 지었다. 복개 지역에는 14동의 건물이 들어섰고 286세대가 입주하였다.¹²⁾ 산지천 복개 구조물은 1965년 5월 8일자로 복개가 결정되어, 1966년 3월 도시계획도로 및 시장부지로 결정 고시되었다. 1966년 12월부터 1982년 1월까지 복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특이할 점은 복개 사업이 산지천 점용자로 구성된 민간업체 (주)제주개발에서 추진토록 허가된 점이다. 복개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하천 점용료 감면 조건으로 무상 임대기간을 산정하였으며, 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얻어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다.¹³⁾

제주시는 1991년 10월 복개부지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응급 보수, 보강 방안이 없으므로 철거 후 재시공하라는 결과가 있었다. 이후 소유주들의 요구에 따라 재용역한 결과 응급 보수로 2년은 견딜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93년 8월 응급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다. 건물주들과 제주시가 재건축을 위한 협약 중이던 1995년에 복개구조물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제주시의 판단에 의해 재난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경계구역을 설정, 거주자들의 이주 조치를 하였다.¹⁴⁾ 그러나 불결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골치 아픈 오염지로 변했다. 제주시는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공식 명령했다. 보상과 철거에 17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잘못된 복개 사업이 시민 부담으로 전이된 것이다. 이후 산지천은 시민의견을 공모하여 문화의 정취가 살아 숨 쉬는 옛 모습으로 되살려 도심 속의 친환경적 자연 경관 하천으로 조성되었다.¹⁵⁾

12) 변창구, 「산지천 복원에 따른 파급효과」, 『도시문제』 40권 44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35-41쪽.

13) 제주시의회, 「산지천복개시설물처리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997.

14) 제주시의회, 앞의 문서, 1997.

15) 변창구, 앞의 논문, 2005.

2) 병문천 복개 관련 문건

병문천 복개에 대한 공식 문건은 1969년에 작성된 제주시의 '제주도 시계획 일부 변경(병문천 복개)'으로 병문천 복개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제주시는 1969년 4월 1일 '제주도시계획 일부 변경(병문천 복개)'이라는 제주도로 발신한 공문에서 "복개 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계획도로를 폐지 또는 하천변 폐도용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 변경 조정할 별도 방안이 없어 당초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승인을 요청한다고 적으며, 그 사유에 대해 병문천 최하류 지역의 지가가 평당 3~4천원인데 반해 복개비용은 평당 4만 원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연차적으로 서문로 지역부터 복개해 나갈 방침이며, 제주시의 재정형편이 빈약해 복개할 자금 염출을 할 수 없고 지역 주민들도 영세 농어민으로서 대부분이 복개 내지 점포를 축조할 능력이 없으며 그 중 희망자를 참여시켜 복개한 연후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점포로 사용하게 하여 그 점용권리금을 징수하여 사업비에 충당할 것이므로 민원이 될 우려가 없다고 적고 있다.¹⁶⁾ 병문천 복개는 이미 제주시와 제주도에 의한 '제주도시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다만, 제주시의 재정형편이 빈약하여 시행하지 못한 계획이었다. 당시 공문에서는 "제주도시계획은 중앙과 동서남부 지역 개발이 중요하며 북쪽인 본 계획도로 확장은 현재로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은 실정"¹⁷⁾이라며 병문천 복개가 시일을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병문천 복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렇게 잠시 잊혀졌던 병문천 복개는 탑동 매립 반대 운동의 개발 이익 환수 국면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3) 개발 이익 환수로 병문천 복개 결정

조성윤은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이 범양건영과 제대로 된 협상을 벌이지 못했으며, 탑동문제해결 범도민회 안을 포기하고 범양건영의 주장

16)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제주도시계획 일부 변경(병문천복개)-1969.4.1.」, 국가기록원, 1969.

17)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앞의 문서, 1969.

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탐동 매립 개발 이익 환수 방안으로 병문천 복개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¹⁸⁾

강시영은 병문천 복개는 탐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1986년 탐동 매립 면허가 발부된 이후 일어난 불법 및 특혜 논란과 주민 운동으로 야기된 개발 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 주체인 범양건설이 병문천 복개와 장학기금 조성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당시 병문천에 오염된 물이 흐르고 악취가 심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덮어 버리고, 복개한 부분을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수입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탐동문제해결 범도민회는 매립 자체가 환경 파괴였는데 그 대가로 또 하나의 환경 파괴를 제안한 꼴이라며 병문천 복개에 대해 반대했지만 묵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⁹⁾

조성윤에 의하면 당국에 의해 탐동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 병문천 복개로 귀결되자, 병문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병문천 복개에 찬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병문천은 시내를 가로지르며 한라산으로부터 바다로 흘러가는 건천으로,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내다 버렸고, 따라서 언제나 더러운 악취를 풍겼으며, 병문천 주위의 환경 때문에 병문천 바로 옆에 붙은 집들의 땅값은 다른 주변 지역들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던 중에 병문천을 복개하겠다는 삼자간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병문천을 복개하면 하천은 도로로 바뀌게 되고, 병문천 주변 집들은 도로 옆에 붙는 상가로 바뀌게 되어 여러 배로 땅값이 치솟을 것이며, 이 점을 이용하여 제주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복개를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동장, 통반장을 동원해 『병문천 복개 추진 위원회』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²⁰⁾

18) 조성윤, 앞의 논문, 1992, 98쪽.

19) 강시영, 앞의 책, 2006, 52-53쪽.

20) 조성윤, 앞의 논문, 1992, 99-100쪽.

4) 병문천 합의의 배경

결국, 제주시 도심을 가로지르며 탐동 인근을 지나는 산지천의 복개는 병문천 복개 가능성에 싹을 틔웠으며, 20년이 흐른 후 또 탐동 공유수면 매립의 반대급부로 전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병문천은 한때 마을 사람들의 공동자원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가 줄어든 하천은 오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관리의 문제로 고민하던 터에 하천의 복개에 대해 찬성하게 되었으며, 하천을 덮어버리게 된다. 제주시와 제주도는 자금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병문천 복개를 통해 도시계획을 완성함과 동시에 하수도로 전락한 하천의 관리 문제와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주)범양건설의 입장에서는 토지나 현금을 통한 보상에 비해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예산을 움켜질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보상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삼자 합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역학관계가 숨겨져 있었다.

Ⅲ. 병문천 복개를 둘러싼 30년

탐라지(耽羅志)를 보면 “병문내(屏門川)는 제주성 서쪽 성 밖에 있다. 하류는 ‘버렁개[伐浪浦]이다.”²¹⁾라고 되어 있는데, 버렁개(벌랑포)는 삼도동과 용담동의 자연마을인 동한두기에 있었던 부러릿개를 두고 이른 말이다. 당시 벌랑(伐浪)이라는 마을의 이름을 취한 포구의 이름으로 지금은 복개되어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옛 포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²²⁾

용담동지에 의하면 병문천은 1914년경에 교량이 건설된 후 여러 차례 중수(衆水)되다가 1995년에 복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쓰여 있다.²³⁾ 병문천은 한라산의 1,500m 고지에서 발원, 제주 시가지의 서쪽 지역을

21) 이원진, 김찬흡 외 역주,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43쪽.

22) 고광민, 『제주도 포구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23) 용담동지편찬위원회, 『용담동지』, 제주: 용담동지편찬위원회, 2001.



〈그림 1〉 병문천(사진출처: 용담동지)

흐르는 하천으로, 삼도1동과 용담1동의 경계를 이루면서 바다와 만나는 건천이다. 한라산 800m 지경에 형성된 구린굴 일부가 병문천 본류의 약 80m 구간을 형성하며 용담동 해안으로 흐른다. 현재 병문천 하류에서 서광로, 오라교에 이르는 2,058m 구간에 복개가 이루어져 하천의 원형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장마철이면 하천의 구실을 하나 그 외에는 물이 없는 실정이다.²⁴⁾

1. 병문천 복개 전

병문천(屏門川)은 하천 양쪽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실제 병문천 하구에 해당하는 병문하수펌프장 서쪽 일대는 지금처럼 복개되기 전만 해도 병풍을

24) 강시영, 앞의 책, 2006, 51-53쪽.



〈그림 2〉 병문내 하류의 빨래터(사진출처: 제주역사 제주100년 사진)

연상할 정도로 비교적 깊은 계곡을 이루었다고 한다. 조선 말엽 조련군의 집합장소였다는 데서 ‘병문내’라는 것이 차차 와전돼 ‘뱅문내’라 했다고도 한다.²⁵⁾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주 100년 사진’ 자료 중 〈그림 2〉를 보면 병문천 하류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을 찍은 연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병문천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일상을 나누는 생활공간이었다. 병문천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있던 공동자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는 사진에 대하여 “병문내 하류의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의 세담이 한창이다. 하얀 옷의 아낙네들이 바닥의 검은 바위들로 하여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빨래감은 구덕에 담아 내왔다.”²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3〉은 병문천 하류에서 멸치잡이를 하는 모습이다. 병문천의 하

25) 강시영, 앞의 책, 2006, 51쪽.

26) 제주역사 제주 100년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검색일: 2018.10.29.).
<http://www.jeu.go.kr/culture/history/history/jejuHistory/jejuHistory02.htm?page=3&act=view&seq=900982>



〈그림 3〉 병문천 하류에서의 멸치잡이
(사진출처: 제주역사 제주100년 사진)

류는 아낙네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으며, 지역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도 삶을 꾸려가는 생활의 공간이자 놀이의 공간이었다. 사진에 대하여 “여름날 병문천 하류에서 젊은이들이 그물로 밀려온 멸치 떼를 잡고 있다. 재 깊숙이까지 멸치 떼가 밀려오는 일은 과거에는 흔했었다. 그 하류에는 벽감는 아이들이 떼 지어 있다.”²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록 사진의 연도를 알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장의 사진을 통해 병문천이 지역 주

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지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의 보급은 주민들로 하여금 하천에 갈 필요를 없애버렸으며, 마을 사람들과 하천의 괴리는 시작되었다. 이후 하천은 오용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하수도의 기능을 맡게 된 것이다. 용수 기능도 없고, 댐 새나는 하천은 복개를 통해 결국 도로와 주차장의 기능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병문천은 어떤 존재였는가? 1970년 이전에 병문천 인근에 정착했던 고 모씨(77세)에 의하면 병문천은 당시 다

27) 제주역사 제주 100년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검색일: 2018.10.29.).
<http://www.jeu.go.kr/culture/history/history/jejuHistory/jejuHistory02.htm?act=view&seq=900993>

리도 없어 하천으로 내려가려면 언덕을 이용해 오르내렸으며, 지금같이 마르지 않아 빨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헤엄치고 놀았지만 이후 물이 없어졌으며, 큰 비가 내린 이후에는 물이 쏟아져 병문천 일대를 깨끗이 쓸어갔다고 한다.²⁸⁾ 고 모씨의 증언은 <그림 2>과 <그림 3>의 사진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기도하다.

2. 병문천 복개의 발단

제주시에서 소장한 1970년대 사진 <그림 4>를 보면 병문천 정화 활동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병문천은 건천으로 온갖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었고, 악취가 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정화 활동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강시영에 의하면 당시 병문천은 오염된 물이 흐르고 악취가 심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병문천을 복개하던 1990년대 초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용담1동의 이 모씨(75세)에 의하면 병문천은 원래 비올 때는 흐르고, 비 안 올 때는 물이 없는 마른 하천으로 비가 오면 한라산과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와 잡초들이 많아 지역의 여러 자생단체가 구역을 정해 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²⁹⁾

이에 쓰레기와 악취로 민원이 많았던 병문천을 덮어 버리고, 복개한 부분을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병문천 복개의 표면상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³⁰⁾ 병문천의 정화활동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는 제주시가 소장한 사진 자료³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8) 제주시 삼도1동 고 모 씨 인터뷰, 2018년 8월 16일, 삼도1동.

29) 제주시 용담1동 이 모 씨 인터뷰, 2018년 8월 13일, 용담1동 노인회관.

30) 강시영, 앞의 책, 2006, 52-53쪽.

31) 제주시 사진 DB 홈페이지, <http://photo.jeju.go.kr/> (2018.07.11.).



〈그림 4〉 병문천 정화 활동-1970년대(사진출처: 제주시 공보실 제공)

3. 병문천 복개과정(1990.5-1999.1)

병문천의 복개공사는 제주도와 제주시, 범양건설 3자간의 전격 합의를 통해 탐동 문제에 대하여 일방적인 종결을 시사했다.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지난 11월 2일 이군보 지사와 전창수 제주시장, 박희택 범양건설 대표는 지사실에서 가진 화동에서 탐동 개발 이익 환원 대신 탐동에서 제주종합경기장에 이르는 1만7천5백 평 전 구역을 복개하는 데 드는 비용 2백억을 범양건설이 부담하기로 하고, 내년 7~8월에 복개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³²⁾는 내용의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5월에는 제주시 탐동해안매립 시공업체인 범양건설이 제주시와 개발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에 따른 협약을 맺고 2개월이 지나도록 세부 집행 협약 체결을 기피하였으며,³³⁾ 병문천 복개 공사비의 10%만

32)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병문천 복개공사 합의, 도민반발 극심: 탐대위, 11월 8일 '합의무효화선언 범도민 대화' 개최, 『제주의 소리』통권21호 1989년 11월호(1989.11.10.), 6쪽.

33) 연합뉴스, 「범양건설, 개발이익 환원협약 미뤄, 『연합뉴스』 (1990.05.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



〈그림 5〉 병문천 복개 공사-1995년(사진출처: 제주시 공보실 제공)

을 이행 보증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³⁴⁾ 1991년 7월, 제주시는 병문천 복개공사 시행에 앞서 6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으며,³⁵⁾ 8월에는 제주시가 두 차례에 걸쳐 병문천 복개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 입찰을 실시했으나 업체들이 나서지 않아 모두 유찰되었다.³⁶⁾ 사업 시행 여부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시 병문천 복개 문제는 1992년 12월에 들어서서야 타결되었다. 제주시장은 병문천 사업 시행의 주체를 범양건설로 정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병문천 복개 공사가 착공 후 2년 6개월 내에 완공하도록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5년 6월말까지를 담보기간으로 잡았다.³⁷⁾

03438855, (검색일: 2018.07.12.).

34)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비 10%만 이행보증」, 『연합뉴스』 (1990.0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438289>, (검색일: 2018.07.12.).

35)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 용역의뢰」, 『연합뉴스』 (1991.07.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480436>, (2018.07.12.).

36)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 용역 잇따라 유찰」, 『연합뉴스』 (1991.08.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508171> (검색일: 2018.07.10.)

그러나 이후 병문천 복개 공사 시행은 지속적으로 미뤄지다 1993년 6월 말에 이르러서야 착공되었다. 범양건영은 1단계로 1993년 말까지 30억 원을 들여 삼도2동 소방파출소에서 서문다리 북쪽까지 330m를 복개한 뒤, 1994년에 1,056m, 1995년에 914m를 각각 복개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모두 200억 원이 투자되며 6만8천m²는 주차장, 나머지는 도로로 활용된다고 밝혔다.³⁸⁾ 그러나 행정기관과 공사 시행업체인 범양건영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병문천 복개 공사는 차질을 빚었다. 범양건영은 하천 복개에 앞서 바닥을 고르기 위한 굴착 공사를 벌였으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1만 5천여 톤에 이르는 돌과 흙 등을 버릴 마땅한 장소를 마련하지 않아 하천바닥에 그대로 돌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연안 오염 등의 우려를 낳았다.³⁹⁾

1993년 10월에는 병문천 복개 공사가 3개월 가까이 중단돼 완공이 크게 늦어지게 되었다. 이는 7월 중순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공동어장을 갖고 있는 삼도2동 해녀들이 공사 시행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까지 겹쳐 공사에 차질을 빚었고⁴⁰⁾ 1995년 6월에는 사업 시행자인 범양건영의 재원 부족으로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는 삼도2동 해녀들의 피해 보상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1993년 6월에야 착공된 데다 범양건영이 탐동 매립지 매각 부진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으며 완공은 1995년 말로 연기되었다.⁴¹⁾ 지지부진하던 병문천

37)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문제 타결」, 『연합뉴스』 (1992.12.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629438> (검색일: 2018.07.11.)

38)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 드디어 착공」, 『연합뉴스』 (1993.06.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49802> (검색일: 2018.07.11.)

39) 연합뉴스, 「사전준비 부족, 병문천 복개공사 차질」, 『연합뉴스』 (1993.08.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06274> (검색일: 2018.7.11.)

40)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 완공 늦어질 듯」, 『연합뉴스』 (1993.1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16611> (검색일: 2018.07.11.)

41) 연합뉴스, 「제주시 병문천 복개공사 차질」, 『연합뉴스』 (1995.06.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16611>

복개 사업은 준공 기한을 3년 이상 넘긴 채 공사가 중단되어 완공 예정 기한인 1995년을 한참 넘겼으며, 1997년 7월부터는 범양건설의 재정난으로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범양건설은 복개 사업을 1999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으나 병문천 복개의 공기 연장은 복개 지역을 도로로 활용하여 구도심권 교통량을 분산하려던 제주시의 교통난 해소 정책에 차질을 주었다. 이로 인해 적십자회관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지연되어 불편이 계속되었다.⁴²⁾ 결국 범양건설은 최초 약속했던 복개 구간 중 208m에 해당하는 구간을 복개하지 못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⁴³⁾

〈그림 6〉의 지도를 보면 당초 병문천 복개 구간은 ‘삼도 119안전센터’부터 ‘제2 오라교’에 해당하는 약 2.3km의 구간이었다. 그러나 실제



〈그림 6〉 제주시 병문천 복개 구간
(삼도119안전센터부터 제주중앙초등학교)과
미복개 구간(제주중앙초등학교에서 제2오라교)

[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94708](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94708) (검색일: 2018.10.17.).

42) 연합뉴스, 「제주시, 병문천 복개사업 연내 마무리」, 『연합뉴스』 (1999.01.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31274> (검색일: 2018.10.17.).

43) 강정효, 「범양건설, 제주시 병문천 복개 거부 의사」, 『뉴스시스』 (2004.09.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84947> (검색일: 2018.10.17.).



〈그림 7〉 병문천 미복개 구간: 제2오라교-제주중앙초교(2018년 10월 25일 촬영)

복개된 구간은 ‘삼도119안전센터’부터 ‘서문사거리’를 지나 ‘제주퍼시픽 호텔’, ‘삼도1동 경로당’과 ‘삼남주유소’를 거쳐 ‘제주중앙초등학교’에 이르는 약 2km의 구간이다. ‘제주중앙초등학교’에서 ‘제2오라교’ 구간 208m는 미복개 구간으로 남아 있다.

4. 병문천 복개 후

강시영은 병문천이 복개 된 이후의 변화에 대해 하천 일대 교통 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하천의 원형을 잃어버림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하였다. 수천,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병문천 하류의 멋스러움과 바위들은 사라졌으며 그 위를 콘크리트가 덮어버린 것이다. 자연 상태의 병문천이 복개된 이후 더 이상 새들이 찾아와 지저귀지 않으며, 하천 바위 틈새로 피어나던 풀꽃과 비가 오면 개울을 이루던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⁴⁾

범양건영은 2004년 9월, 병문천을 복개한 후 제주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미복개 208m는 공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양건영은 “탐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전제로 한 병문천 복개사업은 이미 이행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아가 병문천 복개와 장학금 20억 원 출연 약속이 늦어짐에 따라 시가 근저당 설정한 2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근저당 설정 해제를 요구했다. 당시 범양건영은 제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기타 약속은 회사의 자발적 의사이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⁴⁵⁾

2007년 9월에는 제11호 태풍 ‘나리’가 제주를 관통하였다. 태풍 ‘나리’는 제주 동쪽 해안을 스치고 지나갔으며⁴⁶⁾, 동반된 폭우로 산지천과 병문천, 한천 등 제주 시내 대부분의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태풍 ‘나리’가 휩쓸고 간 제주도 피해 지역이 대부분 복개 하천 주변으로 나타나, 복개 구조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천 하류는 대부분 복개 공사를 한 뒤 주차장과 도로로 활용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54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쏟아진 데다 마침 만조가 겹치면서 하천이 역류한 탓에, 복개지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수백 대의 차량들이 넘쳐난 물에 휩쓸려 큰 피해를 입었다.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복개지 때문에 물이 넘쳐나 평소 안전지대였던 상류까지 침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한천의 복개지를 받치고 있는 상판에 균열이 생겼는가 하면 병문천 복개지 주차장 바닥에도 금이 가는 등 복개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⁴⁷⁾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11호 태풍 나리의

44) 강시영, 앞의 책, 2006, 53쪽.

45) 강정효, 「범양건영, 제주도 병문천 복개 거부 의사」, 『뉴시스』 (2004.09.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84947> (검색일: 2018.10.17.).

46)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태풍백서』, 2011, 41-43쪽;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태풍 나리 이동 경로 검색, http://www.weather.go.kr/weather/typhoon/typhoon_06_01.jsp (검색일: 2019.06.05.).

47) 김재하, 「제주 하천 복개가 더 큰 피해 불러」, 『뉴시스』 (2007.09.17.), <https://>



〈그림 8〉 제주시-범양건설 협약체결식_2009년 9월 25일(제주시 공보실 제공)

위력이 큰 탓도 있지만 제주시 지역의 피해는 무분별한 하천 복개 때문에 커졌으며 이는 행정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⁸⁾ 제주환경운동연합도 “하천 복개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가 필요하지만 복개공사를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복개 공사에 대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태풍 ‘나리’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제주시 산지천과 병문천, 한천교 일대 주민들도 하천 복개를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⁴⁹⁾

제주도에 의하면 도내 하천은 143개소에 829km에 이르나,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대부분이 설계 강우빈도가 50~80년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이상기후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67661 (검색일: 2018.10.16.).

48) 김재하, 「제주경실련, 태풍피해 하천복개가 부른 ‘인재’주장」, 『뉴시스』 (2007.0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69240> (검색일: 2018.10.16.).

49) 김대휘, 「물폭탄 맞은 제주, 원인은 태풍만이 아니었다」, 『노컷뉴스』 (2007.09.18.), <https://www.nocutnews.co.kr/news/348285> (검색일: 2018.10.16.).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는 제주 시내 도심지에 위치한 하천을 복개한 것이 주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태풍 나리의 내습 시 제주시의 경우 1일 강수량은 420mm로서 1,000년 이상의 빈도를 나타냈으며, 제주시내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산지천, 병문천, 한천, 독사천 등 4개 하천에 5.8km를 복개해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우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⁵⁰⁾

제주도는 이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저류지 조성을 들고 나왔다. 강상혁·박원배(2007), 양성기(2007), 한무영 등은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대책과 관련한 치수대책에서 저류지 설치를 사전적 대응으로 제시하였다.⁵¹⁾ 제주시는 병문천 상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병문천 제3저류지 대체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09년 9월 25일 탐동 매립의 주체이자 병문천 복개 공사를 추진한 범양건영과의 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는 범양건영이 병문천을 미복개한 208m에 해당하는 공사비 16억 원의 재원을 포함하여 저류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체결이었다. 이는 범양건영이 탐동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병문천 상류 제3저류지 대체사업에 쓰였다⁵²⁾는 것인데 제주시는 왜 병문천 제3저류지 공사를 범양건영과 협약을 통해 조성하려고 하였는지 합리적 의문이 든다. 병문천 상류에 조성되는 7만6천 톤 규모 저류지 사업에 들어가는 총 62억 원 중 지방비

50) 김종배, 「제주도, “하천복개가 태풍피해 키웠다” 잠정결론」, 『뉴시스』 (2007.10.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82534> (검색일: 2018.10.16.).

51) 강상혁·박원배, 「태풍 나리에 의한 제주 지역의 수해 피해원인 및 대책」, 『제주발전연구』 통권11호(2007년 12월), 159-160쪽; 양성기, 「태풍 나리에 의한 제주도의 피해현황과 방재대책」, 『방재연구』 제9권 제4호 통권 36호(2007년 12월), 68쪽; 한무영, 「병문천 등 제주시내 주요하천, 폭우 내릴 때마다 범람 위험」, 『제주일보』 (2007.09.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79103> (검색일: 2018.10.16.).

52) 김봉현, 「제주시·범양, 탐동매립 20년 ‘매듭’ 이제 풀리나?」, 『제주의 소리』 (2009.09.25.),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9395> (검색일: 2018.10.16.).

부담액 25억 원의 일부인 16억 원을 범양건영이 내는 협약이었다. 62억이라는 큰 규모의 공사를 제주시와는 악연이라 할 수 있는 범양건영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내준 셈이다. 제주시는 범양건영이 공사담보를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마찰을 빚어왔으며, 2005년에는 제주시가 복개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업비와 장학금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7년 9월 범양건영에 장학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이윤 감소 등의 이유로 공사비에 지연손해금 및 물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에 40%인 16억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⁵³⁾ 이 협약에서 주목할 것은 태풍 '나리'로 인해 제주시는 병문천 미복개 구간을 복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체 사업으로 저류지 조성을 추진했다는 점이다.⁵⁴⁾ 이는 병문천 복개의 문제점을 제주시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병문천과 한천 복개지에 바람통로와 생태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푸른숲 2.23km를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총 50억 원 투자 규모의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푸른숲 조성 계획은 산림청 도시숲 조성 사업에 응모(2007년 1월)한 결과, 녹색자금 사업비 10억 원 지원이 결정(2007년 3월)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복개 전에도 하천변에 녹지가 없이 주거지가 하천변까지 잠식되어 이미 하천 환경이 악화되었고 수목이 자랄 공간이 부족하였으며, 인구밀집과 토지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주차장 등이 부족하고 하천 범람의 문제점 등의 해소를 위하여 하천을 정비, 복개하였으나 도시온도가 상승하고 생태계축이 단절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킴으로서 보행자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녹음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

53) 연합뉴스, 「제주시-범양건영 병문천 저류지 조성 협약」, 『연합뉴스』 (2009.09.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883670> (검색일: 2018.10.17.).

54) 김호천, 「제주시 병문천 제3저류지 공사 착공」, 『연합뉴스』 (2010.0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63779> (검색일: 2018.10.16.).

양초등학교 옆 복개 구간을 시작으로 서문다리 방면으로 녹화를 해나갈 계획이며, 하천변에 자라던 식생으로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⁵⁵⁾ 다만, 이와 같은 병문천·한천 푸른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체가 병문천 복개가 가져온 문제들인 생태계의 축 단절, 환경 파괴와 도시온도 상승 등에 대해 제주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며,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이는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며, 진정한 의미의 도시 녹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림 9〉 병문천 푸른숲: 제주시 용담동 제주중앙초교 인근(2018년 7월 25일 촬영)



〈그림 10〉 병문천·한천 푸른 숲 조성계획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55) 제주특별자치도 도정뉴스, 「병문천·한천 푸른숲 조성한다」, 2007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news/news/news.htm?act=view&seq=734521> (검색일: 2018.07.13.).

IV. 병문천이 주는 시사점

1. 30년 이후 병문천

2016년 7월, 제주시는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병문천 하류 복개 구조물을 174m를 철거하고, 폭 8.7m의 하천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병문천 하류 하천재해예방 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해당 복개물은 탐동 매립 이익 환수 사업으로 전면 복개되어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염분 등에 의해 시설물이 부식돼 기둥이 뜨거나 철근이 노출되었다. 이미 201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해야 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고 국고 지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은 108면의 주차 공간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복개구조물 철거 사업을 반대해 왔다.⁵⁶⁾

2009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복개구조물 전 구간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지부진하였다. 주민들은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인해 반대를 하였으나 제주시와의 타협으로 하천 278m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 준공될 예정이다.⁵⁷⁾ 현재 제주시가 추진하는 ‘병문천 하류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2017년 9월 복개구조물을 철거했고 기존의 도로와 인도가 사라지자 횡단보도를 설치, 도로를 우회해 건너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했다. 이 지역은 공사현장 일대 도로의 보행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⁵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56) 좌동철, 「병문천 반복개로 하천 살린다」, 『제주신보』 (2016.07.13.),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528> (검색일: 2018.10.08.).

57) 허성찬, 「‘위험’ 병문천 하류 복개지, 20년만에 정비」, 『제주도민일보』 (2016.07.09.),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01> (검색일: 2018.10.06.).

58) 손정경, 「병문천 복개구조물 정비 ‘위험천만’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신호수 배치 ‘무용지물’ 우회 보행통로 만든지 1년… 도로 보행 여전」, 『한라일보』 (2018.07.10.).



〈그림 11〉 병문천 복개 도로: 병문천 하류 공사현장, 삼도119센터 인근
(2018년 10월 25일 촬영)

병문천을 비롯한 제주 도심 4대 하천의 복개는 제주 도시의 인프라를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바꿔놓았다. 제주도는 태풍 나리의 피해가 하천의 복개로 인한 재난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은 저류지의 조성이었고 병문천·한천·독사천·산지천 등 도시를 관통하는 4개 하천에 총 11개의 저류지를 조성하였다. 태풍 나리 이후인 2008년 10월 기준, 총 75만5천톤 용량의 6개의 저류지를 조성하였다.⁵⁹⁾ 2010년 5월 기준으로 총 811억 원을 투자하여 11개소의 저류지 설치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1,214천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다.⁶⁰⁾ 저류지 조성 이후에도 추가적인 저류지 조성에 예산이 투입되

018.09.20.),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7433051608468044> (검색일: 2018.10.06.).

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도자료, 2008년 10월 2일,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 담당, http://www.jeju.go.kr/information/partdata.do?mode=detail¬ice_id=t_BOD_030400_69118 (검색일: 2018.10.18.).

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도자료, 2010년 12월 10일,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



〈그림 12〉 병문천 제3저류지: 제주시 오등동 산113번지
(2018년 10월 27일 촬영)

었으며, 2015년에서 2016년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저류지의 보수 공사에도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에 취약한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조성한 저류지조차 공사 과정의 부실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병문천 제3저류지는 2015년 제9호 태풍 ‘찬홈’이 지나간 뒤 상류 첫 번째 저류지의 남쪽 절개지에 쌓은 15m 높이의 석축이 폭 8~10m가량으로 무너져 내렸다. 당시에는 붕괴 사고의 원인을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한라산에 내린 1,400mm가 넘는 폭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⁶¹⁾ 그러나 2016년 여름, 제18호 태풍 ‘차바’에 의해 또 다시 제주시 병문천 제3저류지 석축 일부가 붕괴되었다. 이후 실시된 제주도감사위원회 결과

담당 (검색일: 2018.10.18.) http://www.jeju.go.kr/information/partdata.do?mode=detail¬ice_id=t_BOD_030400_129492

61) 박지호, 「폭우로 제주 병문천 제3저류지 석축 붕괴」, 『연합뉴스』 (2015.07.21.), <https://www.yna.co.kr/view/AKR20150721121000056?input=1195m> (검색일: 2018.10.16.).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병문천 제3저류지는 제주시와 범양건영의 협약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병문천 미복개 구역의 공사비 미환원금을 투입하여 2011년 5월 24일에 준공됐다. 감사 결과 뒷채움 잡석은 저류지 제방의 투수성 유지를 위해 최대 치수 100mm 이내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 공사에서는 100~500mm의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주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준공 처리를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⁶²⁾ 공사 부실로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한 병문천 제3저류지는 범양건영이 제주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하였다.⁶³⁾

2. 병문천이 주는 시사점

탐동 매립 불법 개발의 여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익 환수 차원이었음에도 도지사와 개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결정한 병문천 복개 과정은 시작 전부터 도민들 간의 분열을 유발시켰고, 시작 단계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설계 용역은 두 차례의 유찰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시행의 주체는 결국 탐동 매립의 사업 주체였던 범양건영에서 맡았다. 범양건영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계속 공사 진행을 미뤘고, 처음 약속했던 공기를 훌쩍 넘겼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하천 범람과 연안 오염 등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후 자원 부족으로 다시 일정이 늦어졌으며 준공기한을 넘기고, 마지막 구간의 공사는 마무리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범양건영은 미복개 구간에 대한 공사 거부와 장학금 지급을 거부하여 제주시와 법정 다툼을 벌였고, 2008년이 되어서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장학금을 제주시에 기탁하였다. 병문천 복개 과정은 첫 의사 결정

62) 김경필, 「부실 공사로 병문천 저류지 석축 붕괴」, 『제민일보』 (2017.01.2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664> (검색일: 2018.10.16.).

63) 김호천, 「제주시 병문천 제3저류지 공사 착공」, 『연합뉴스』 (2010.0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63779> (검색일: 2018.10.17.).

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병문천 복개 공사를 단순히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까지도 제주 사회에 수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30년 전 병문천 인근에는 쓰레기와 악취로 몸살을 앓았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었다. 다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 병문천 복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면, 그 해결 방안은 수십 가지 이상 되었을 것이다. 다양한 문제 해결이라는 포장으로 주민들의 공동자원이었던 병문천 하류 지역을 복개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하천 환경을 파괴하고, 물의 흐름을 거스르게 하여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다. 탐동 매립이라는 개발은 또 다른 개발을 불러왔으며 개발의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개발의 문제는 여전히 제주 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가져오고 있다. 장훈교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한 이익을 도시개발로 되돌리는 이런 순환은 개발이익 환수를 사실상 개발의 확대재생산을 통한 개발이익의 재분배로 귀결시켜버리면서, 제주개발체제를 강화”⁶⁴⁾했다고 말한다. 여전히 제주개발체제는 제주에서 논쟁의 중심 소재이다.

본고는 성급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병문천 복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이후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이 병문천을 위한 토건 사업에 투입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병문천 복개의 사례를 통해 현재 제주에서 논의 중인 많은 거대 개발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결정된 많은 개발 계획들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장훈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와 같은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계획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제주에서 도시발전과 공유수면 사이의 관계,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공동자원과 개발의 관계가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

64) 장훈교,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탐라문화』 제60호, 2019, 286쪽.

를 둘러싼 적대 관계가 제주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중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고 하였다.⁶⁵⁾ 제주도민들은 탐동과 병문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강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목도하였으며, 강정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제2공항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대형 개발은 여전히 지역에서 삶을 살아내는 제주도민들은 멀리 밀어둔 채, 일부 권력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제주도민들과 환경수도 제주의 대자연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본과 힘의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30년 전의 병문천 복개 과정을 다시 복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V. 나가는 글

본고는 병문천 복개 이후 30년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지역 사회와 주민,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탐동의 공유수면을 파괴한 불법 매립에 대한 이익 환수가 또 다른 공유수면인 병문천 복개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의 삶에 위해를 가한 무리한 개발이었다. 병문천 등의 도심 하천 복개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바꿨으며,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수많은 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야기했다. 병문천의 복개는 제주시 구도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제주 구도심 위성사진⁶⁶⁾인 <그림 13>과 <그림 14>는 각각 1969년과 2013년에 촬영된 것이다. 1969년 사진에서는 제주 북쪽 바다에서 도심으로 가로지르는 하천의 줄기가 지도를 가로지르며 사진 하단까지 선명하게 나타난다. 북쪽 해안인 동한두기에서 제주중앙초등

65) 장훈교,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제주사회의 변동과 공동자원』, 진인진, 2019년 6월 출간 예정.

66)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검색일: 2018.10.11.)

학교까지 이르는 본연의 병문천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3년 위성사진에서는 복개 도로와 2009년 이후 병문천·한천 푸른 숲으로 조성된 제주중앙초등학교 인근 도로 주위의 나무들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탐동 개발 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병문천 복개가 결정된 후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다면 당시의 병문천 복개를 통해 누가 이익을 보았으며, 또 누가 피해를 보았는가? 지속적인 공사비의 투입으로 건설 업체들은 이익을 보았는지, 도로와 주차장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입었는지, 지가는 상승하였는지, 병문천 복개 이후 민원은 사라졌는지 등 많은 의문을 품게 된다. 병문천 복개를 통해 지역에 도로와



〈그림 13〉 제주시 병문천 복개 전
위성사진(1969년)_출처: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그림 14〉 제주시 병문천 복개 후
위성사진(2013년)_출처: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주차장이 생겼음에도 지역민들은 여전히 도로의 협소함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주차난으로 갈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문천 복개 일부 구간의 보수 공사와 복원 공사로 인한 주차 문제와 통행권 문제, 쓰레기 문제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신문기사와 제주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병문천 복개 지구와 관련된 지속적인 토건 사업이 진행되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풍 나리 이후 도심 하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조성된 저류지는 도심 복개 지역의 재해 예방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든 채 제주 중산간의 넓은 토지를 잠식하고 있다. 여전히 복개구간에 대한 보수공사와 복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재해예방사업으로 진행된 저류지 건설도 부실 공사의 여파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건 국가 대한민국의 부속 섬인 제주도는 여전히 개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환경수도를 표방하지만 오히려 환경을 지키고 화산섬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일보다는, 거대 개발업체를 불러들여 제주의 자연을 속속들이 파괴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진행되는 수많은 거대 개발들을 감내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이다. 개발의 주체들은 개발 이익을 챙긴 채 제주를 떠날 것이다. 결국 그들이 만들어 낸 문제로 시름해야 하는 것은 남은 이들의 몫이다. 이것이 탐동 매립 반대 운동 30주년을 맞아 우리가 병문천의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병문천의 사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은 비단 30여 년 전의 과거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살피는 데 있어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혁·박원배, 「태풍 나리에 의한 제주 지역의 수해 피해원인 및 대책」, 『제주발전연구』 통권11호(2007년 12월), 143-163쪽.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제주도시계획 일부 변경(병문천 복개)-1969.4.1.」, 『제주병문천복개』, 국가기록원.
- 고광민, 『제주도 포구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수원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태풍백서』, 2011.
- 변창구, 「산지천 복원에 따른 파급효과」, 『도시문제』 40권 44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35-41쪽.
- 안중기·강시영 외, 『한라산의 하천: 한라산총서 8』,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 양성기, 「태풍 나리에 의한 제주도의 피해현황과 방지대책」, 『방재연구』 제9권 제4호 통권 36호(2007년 12월), 51-71쪽.
- 용담동지편찬위원회, 『龍潭洞誌』, 제주: 용담동지편찬위원회, 2001.
- 우효섭, 「국내의 하천복개 실태」, 『한국수자원학회지』 29(1), 1996, 9-12쪽.
- 이원진·김찬흠 외 역주,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임문철, 『제주 탐동 매립 반대운동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녹취록,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2018.10.31.
- 장훈교,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탐라문화』 제60호, 2019, 265-303쪽.
- ,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제주사회의 변동과 공동자원』, 진인진, 2019년 6월 출간 예정.
-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집 I (1987.10~1997.09): 제주의 소리 영인본(제1호-제34호)』, 제주: 사단법인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2014.
-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집 II (1978~1992): 제주

도 개발과 주민 운동』, 제주: 사단법인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2016.

제주시의회, 「산지천복개시설물처리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997.

조성운, 「개발과 지역 주민 운동: 제주시 탐동 개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Vol.16 No.3, 1992, 81-107쪽.

〈인터뷰〉

제주시 용담1동 이 모 씨 인터뷰, 2018년 8월 13일, 용담1동 노인회관.

제주시 삼도1동 고 모 씨 인터뷰, 2018년 8월 16일, 삼도1동 자택.

〈인터넷 사이트〉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태풍 나리 이동 경로 검색,

http://www.weather.go.kr/weather/typhoon/typhoon_06_01.jsp(검색일: 2019.06.05.).

법제처 홈페이지, 공유수면매립법 (검색일: 2019.06.07.).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625&efYd=19861231#0000>

제주시 사진 DB 홈페이지, <http://photo.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join/evaluation/part9/09.htm> (검색일: 2018.07.30.).

제주특별자치도 도정뉴스, 「병문천·한천 푸른숲 조성한다」, 2007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news/news/news.htm?act=view&seq=734521>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검색일: 2018.10.11.)

〈보도자료 & 신문기사〉

강재병, 「제주 도심 하천 복개구간 재해 ‘무방비」, 『제주신보』 (2016.10.07.).

강정효, 「범양건설, 제주시 병문천 복개 거부 의사」, 『뉴시스』 (2004.09.15.).

김경필, 「부실 공사로 병문천 저류지 석축 붕괴」, 『제민일보』 (2017.01.25.).

김대휘, 「물폭탄 맞은 제주, 원인은 태풍만이 아니었다」, 『노컷뉴스』

(2007.09.18.).

김봉현, 「제주시-범양, 탐동매립 20년 ‘매듭’ 이제 풀리나?」, 『제주의 소리』 (2009.09.25.).

김재하, 「제주시 하천 복개가 더 큰 피해 불러」, 『뉴시스』 (2007.09.17.).

——, 「제주경실련, 태풍피해 하천복개가 부른 ‘인재’주장」, 『뉴시스』 (2007.09.18.).

김종배, 「제주도, “하천복개가 태풍피해 키웠다” 잠정결론」, 『뉴시스』 (2007.10.01.).

김호천, 「제주시 병문천 제3저류지 공사 착공」, 『연합뉴스』 (2010.01.08.).

문준영, 「한천·병문천·산지천, 제주시 도심복개하천, 자연으로 돌아가 나?」, 『제주의 소리』 (2017.07.05.).

박지호, 「폭우로 제주 병문천 제3저류지 석축 붕괴」, 『연합뉴스』 (2015.07.21.).

변상희, 「[기획①-제주의 어제, 그리고 오늘]1990년, 도민이 바랐던 ‘원칙’ 2017년의 ‘원칙’은 어디에? 탐동불법매립 개발이익 환수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제주투데이』 (2017.01.25.).

손정경, 「병문천 복개구조물 정비 ‘위험천만’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신호수 배치 ‘무용지물’. 우회 보행통로 만든지 1년… 도로 보행여전」, 『한라일보』 (2018.09.20.).

연합뉴스, 「범양건영, 개발이익 환원협약 미뤄」, 『연합뉴스』(1990.05.09.).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비 10%만 이행보증」, 『연합뉴스』(1990.05.29.).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 용역의뢰」, 『연합뉴스』(1991.07.26.).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 용역 잇따라 유찰」, 『연합뉴스』(1991.08.14.).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문제 타결」, 『연합뉴스』(1992.12.02.).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 드디어 착공」, 『연합뉴스』 (1993.06.30.).

연합뉴스, 「사전준비 부족, 병문천 복개공사 차질」, 『연합뉴스』(1993.08.05.).

연합뉴스, 「병문천 복개공사 완공 늦어질 듯」, 『연합뉴스』(1993.10.26.).

연합뉴스, 「제주시 병문천 복개공사 차질」, 『연합뉴스』(1995.06.24.).

연합뉴스, 「제주시, 병문천 복개사업 연내 마무리」, 『연합뉴스』(1999.01.19.).

좌동철, 「병문천 반복개로 하천 살린다」, 『제주신보』 (2016.07.13.).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병문천 복개공사 합의, 도민반발 극심: 탑대 위, 11월 8일 ‘합의무효화선언 범도민 대화’ 개최」, 『제주의 소리』 통권21호 1989년 11월호(1989.11.10.).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탑동문제, 난항 불구 매듭 풀리려나: 관계당국·업자측 분열책동과 발뺌 여전」, 『제주의 소리』통권22호 1990년 신년호(1990.01.20.).

제주일보, 「병문천 등 제주시내 주요하천, 폭우 내릴 때마다 범람 위험」, 『제주일보』(2007.09.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도자료, 2008년 10월 2일,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도자료, 2010년 12월 10일,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조문옥, 「한천복개구조물 하천으로 복원」, 『제주일보사』(2008.05.03.).

허성찬, 「‘위험’ 병문천 하류 복개지, 20년만에 정비」, 『제주도민일보』(2016.07.09.).

홍창빈, 「대규모 탑동매립 신행만 반발… “그게 제주 미래 아니다”」, 『헤드라인제주』(2016.12.30.).

ABSTRACT

30 Years Since the Movement Against Reclamation in Tap-dong Seen Through the Process of Covering Byeongmuncheon

Lee, Jae-Sub^{*}

This paper traces the 30-year history of the covering over of Byeongmuncheon (Byeongmun Stream). The decision to undertake this project was taken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by residents demanding reparations for the illegal reclamation work carried out in Tap-dong. Covering Byeongmuncheon was the outcome of a campaign by residents that called for reparations to counter the illegal gains obtained from the reclamation in Tap-dong, and it was, at the same time, another form of reclamation and development. Residents' call for some kind of restitution after the illegal reclamation that destroyed public waters in Tap-dong was met by covering Byeongmuncheon, another body of public water. This was agreed by developers, the mayor of Jeju-si, and the governor of Jeju Province behind closed doors, and several problems were exposed in the process of covering the stream such as selecting contractors. The construction process also caused local residents inconvenience. After covering the stream, natural disasters occurred more frequently and residents suffered damage as a result of them. To prevent natural disasters, a retention basin was created, but the poorly constructed pond has not functioned well. The covered area along the stream is currently undergoing safety inspections.

^{*} Ph.D. candidate in Korean Studie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Some options for the downstream area of Byeongmuncheon are under consideration such as half-covering or restoring the stream after safety inspections are conducted, and public funds have been continuously injected into the projec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Jeju are still decided behind closed doors, and money and power outweigh the voice of residents and environmental values. In this regard, reviewing the case of Byeongmuncheon involves not just looking back on an event that occurred 30 years ago, but can serve as a basis for discussing pending issues in our society.

Key-words: Byeongmuncheon(Byeongmun Stream), the Movement Against Reclamation in Tap-dong, the covering over of Byeongmuncheon,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 a retention basin

논문투고일: 2019.04.26.

심사완료일: 2019.05.29.

게재확정일: 2019.06.04.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의 조건인 새로운 ‘헤게모니’

- 제주4·3평화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이 정 원*

- I. 머리말
- II.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과 ‘반공’-‘정치 중립’이라는 낡은 교육이념
- III. ‘제주4·3평화인권교육’의 전개와 성과, 한계
- IV. 낡은 헤게모니와 투쟁 및 새로운 헤게모니를 위한 과제
- V. 맺음말

국문초록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 형성된 낡은 헤게모니를 극복해야 한다. 해방 후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과 ‘반공주의’에 입각한 헤게모니가 교사들의 교육 속에서도 작동하였다. 헤게모니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제주 4·3에 대한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헤게모니와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낡은 헤게모니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헤게모니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 금기를 넘는 논란과 충돌이 일어나야 새로운 헤게모니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주제어 : 민주시민교육, 헤게모니, 제주4·3교육, 정치적 중립성, 반공주의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yunia1979@gmail.com

I. 머리말

1. 문제 제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지’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 제주에서는 시민 사회와 학교 현장의 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없던 ‘제주4·3교육’이 2014년 전교조 출신 진보·민주 성향의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제주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권력의 의지만으로 모든 주체의 민주시민 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기란 한계가 있다. 일례로 2018년 5월부터 제주에서는 ‘예멘 난민’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동안 이론과 교양 수준에서 다문화를 인식했던 제주 사람들은 자신 삶의 영역에 들어온 난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해했다. 그러는 사이 한국 사회에는 난민을 둘러싼 혐오 감정들이 빠르게 전파되었다. 서영표의 분석처럼, “지구화와 세계 시민의 현란한 구호들이 등장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 더 나쁘게는 인종주의에 토대를 두고 타자와 공존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¹⁾

그 당황함은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내 삶과 이웃,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난민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위하여 교실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난민 문제’에 대한 정치·문화·사회·세계 체제적 의미와 삶의 실천 양식들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물론 권력의 의지는 있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2018년 7월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상에서 의견이 부딪히고 불안 심리도 있는데 이의 관리를 위해 사실 그대로를 알도록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와 4·3, 한국전쟁 등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느냐는 내용도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률과 국제법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1) 서영표, 「갑작스러운 타자의 출현 :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진보평론』 77, 2018, 107쪽.

예멘 내전에 대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알도록 해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 그러나 권력의 의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교사들에 대한 국가의 호명(呼名),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현실에서 이는 국가가 교사들에게 내린 강령, ‘정치적 중립 의무’로 작용한다. 해방 후 지금까지 국가는 교사들이 지배 질서를 벗어나는 발언과 행동을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처벌하였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국가는 교사들을 대량 해직하였고, 최근까지도 국가를 상대로 한 시국 발언 등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가 교사들을 통제하고, 국가의 통치 이념에 복무하게 하는 ‘헤게모니(hegemony)’가 되었다.

이에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데 주저한다. 정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안이 시민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면 마찬가지로 교육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헤게모니 투쟁 끝에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의가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논란 또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비로소 교사들은 그 사안을 갖고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 그 대표 사례가 ‘제주 4·3평화인권교육’이다. 4·3평화인권교육이 본격 시작된 2014년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첫 해이기도 하지만,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4·3희생자 위령제를 ‘국가기념일’로 격상, ‘국가 추념식’을 치른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국가가 허락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외에 다양한 관점의 4·3을 교육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또 다른 헤게모니인 ‘반공주의’가 교사의 삶과 교육 과정에 강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반공주의’는 한국 민주시민 교육을 규정하는 이념으로 자리하였다. 물론 이제는 직접적으로 반공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2) 허호준, “제주교육감 ‘난민 문제, 4·3 등 역사 속 우리 모습 교육 필요’”, 《한겨레》 2018년 7월 19일자.

않지만, 다른 이름과 내용, 목표의 교육 과정으로 포장, 은폐되어 교육되고 있다.

이들 헤게모니는 탈근대·탈이념 시대와 배치되어 아이들의 삶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 교육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아이들은 ‘시티즌십(citizenship)’³⁾을 기반으로 예멘 난민과 같은 다문화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발적인 비판 학습을 통해 시티즌십의 핵심 가치인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있다. ‘스쿨 미투(School Metoo)’ 등의 인권 의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하며 사회적 공론장을 만들고 있다. 아이들은 탈근대·탈이념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반면, 교사들은 여전히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Ideology)에 묶여 민주시민 교육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 인식·삶과 괴리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 괴리는 소위 ‘교권 추락’의 문제를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원적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헤게모니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곧 교육계의 헤게모니를 교체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교사 내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 사회와 연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주장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 민주시민 교육에서 나타난 낡은 헤게모니를 정리한다. 제주4·3평화인권교육을 사례로 민주시민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뒤 ‘다원적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논의한다.

2. ‘헤게모니와 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옥중수고』에서 국가의 지배 영

3) 최 현, 「한국 시티즌십(citizenship)-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6,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174쪽; 최현은 “‘시민권’ 보다는 ‘시티즌십(citizenship)’의 용어가 본연의 의미를 담아내는 데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시티즌십’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시민의 소속인 국적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는 반면, 시민권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역이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하였다. 이에 '헤게모니(hegemony)'를 '국가 지배 관념이 문화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 헤게모니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조절할 수 있는 국가의 지배 계급의 능력을 의미하며, 지배 집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다."⁵⁾ 국가는 시민사회를 경제 구조에 순응시키기 위하여 지배 기구를 동원하는 데, 대표 기구가 '학교'이다. 그람시는 "모든 '헤게모니'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교육적 관계."⁶⁾라고 할 만큼 헤게모니 형성과 투쟁에 있어서 학교와 교육의 기능을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국가의 교육 목표는 물리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새로운 경제 발전 단계에 인간을 적응시키고, 경제 질서에 맞는 새로운 인간상을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교육적 압력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개개인들에게 받고, 교육의 강제가 개인들에게 '자유'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⁷⁾ 이러한 국가의 지배 관념을 헤게모니로 충실히 형성, 확산하는 주체가 지식인들이다. 대표 지식인 집단이 '교사'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교육을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인식해야 국가의 압력 역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희연은 헤게모니의 구성적 과정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배적 집단의 이해와 지향이 보편화되는 과정, 지배적 집단이 호명하는 집단성이 종속적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해가는 집단화의 과정, 이러한 보편화의 집단화를 근거짓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접합과정"이다.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는 국가의 이해와 지향이 보편적으

4) 안토니오 그람시, 『그람시의 옥중수고 1: 정치편』, 이상훈 역, 거름, 1986.

5) 필립 스미스,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이학사, 2008, 74쪽.

6) 안토니오 그람시, 『그람시의 옥중수고2: 철학·역사·문화』, 이상훈 역, 거름, 1993, 195쪽.

7) 안토니오 그람시, 앞의 책, 1986, 285-286쪽.

8) 조희연, 「헤게모니 균열의 문제설정에서 본 현대 한국 정치 변동의 재해석-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의 재해석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9,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1쪽.

로 내재해있다. 또한 ‘교사’에는 국가가 호명한 종속적 집단의 정체성이 규정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교사의 중립성’은 교사 삶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접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들의 삶과 교육과정을 지배·통제하는 강력한 ‘헤게모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과 ‘반공’-‘정치 중립’이라는 낡은 교육이념

1. 낡은 교육이념의 형성

한국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 교육’,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인권 교육’, ‘역사교육’, ‘평화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각 교육 과정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 동시에 민주시민 교육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한계도 보여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보면 범교과 학습 주제로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 금융 교육’,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⁹⁾ ‘민주시민 교육’을 대주제로 하여, 각 교육 과정을 세부 교육 과정으로 분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조합이다. 이를 보면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육 과정으로 개념화할 정부의 인식과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유럽에서는 국민에게 정치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제공하고, 정치 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하여 ‘정치 교육’을 사용하고 있다.¹⁰⁾

9)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15, 8쪽.

10) 이범웅,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초등도덕교육』 49,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5, 44쪽.

한국의 민주교육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 교육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목표와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교육 전개 과정은 시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며 고유한 전통을 축적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민주교육은 국가 통치 이념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광복 직후 한국의 교육과정은 미군정하의 '교수요목기'이다. "이 시기 미군정은 소련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및 아시아에 미국식 가치관을 심으려 했고, 민주주의 교육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미군정의 정책적 의도는 교수요목기와 1차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사회생활과'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¹¹⁾ 그리고 일제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민주주의 교육은 그 의도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다. 광복 후 도입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일제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을 잠재우고, 일제와 차별화된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통치 수단이자 이념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이루어진 교육 개혁은 한국에 친미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미군정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헤게모니는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31일 시행된 『교육법』 제5조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¹²⁾ 이때부터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들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교사들의 보편적 정체성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부터 이어진 핵심 통치 이념인 '반공주의'를 고착·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들을 효과적으로 통치·관리하는 지배적 수단이 된 것이다.¹³⁾ 또한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극심한 빈곤과 가난에 놓인

11) 강화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한국 현대사 교육의 방안」,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쪽.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법』, 1949.

13) 박해경, 「이승만 정권기 반공 이념 교육과 '우리 나라 역사' 교과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14쪽. 박해경은 "이승만 정부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은 1949년 4월 '민족의 주의 사상 통일'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군대식

당시 교사들은 국가가 보장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짜 놓은 체계모니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전쟁 이후부터 반공 교육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은 반공주의 이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1955년 발표된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의 ‘고등학교 일반 사회의 교육 목표’에는 “오늘과 같이 민주, 공산 양진영이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반공 사상을 철저히 하며,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우리 국민의 취할 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고등학교 일반 사회에서 담당할 필요 불가결한 목표라고 하여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라고 나와 있다.¹⁴⁾ 박정희 정권은 반공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국민을 국가와 일체화하는 데에 교사와 학교를 동원하였다. 그 대표 정책이 「국민교육헌장」¹⁵⁾이다. 헌장 3번째 문단은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하면서, ‘국가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석수는 “「국민교육헌장」이 국민의 정신을 개조해야 하는 목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화된 교육의 형태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 ‘국민 윤리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대학에서도 ‘국민 윤리 학과’가 설립되고 ‘국민 윤리’ 과목이 필수가 되었다.”고 하였다.¹⁶⁾

1987년 민주화 운동은 체계모니 투쟁의 기회 구조가 되었다.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가 정식으로 창립하고, 이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결성으로까지 이어졌다. 전교조 결성은 ‘정치적 중립성’에

조직 ‘학도 호군단’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좌익 교사 색출에 앞장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좌익 교사와 학생에 대한 탄압이 전국적으로 번져 모든 학교에 학생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학교는 좌익 운동에 가담한 교사와 학생의 행적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하였다.

14) 문교부, 「제1차교육과정-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1955, 30쪽.

15) 「국민교육헌장」은 김영삼 정부까지 한국 교육의 이념으로 기능하였다.

16) 김석수, 「<국민교육헌장>의 사상적 배경과 철학자들의 역할—<국민윤리교육>과 연계하여」, 『심포지엄-국민교육헌장 연구』, 역사문제연구소, 2005, 20-21쪽.

간한 교사들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교육을 강고하게 통제했던 '반공주의' 헤게모니에 대한 투쟁력을 떨어뜨리는 한계로도 나타났다. 전교조가 교육노동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성과를 거둔 반면, '교육 민주화'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엽은 "전국교사협의회를 교사노조로 전환한 것이 당시에 적합한 교육개혁의 전략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파가 교육 영역에서 구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로 나아가는 시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⁷⁾

2. 변형된 반공 헤게모니인 '신자유주의'와 투쟁의 지형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는 1997년 IMF체제 이후부터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역사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현은 "60년대 이후 시장 사회의 형성과 '시장 인간'¹⁸⁾의 육성에 핵심적인 담론은 '수출 증대'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대' 담론이었다."고 하였다.¹⁹⁾ '시장주의'에서 비롯한 '신자유주의' 담론은

17) 김종엽, 「교육에서의 87년 체제: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경제와 사회』 84, 비판사회학회, 2009, 52-54쪽. 이에 대해 김종엽은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했고,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을 주도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체제 지배 구조의 근간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교조 설립 운동에 이어지는 교육민주화 운동의 제2물결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 운동의 중심에 있던 전교조는 정부의 몇 가지 교육 개혁과 대립하면서 교육정치로부터 노동정치로 중심을 이동시켰다. 특히 교원평가제인 경우 진보적인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 사이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전체적으로 보면 민주파는 교육영역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적 구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하려는 시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조직 확장에 반비례해서 대중적 지지는 약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8) 최 현, 「시장인간의 형성-생활 세계의 식민화와 저항」, 『동향과 전망』 8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160쪽. 최현은 '시장 인간'에 대하여 "시장 사회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조건으로부터 생성된 왜곡되고 불구화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정의하였다.

19) 최 현, 앞의 논문, 2011, 162쪽.

1987년 이후 한국 교육의 새로운 헤게모니가 되는 데, 이는 김영삼 정부가 발표하여 이후 정부로 계승된 『5·31 교육개혁안』²⁰⁾이다. 김종엽은 “5·31 교육개혁안은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의 이말감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보수파의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의 개혁적 자유주의의 수용 형태”라고 평가하였다.²¹⁾ 김영삼 정부는 개혁적 자유주의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교육헌장」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한다. 이어 「국민교육헌장」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의 교육이념, 『5·31 교육개혁안』을 전면에 내세운다. 『5·31 교육개혁안』은 한국 교육이 신자유주의 체제로 공식 편입된 역사·제도적 계기로 평가된다. 구본만은 “문민정부에서 교육 정책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강조하였다. 인간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라는 비판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과거 정권의 무리한 경제 개발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요구는 이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일방적 무장해체 조치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하였다.²²⁾

김동춘은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87년 이전의 반공 자유주의는 정치적 민주화를 통제하는 수단의 역할을 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주의 논리와 결합해 국가 주도의 시장 주의, 국가의 친기업과 반노동 정책, 사학, 언론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논리로 변한 것”이다.²³⁾ 또한 그는 “미국의 반공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20)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소위 ‘5·31교육개혁안’으로 일컬어지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新)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교육체제는 지식·정보 사회와 세계화를 맞이하여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5·31교육개혁안’은 9개 분야에 걸쳐 48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1) 김종엽, 앞의 논문, 2009, 56쪽.

22) 구본만, 「정권의 변동에 따른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제5·6·7차 고등학교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2쪽.

유지 확장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령관처럼 사기업의 외화조달, 해외시장 진출 노동통제 등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이것이 북한과 상시 대결 상태에 있었던 한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능력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정당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⁴⁾

이런 주장들을 근거로 할 때, 한국의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세 가지의 공통된 조건을 공유, 확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조건은 ①이념적 분단주의 ②전체주의 ③국가 주도의 발전주의이다. 신자유주의 교육 역시 이 조건에 따라 구성, 작동된다. ‘이념적 분단주의’에서는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토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적 행위’로 규정된다.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을 ‘좌파 교육’, ‘중북 교육’ 프레임(frame)으로 왜곡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사들의 정당 활동과 일제고사 거부, 시국 선언 등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며 처벌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범외노조’로 격하하였다. ‘전체주의’ 주요 사례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개정 및 시행,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고자 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이다.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입시 체제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신자유주의적 입시 체제는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수월성 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학교·교사·학생 경쟁·서열화를 본격 추진한다. 당연히 공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루어지더라도 입시 경향에 맞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 편중되었다.

민주시민 교육 헤게모니 투쟁의 일대 전환점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였다. 참사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민들은 한국의 주입·지시 교육을 상징하는 명제, ‘가만히 있으라²⁵⁾’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였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며 아이들을 통

23) 김동춘, 「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경제와사회』 118, 비판사회학회, 2018, 267쪽.

24) 김동춘, 앞의 논문, 2018, 261-262쪽.

25) 세월호 참사 당시 일반인 승객에 비해 단원고 학생들이 더 많이 희생되었는데, 학생 대부분은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억압한 교육의 폭력적 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진보·민주 성향의 교육감들을 대거 당선시킨 참여의 동력이 되었다.²⁶⁾ 이후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전 교육감들이 지표로 삼았던 경쟁·효율·수월성·성과 등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이념 대신 배려·협력·행복·모든 아이 등의 민주 지향적인 지표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민주시민 교육의 지형도 이전과는 다른 확장성이 나타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진다. 특징으로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²⁷⁾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의 지형을 다양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주시민 교육 과정 마다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사유·실천의 범위를 제한시켰다. 이는 정부와 교육청-학교-시민사회 간 갈등으로 나타났다.²⁸⁾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월 교육부 내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였지만, 과 신설 이후 아무런 일도, 계획도 수립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었다.²⁹⁾ 시민 사회와 연대 없는 관료 중심

선내 방송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

26) 200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구·경북·울산, 대전을 제외한 13명이 당선되었다.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주시민교육조례 검색”, 2019.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등 광역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28) 박종환, “‘세월호 계기교육’ 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 ‘또 충돌’”, 《노컷뉴스》 2016년 4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 4월 25일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교육용으로 펴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세월호 교과서)’에 대해 ‘부적합하다’며 일선학교에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주장,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합리적 의심 혹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정부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를 불편해하는 정권이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반발하였다. 교육청들은 세월호 교육 여부를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

의 민주시민 교육 정책이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의 장벽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제주4·3평화인권교육'의 전개와 성과, 한계

1. 헤게모니에 따른 '4·3교육' 전개 과정 변화

제주4·3은 오랜 시간 국가가 강제한 '반공주의'의 헤게모니에 묶여 있었다. 헤게모니에 대한 시민사회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계기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다. 현혜경은 "6월 항쟁을 통해 거리 정치를 전개하며 시민적 역량을 결집한 것은 제주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치사회적 경험이었고, 이는 4·3진상규명운동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의 장을 펼치게 하였다"고 하였다.³⁰⁾ 시민 사회의 진상규명 운동을 통한 헤게모니 투쟁은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03년 국가 차원의 『제주 4·3사건 진상 보고서』 발간,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의 성과를 만들었다. 이 시기 구성된 4·3의 담론은 '화해'와 '상생'이었다. "담론 구조의 최상층부에 국가가 위치해 있고, 4·3문제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 예산 집행 등의 모든 메커니즘이 국가를 통해 재구성 되었기 때문"³¹⁾에 이 시기 이후부터 4·3은 '평화'와 '인권'으로 상징되는 '화해·상생' 담론이 4·3의 관념을 구성하는 헤게모니가 된다.

시민 사회의 활기와 달리 교육계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교육 과정에

29) 정원규,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과제와 추진 원칙」, 『2018 학교민주시민 교육 포럼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5쪽.

30) 현혜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61쪽.

31) 고성만, 「제주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0-51쪽.

반영하는 데 주저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교사들의 삶에 누적된 ‘반공주의’ 헤게모니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 이후 반세기 동안 4·3에 대한 역사 인식은 ‘공산 폭동론’이어서 국가 교육에서 일절 언급되지 못하였다. 4·3에 대한 글은 판금되거나 필화 사건을 일으켰고, 말만 꺼내도 용공으로 내몰렸다.”³²⁾ 교사 출신인 이영권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한다. “2001년 나를 비롯하여 도내 몇몇 교사들이 전교조 제주지부와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의 후원을 얻어 ‘제주 4·3 학습자료; CD를 만들어 각 학교에 보급한 적이 있다. 그때 제주도교육청이 보인 반응은 아주 적대적이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그 학습자료 CD를 절대 활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이다.”³³⁾

교사들이 4·3교육에 대해 주저하고 갈등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의 핵심 자료인 ‘교과서’ 때문이기도 하다. 뿌리 깊은 반공주의 헤게모니는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제6차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제주도4·3사건’을 ‘제주도4·3항쟁’으로 용어를 바꾸고, 진상 규명 성과를 반영하려고 하는 등 변화의 시도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보수 언론과 단체 등으로부터 북한을 선전한다는 등의 집중 이념 공세를 받았다.³⁴⁾ 이후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에서도 진상 조사 보고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일부 교과서는 진상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 무장 폭동’이라는 기존 관점을 반영하기도 하였다.³⁵⁾ 2013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합격 판정을 내린 교학사 교과서의 4·3 왜곡 논란이 일어 제주사회의 공분을 불렀다.³⁶⁾ 2016년 11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공개한

32) 현진호, 「제주4·3 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접근 방향」, 『4·3과 역사』 7, 제주4·3연구소, 2007, 158쪽. 현진호는 “교육 현장에서 4·3 교육은 일절 언급될 수 없었다. 오히려 각 급 학교에 반공 학습 자료를 전시한 반공 코너, 반공관 등을 마련하고, 『반공교육 실천 사례집』을 반간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반공 안보 교육을 강화하였다.”고 하였다.

33) 이영권, 「학교현장에서의 4·3교육, 그 현황과 과제-제주지역 중·고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4.3과 역사』 7, 제주4·3연구소, 2007, 121쪽.

34) 양유석, 「제주4·3서술의 과거와 현재」, 『4·3과 역사』 18호, 2018, 166쪽.

35) 양유석, 앞의 논문, 2018, 175-176쪽.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서 4·3 축소·왜곡 서술이 확인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4·3단체 등에서 교과서의 폐기를 촉구하였다.³⁷⁾ 또한 상호 작용하는 반공주의와 정치적 중립 해게모니는 교육계가 4·3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이 되었다. 2005년 당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4·3교육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했고, 4·3 추모행사가 치러지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모든 자료를 부정하고 있는 등 아직 민감한 부분이 많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한쪽으로 가기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³⁸⁾

4·3교육은 진보·민주 성향의 이석문 교육감이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이석문 교육감은 4·3유족 출신으로 4·3연구소와 전교조 제주지부장 활동 등을 통해 4·3교육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던 2013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석문 교육감은 2014년 7월1일 취임한 뒤 열흘이 지난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4·3교육의 명칭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공식화하여 4·3교육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매해 3

36) 김정호, “교과사 한국사 교과서 제주4·3왜곡 물의”, 《제주의소리》 2013년 9월 2일자. 교과서에는 4·3이 “4월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했다. 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했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됐다”고 기술되었다. 이에 제주도과 4·3유족회, 제주도내 정당 등은 해당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요구하였다.

37) 홍창빈, “제주4·3 역사왜곡 반발 확산…‘국정 역사교과서 폐기하라’”, 《헤드라인제주》 2016년 11월29일자. 기사는 “(교과서에)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이라는 부분은 적시되었으나, 전체적 문맥 속에서는 ‘남로당의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는 설명에서 바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도민 희생이라는 설명으로 넘어감으로써, 마치 제주4·3을 ‘좌익 폭동’에 의한 것으로 규정짓게끔 하고 있다”고 하였다.

38) 임성준, “제주 교육감 ‘학교별 두발자유화 합의되면 동의’”, 《뉴스시스》 2005년 5월12일 자.

월말부터 4월까지 약 1개월 동안 '4·3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주간 동안 학교는 1시간 이상을 4·3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4·3 동백꽃 배지 달기', '체험 중심 4·3평화인권교육 활동', '4·3추념식 참석 및 마을 연계 4·3유적지 기행', '문화예술과 접목한 4·3교육 및 4·3유관행사 연계 활동' 등도 실시한다. 2017년에는 교육청 차원의 『초·중등 4·3평화·인권교육 교재』를 발간³⁹⁾하여 초·중·고 교육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는 4·3의 전국화 차원으로 서울,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등의 관내 고등학교에도 배부하였다. 그리고 4·3유족회와 연계하여 4·3유족을 명예교사로 위촉, 4·3교육 주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4·3을 교육하는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데, 이석문 교육감은 10년 동안 전국 만 명의 교사들이 4·3평화인권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매년 천 명의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 교육청과 연대하여 '역사 테마형 수학여행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 4·3과 광주 5·18, 충북 노근리, 경남 3·15 등과 연계한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초·중등 4·3평화·인권교육 교재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다!”, 2017년 3월20일자. 초등 교재는 학생용과 교사용 지도서 2종으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4·3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교재의 내용은 △제1장 4·3을 마주하다 △제2장 세상을 움직이는 힘 △제3장 4·3, 아이들을 기억하다 △제4장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제5장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제6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제7장 모두가 바라는 것 등으로 구성되었다. 중등 교재는 1종으로 중·고등학생들이 4·3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4·3유적지 현장체험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제1장 제주4·3, 청소년에게 말을 걸다 △제2장 평화로 만나는 4·3 평화공원 △제3장 예술 작품 속의 4·3 △제4장 지역에서 만나는 4·3 등으로 구성되었다.

2. 낡은 헤게모니 작용 및 4·3교육 한계

제주4·3평화인권교육도 지배 이데올로기에 묶여 한계를 드러낸다.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려 하는 경제적 상부 구조, 정치권에서부터 4·3교육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다. 정치권은 낡은 헤게모니를 소환하기 위하여 '교육의 객관·보편성', '교육의 균형'이라는 다른 형태의 담론을 생산한다. 또한 4·3과 '반공주의'를 동일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4·3교육과 '통일·안보 교육'을 대비시키는 담론을 구성한다. 2015년 4월 16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한 도정질문에서 4·3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감이 부임하자마자 맨 처음 하신 게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좋습니다. 몇 번 회의한 회의록을 보면 4·3교육에 대해서,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그럼에도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지만 4·3희생자유족회에서 거의 20명에 가까운 명예교사를 선발해서 4·3교육을 몇 시간 연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런데 교육감은 4·3교육으로 제주 정체성을 교육하겠다고 합니다…그런데 말입니다. 교육감이 부임하자마자 T/F팀을 구성해서 800여 개의 정책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통일안보교육을 싹 뺐습니다…통일안보교육이 뭘니까?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교육입니다. 6·25를 전후한, 6월 달에 주로 이뤄지는 이 교육이 왜 빠졌는지 의심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을 빼면서 제주 정체성 교육을 4·3으로 하겠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⁴⁰⁾

4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자회의록,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김광수 의원”, 2015년 4월16일자. 도정질문에서 김광수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가 나오면서 출력을 하나 받았습니다.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4·3교육 자료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4·3의 성격’ 하나만 읽겠습니다. 법을 공부하신 분이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4·3은 해방정국 하에 통일조국 건설 운동이다.’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원 지사는 “4·3은 특정집단이나 특정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성과 균형이 있어야 되고 쟁점이 있는 시각들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제공하고 미래세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독점해서 규정할 권한은 우리 세대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2015년 당시 홍경희 제주도의회 의원도 유사한 논리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4·3유족회 명예교사제에 대해서는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조차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유족 강사단을 위촉하여 교실에서 4·3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객관화시키고 학생의 감성에 맞게 교육을 해도 어려운데 유족본이 피해당사자로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수 있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우리의 분단 현실에서 평화와 통일은 함께 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라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4·3교육은 교육감 공약 실천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해 놓은 것과 달리 통일교육은 거의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을 보면서 4·3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⁴¹⁾

이러한 헤게모니 소환 전략은 다양한 관점의 4·3평화인권교육 가능성을 교육청이 스스로 차단하는 한계로 나타난다. 제주도교육청은 4·3의 역사적 사실을 『4·3 진상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기초적인 부분만 가르치기로 한다. 대신 국가가 구성한 담론-화해와 상생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세계 평화의 섬 조성 과정 등-에 맞추어 교육 과정을 편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당시 양조훈 4·3평화·인권교육위원장은 “지난해 4·3 교재 초안이 나왔었다. 하지만 너무 4.3 역사에 치우쳤다는 등의 얘기가 있어 새롭게 집필하려 한다. 곧 새로운 4·3교재 개발 집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4·3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생긴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같이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⁴²⁾

이는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으로 진전을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헤게모니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투쟁은

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자회의록,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홍경희 의원”, 2015년 4월20일자.

42) 이동건, “4·3 평화인권교육,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제주의소리》 2016년 3월30일 자.

4·3 헤게모니의 전환과 진보·민주 성향 교육감 당선, 4·3평화인권 교육 지형 조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낡은 교육 헤게모니 투쟁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4·3교육을 대하는 교육계의 내부 모순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사회와 인식 괴리도 계속 벌어지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 4월3일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계기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내면서 논란을 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추념일 계기수업도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교수학습 과정안과 수업 자료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4·3교육 활성화를 말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4·3교육 확대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⁴³⁾

IV. 낡은 헤게모니와 투쟁 및 새로운 헤게모니를 위한 과제

1. 헤게모니 투쟁의 시도 : 혁신학교 확장

"낡은 학교에 대한 투쟁은 정당하지만, 개혁은 보기와는 달리 매우 어렵다. 문제는 모범적인 교육과정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더욱이 실제로 활동하는 교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표현하는 복잡한 사회의 총체성이다."⁴⁴⁾

헤게모니와 투쟁할 때, 혁명의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람시는

43) 이동진, "'4·3교육 때 중립 준수!' 공문에 제주 전교조 발끈", 《제주의소리》 2017년 4월 12일자. 공문은 "학교에서는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 등이 포함된 부적절한 교육활동으로 교원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계기 교육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계기 교육 등 학교 교육 활동에서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4) 안토니오 그람시, 앞의 책, 1993, 49-50쪽.

학교 교육의 투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사만으론 어렵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회적 총체성과 관계를 맺어 투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는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과도 직결된다. 그람시는 이렇게 말한다.

“아동의 의식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이 살고 있는 시민 사회 부문과 아울러 그의 가정과 이웃, 동네 등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 아동들 거의 대다수가 지닌 개별적인 의식은, 학교의 교육 과정에 나타나 있는 것과 상이하고 적대적인 사회, 문화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급문화의 ‘확실한 것’은 화석화되고 시대착오적인 문화의 틀 내에서만 ‘진리’가 되어버린다. 학교와 생활 간에는 그 어떠한 통일성도 존재하지 않는다.”⁴⁵⁾

‘민주시민 교육’은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및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총체성을 내면화하고 성찰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람시의 지적처럼 지금 학교에서는 시민사회의 변화, 아이들 성장 및 의식 수준과 괴리된 ‘시대착오적’인 교육 내용이 진리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입시 체제에 맞춰진 교육 과정은 아이들에게 무의미하고 화석화된 지식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낡은 해게모니와 투쟁하기 위하여 진보·민주 성향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데, 대표적으로 ‘혁신학교’ 확산이다.

‘혁신학교’는 그람시가 대안적 학교로 제시한 ‘보통학교’(혹은 통일학교)[*scuola unitaria*(이), *common school*(영)]⁴⁶⁾를 반영한 학교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람시는 ‘보통학교’에 대하여 “인문적 형태의 학교나 일반 교양 학교는 청소년들을 성숙함, 지적 실천적 창조력, 방향 설정과 계

45) 안토니오 그람시, 앞의 책, 1993, 48-49쪽.

46) Gramsi, Antonio. *Quadreni del Carcere*(4 Vols.). edited by Valentino Gerratana. Torino. 1975, 485쪽; Gramsi, Antonio. 1996. *Prison Notebooks*, Vol. 2 edited and translated by Joseph A. Burtigieg.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210, 571쪽; 곽태진, 「그람시 사상에 나타난 사회변혁과 교육의 관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14,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78쪽.

획의 자율성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들을 사회 활동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⁴⁷⁾ ‘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 13개 학교를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 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 혁신의 모델 학교이다.”⁴⁸⁾ 혁신 학교 모형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 운영 중인데, 성과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실패한 모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⁴⁹⁾ 이 와중에 교육부는 2019년부터 ‘민주시민학교’⁵⁰⁾를 선정,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서도 보수언론 등으로부터 비판 여론이 나오는 데,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는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입사’이다. 결국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낡은 헤게모니에 대한 투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민주시민 교육은 숙명적으로 낡은 헤게모니를 기반으로 한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⁵¹⁾

47) Gramsci, Antonio.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edited and translated by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29쪽; 박태진, 78쪽.

48)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17, 6쪽.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온 수월성 중심의 학교 다양화 정책과는 달리 학습 다양화 학습 복지 학생 인권 등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참된 학력을 추구해왔다.”고 설명한다.

49)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2018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실증자료에 기반한 혁신학교의 성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때 혁신학교를 경험한 학생의 향상 정도가 혁신학교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실증자료에 기반한 혁신학교의 성과 분석 연구 결과”, 2018년 12월19일 자.)

50) 교육부, “보도자료-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발표”, 2018년 12월12일자. 교육부가 설명한 ‘민주시민학교’의 개념은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이다. 운영기준은 ①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참여·협력형 수업 마련 ②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제도화 등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이다.

51) 《조선일보》는 학부모 인터뷰를 인용하여 ‘민주시민 학교’를 비판하였다. 기사는

2. 새로운 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조건 : 시민사회와 연대

교사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 헤게모니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내면화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강민정은 “교사들이 교육 중립성의 이름으로 투표권 외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²⁾ 한국사회가 거처온 역사적 과정과 지금 나타나는 다양한 현안·사건에 대해 양극단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을 교사들이 경험·성찰하면서 민주 역량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수용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기반이 되면 교사는 역사·정치 사안에 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들의 민주적 역량이 높아지면 학교 민주화와 자치 역량도 함께 높아진다. 이는 학생 인권과 입시 부작용 등 학교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관리자와 교사가 중심이 되어 낡은 헤게모니에 대항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교사들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내부 자원만으로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제주인 경우 4·3유족

“민주시민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데 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전교조 교사들이 편향된 수업을 할 우려는 없는 거냐’ ‘정부가 아이들 기초 체력(학력)을 길러줄 생각은 없고 혁신학교·민주시민학교를 지정한다니 이제 애들 공부할 학원에서 시키란 얘기인 것 같다.’”고 하였다(박세미·주희연, “혁신학교 강행하더니...이번엔 ‘민주시민학교’ 만든다”, 《조선일보》 2018년 12월14일 자).

- 52) 강민정은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주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집단적 의사표현, 정당활동, 선거운동과 출마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실은 교사들에게 무의식적 자기검열을 내면화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는 정치로 수렴되며 정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이다.”라고 하였다.(강민정, 『학교민주시민교육과 교육청의 역할』, 『2018학교민주시민 교육포럼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99쪽.

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아이들과 만나게 하거나, 시민 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준용한 '한국형 민주 시민 교육 원칙'을 수립하자는 제안도 있다.⁵³⁾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① 주입 금지 ② 논쟁성 재현 ③ 이해관계 인지 및 학생 중심 원칙이다. '주입 금지'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원칙이다. '논쟁성 재현'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 인지 및 학생 중심 원칙'은 학생들이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분석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정치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⁴⁾ 그러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한국에 적합한 대안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 탈이념·탈근대가 가속화되고 심지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초인류'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에도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유효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또한 강압이나 교화를 피하기 위해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 논쟁성이 중립성으로 이해되어 학생을 탈정치화시키거나 정치적 냉소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⁵⁵⁾ 더 나아가 이택광

53) 강민정, 앞의 논문, 2018, 101쪽, 강민정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미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 교육 원칙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사회적 현안이나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금기시하는 우리의 교육 풍토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현안 교육의 강조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을 수단화하는 국정교과서 사태 등을 겪은 우리로서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금지하는 것도 민주시민교육 원칙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54) Paul Kerstin, 「Beutelsbach Consensus and the Meaning of Civic Education」, 『2018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1976년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emberg) 주정치교육원 원장이었던 지그프리트 실레(Siegfried Schiele)는 도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er)에서 좌우 진영의 석학을 모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토론 결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이루어졌다.

55) 이동기, 「보이텔스바흐로 가는 길: 최소합의로 갈등 극복하기」, 『보이텔스바흐

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금기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이야기되는 교육의 중립성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 규범으로 보서는 안 된다…사안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다른 것이지, 규범을 정해 놓고 이런 이야길 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건 토론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한다.⁵⁶⁾ 이택광은 시민사회와 연대 속에 ‘중립’을 넘어 ‘분란’과 ‘충돌’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새로운 교육 이념으로 향하는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의 독일이라면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안 만들어질 것 같다. 당시에는 전후라서 좌파의 힘이 강했고, 어떻게 안 하면 교육이 파탄 날 것 같으니까 만든 것이다. 한국 교육이 이걸 만들지 않으면 파탄이 날 정도로 갈등이 심한가? 오히려 문제는 너무나 조용한 거 아닌가.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다. 지금의 한국 현실은 너무나 중립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역설적으로 분란을 일으켜야 할 때다. 문제는 뭘로 분란을 일으켜야 할지가 답이 없다. 운동화해야 한다. 협약이든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운동이 있어야 한다. 운동이 있으려면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념이 있어야 한다. 그게 문제다. 교육 이념이 없다는 것.”⁵⁷⁾

결국 국가와 충돌하며 낡은 해계모니와 성공적으로 투쟁했던 경험을 이후 투쟁의 역량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새로운 해계모니를 만들어야 한다. 2015년 박근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2018, 70-71쪽; 설규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5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8, 156-157쪽. 비판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적 해석이 제시되었다. 교사의 생각을 밝히거나 그것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기계적 중립성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상황 속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56) 공현, “<오늘의 교육> 따로 읽고 함께 이야기하기 첫 번째-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다시 묻다”, 《교육공동체 벗》 2016년 6월22일 자.

57) 공현, 위의 글, 2016년 6월22일 자.

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연대에 의한 강력한 저항·투쟁으로 인하여 국가 주도의 반공주의적 역사 교육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연대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행 교과서 발행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공론장을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역사 교과서를 포함한 초·중·고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편찬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합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헤게모니가 되었다. <교육부>는 2018년 12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서 교육부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 수업의 자율성·전문성·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 자유발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⁵⁸⁾

V. 맺음말

한국 민주시민 교육은 여전히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과 연관된 개별 교육 과정들이 나열된 채로 공존하고 있다.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을 가로막는 낡은 헤게모니는 '정치적 중립성'과 '반공주의'이다. '정치적 중립성'은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 교사들의 삶과 인식을 지배·통제하는 국가의 강령이다. 정치적 중립성에 묶인 교사들은 '반공주의' 헤게모니를 생산·확장하는 데 복무하여야 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 이후 국민과 국가를 일체화하는 통치 이념이 강화되면서, 교사는 반공주의를 일상 전반에 뿌리내리는 대표적 지식 집단으로 기능하였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헤게모니와 투쟁할 수 있는 정치 기회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변형된 반공주의, '신자유주의'가 교육 과정과 결합하면서 낡은 헤게모니는

58) 교육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 2018, 6쪽.

더욱 강고하게 구축된다.

낡은 헤게모니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헤게모니와 투쟁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형이 조성된다. 전국적으로 진보·민주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구체적인 교육 정책과 결별하려는 시도들이 잇따라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 투쟁들이 헤게모니와 완전한 결별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기미가 없었던 ‘4·3평화인권교육’이 2014년부터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나타났다. 낡은 헤게모니가 작동하면서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의 가능성이 차단된다. 4·3을 대하는 교육계의 내부 모순, 시민사회와 인식 괴리도 나타났다.

헤게모니와 투쟁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민주 가치의 확장이다. 그람시의 ‘보통학교’를 반영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학습 복지와 학생 인권 등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민주 시민 학교’의 도입도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역설적으로 헤게모니의 강고한 영향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근본적인 질문은 다시 낡은 헤게모니로 향한다. 헤게모니와 투쟁해야 그람시가 말한 혁명적 감흥과 의식이 일어난다. 전제는 ‘시민사회와 연대’이다. 다원적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다원적 민주 역량이 내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경험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계는 ‘정치적 중립성’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내부 자원만으로는 다원성을 내재하기가 어렵다. 이에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하여 다원적 민주 역량을 쌓기 위한 교육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맞는 민주시민 교육 대타협 모형을 만들 필요도 있다. 그 준거 사례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금기를 넘는 논란과 충돌이 일어나야 새로운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결국 국가와 충돌하며 낡은 헤게모니와 성공적으로 투쟁했던 경험을

이후 투쟁의 역량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연대를 통하여 막아낸 바 있다. 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공론장을 확대하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에서 '자유 발행제'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합의점도 도출하였다. 이 합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헤게모니가 되었다. 연대를 통한 지배 이데올로기와 투쟁, 새로운 헤게모니 형성은 비단 민주시민 교육의 진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낡은 헤게모니는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 전체에 영향을 미친 구체제적 산물이다. 촛불 혁명 이후에도 교육의 진보,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권위의 장벽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투쟁을 통한 헤게모니의 전환은 숙명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민정, 「학교민주시민교육과 교육청의 역할」, 『2018학교민주시민 교육 포럼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 강화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한국 현대사 교육의 방안」,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17.
- 고성만, 「제주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공 현, “<오늘의 교육> 따로 읽고 함께 이야기하기 첫 번째-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다시 묻다”, 《교육공동체 벗》 2016년 6월22일 자.
- 곽태진, 「그람시 사상에 나타난 사회변혁과 교육의 관계」, 『마르스크주의 연구』 14,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15.
- _____, “보도자료-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발표”, 2018년 12월12일 자.
- _____,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 2018.
- 구본만, 「정권의 변동에 따른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제5·6·7차 고등학교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법』, 1949.
- _____, “검색어-민주시민교육조례”, 2019.
- 김동춘, 「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경제와사회』 118, 비판사회학회, 2018.
- 김석수, 「<국민교육헌장>의 사상적 배경과 철학자들의 역할-<국민윤리교육>과 연계하여」, 『심포지엄-국민교육헌장 연구』, 역사문제연구소, 2005.

- 김정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제주4·3왜곡 물의”, 《제주의소리》 2013년 9월2일 자.
- 김종엽, 「교육에서의 87년 체제: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경제와사회』 84, 비판사회학회, 2009.
- 문교부, 「제1차교육과정-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1955.
- 박세미·주희연, “혁신학교 강행하더니...이번엔 '민주시민학교' 만든다”, 《조선일보》 2018년 12월14일 자.
- 박종환, “세월호 계기교육’ 두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 충돌”’, 《노컷뉴스》 2016년 4월2일 자.
- 박해경, 「이승만 정권기 반공 이념 교육과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서영표, 「갑작스러운 타자의 출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진보평론』 77, 2018.
- 설규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5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8.
- 안토니오 그람시, 『그람시의 옥중수고 1: 정치편』, 이상훈 역, 거름, 1986.
- _____, 『그람시의 옥중수고 2: 철학·역사·문화』, 이상훈 역, 거름, 1993.
- 양유석, 「제주4·3서술의 과거와 현재」, 『4·3과 역사』 18호, 2018.
- 이동건, “4·3 평화인권교육,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제주의소리》 2016년 3월30일자.
- _____, “‘4·3교육 때 중립 준수’ 공문에 제주 전교조 발끈”, 《제주의소리》 2017년 4월12일 자.
- 이동기, 「보이텔스바흐로 가는 길: 최소합의로 갈등 극복하기」,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2018.
- 이범웅,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초등도덕교육』 49,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5.
- 이영권, 「학교현장에서의 4·3교육, 그 현황과 과제-제주지역 중·고등

-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4·3과 역사』 7, 제주4·3연구소, 2007.
- 임성준, “제주 교육감 ‘학교별 두발자유화 합의되면 동의’”, 《뉴시스》 2005년 5월12일 자.
- 정원규,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과제와 추진 원칙」, 『2018 학교민주시민 교육 포럼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초·중등 4·3평화·인권교육 교재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다!”, 2017년 3월20일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자회의록,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김광수 의원”, 2015년 4월16일 자.
- _____,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홍경희 의원”, 2015년 4월20일 자.
- 조희연, 「‘헤게모니 균열’의 문제설정에서 본 현대 한국 정치 변동의 재해석-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의 재해석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9,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 최 현, 「한국 시티즌십(citizenship)-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6,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 _____, 「시장인간의 형성·생활 세계의 식민화와 저항」, 『동향과 전망』 8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 필립 스미스, 『문화이론 : 사회학적 접근』,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이학사, 200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실증자료에 기반한 혁신학교의 성과 분석 연구 결과”, 2018년.
- 허호준, “제주교육감 ‘난민 문제, 4·3 등 역사 속 우리 모습 교육 필요’”, 《한겨레》 2018년 7월19일 자.
- 현진호, 「제주4·3 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접근 방향」, 『4·3과 역사』 7, 제주4·3연구소, 2007.

- 현혜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홍창빈, “제주4·3 역사왜곡 반발 확산…‘국정 역사교과서 폐기하라’”, 《헤드라인제주》2016년 11월29일 자.
- Paul Kerstin, “Beutelsbach Consensus and the Meaning of Civic Education”, 『2018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 Gramsci, Antonio.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edited and translated by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 _____. *Quaderni del Carcere*(4 Vols.). edited by Valentino Gerratana. Torino. 1975, 485쪽
- _____. *Prison Notebooks*, Vol. 2 edited and translated by Joseph A. Buttigieg.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ABSTRACT

‘New Hegemony’ as the basis of pluralistic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Lee, Jeong-Won^{*}

For pluralistic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e must overcome the dominant Ideology. After liberati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anti-communist’ hegemony have dominated and controlled teachers. And the ruling hegemony influenced education on Jeju 4·3, which was designated as ‘The National Memorial Day’. With the *Seuolho* disaster, the basis was created to fight the ruling hegemony. But the influence of the ruling hegemony is still great. To change the hegemony, it must be in solidarity with civil society. Controversy and conflict over taboos can create new hegemony possibilities.

Key-word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egemony, Jeju 4·3 educati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ti-communist

논문투고일: 2019.04.29.

심사완료일: 2019.05.17.

게재확정일: 2019.05.17.

^{*} 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ialOfficeofEducation. yunia1979@gmail.com

회 보

(2018. 03. 01 ~ 2019. 06. 30)

▣ 탐라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

번호	직책	이름	소속학과	위촉기간
1	원장 (해양문화연구센터장 겸직)	전영준	인문대학 사학과	2017.03.01~2019.08.31 (2018.02.01~2020.01.31)
2	부원장	김은희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2019.03.13~2021.03.12
3	편집위원장 (운영위원)	서영표	인문대학 사회학과	2017.03.10.~2019.08.31 (2018.11.23~2020.11.20)
4	운영위원 (제주문화콘텐츠 연구센터장)	강문중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9.03.28~ 2021.03.27
5	운영위원 (제주어연구센터장)	신우봉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9.03.28~ 2021.03.27
6	운영위원	이영돈	해양과학연구소	2018.04.25~2020.04.24
7	운영위원 (제주 4·3연구센터장)	양정필	인문대학 사학과	2018.03.19~2020.03.18
8	운영위원	이창익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2018.03.01~2020.02.29
9	운영위원 (동아시아문화교류 연구센터장 예정)	조성식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2018.03.01~2020.02.29
10	운영위원	방호진	경상대학 경영학과	2018.03.01~2020.02.29
11	운영위원	장창은	인문대학 사학과	2018.03.01~2020.02.29
12	운영위원	김치완	인문대학 철학과	2019.05.17~2021.05.16
13	운영위원 (제주 사회문화조사연구 센터장)	고성만	인문대학 사회학과	2019.05.02~2021.05.01
14	운영위원	이동철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2019.05.01~2021.04.30

학술행사

■제국주의 일본의 군사 침략과 제주도

- 일 시 : 2019년 4월 22일(월)
- 장 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진양현석관
- 주 최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 주 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주요 프로그램

일 시	2019년 4월 22일(월)	
장 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13:30~14:00	등록	
개회 및 주제발표	사회 : 전영준교수(탐라문화연구원장)	
제1주제 (14:10~14:40)	•러일전쟁 직전 일본군의 조선 남해안 연안 조사와 해안 측량 ; 김윤미(부경대 HK연구단 연구교수)	
제2주제 (14:40~15:10)	•일제 말기 일본군의 제주지역 항공작전과 비행장 건설 ; 조 건(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제3주제 (15:10~15:40)	•태평양전쟁기 일본 해군의 제주인 군속 동원 ; 심재욱(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학술연구교수)	
15:40~15:50	Break Time	
종합토론 및 질의	사회 : 정태현교수(연구책임자)	
15:50~16:50	- 황선익(국민대 교수) -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양정필(제주대 교수) - 김영숙(고려대 연구교수)	& 청중
17:00	폐회 및 만찬	

발간물

■탐라문화 학술총서 제22호

『고대동아시아와 탐라』

(채미하, 김정주, 장창은, 박남수, 이유진, 최희준 공저, 2019.03.29)

■『탐라문화』 61호(2019. 06. 3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정 1983. 2. 23. 규칙 제 53호
제정 1997. 11. 17. 규칙 제 383호
제정 1999. 6. 29. 규칙 제 435호
제정 2001. 8. 31. 규칙 제 495호
제정 2004. 3. 1. 규칙 제 597호
제정 2006. 8. 1. 규칙 제 692호
제정 2011. 7. 14. 규칙 제 958호
제정 2012. 11. 9. 규칙 제1043호
제정 2013. 10. 4. 규칙 제1131호
제정 2014. 8. 8. 규칙 제12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 제 3항에 규정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하 “탐라문화연구원”이라 한다)은 제주학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탐라문화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조사, 발굴, 연구 및 보존
2.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
3.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개최
4.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교류
5.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자료실 설치와 운영
7.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위원 해외파견
8. 외부기관의 위탁연구 및 용역사업

9. 그 밖에 탐라문화연구원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항

제4조(원장과 부원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탐라문화연구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탐라문화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연구센터)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제주어연구센터, 제주4·3연구센터, 제주사회문화조사연구센터, 동아시아 신화·민속연구센터, 동아시아 문화교류연구센터, 제주문화콘텐츠연구센터, 해양문화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센터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관계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센터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인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연구위원, 전임연구위원, 특별연구위원, 보조연구위원 등의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 등의 명칭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7조(조교 및 직원) 탐라문화연구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분과) 탐라문화연구원의 연구 활동 분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연구위원들이 각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1. 언어·문학분과: 제주어, 제주문학, 한국어, 한국문학, 외국어, 외국문학 등
2. 민속·예능분과: 민속, 종교, 의료, 음악, 미술, 체육 등
3. 역사·고고분과: 역사, 고고, 문화재 등

4. 철학·교육분과: 사상, 철학, 윤리, 심리, 교육 등
5. 사회·문화분과: 지리, 사회, 인류, 평화, 여성, 보건, 의료 등
6. 사업·경제분과: 농업, 수산, 경제, 경영, 관광, 무역 등
7. 자연·환경분과: 지질, 동물, 식물, 생태, 환경, 해양 등

제9조(운영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원장, 부원장, 각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편집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와 일반회계, 국내의 기관의 지원자금, 기부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조(시행세칙) 탐라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1993. 2. 23. 규칙 제5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11. 27. 규칙 제3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29. 규칙 제4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31. 규칙 제4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 3. 1. 규칙 제59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 규칙 제692호)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기타 하부조직 설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제주대학교 기타 하부조직 설치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각 부처장 및 부학(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부처장 및 부학(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7. 14. 규칙 제9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9. 규칙 제10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4. 규칙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위촉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 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8. 8. 규칙 제12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는 바,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1조(연구자의 의무와 대상)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란 연구원 규정 제6조(연구위원 등)에 해당하는 자, 학술지 <탐라문화>에 투고하는 자와 심사자, 그리고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조(위원회의 설치) 연구원 연구윤리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4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 관련 분야 인사 중,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연구원 관련 연구자의 학술연구윤리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 3인 이상, 또는 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전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원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전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㉔(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9㉔(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벌할 수 없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연구자로서의 자격 정지
- 5) 주의 조치
- 6) 기타

10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11조(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원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4) 연구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규정 제16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규정 3조 5항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탐라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 횟수)

『탐라문화』는 매년 3회 발행하며 간기는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3조(게재 원고의 내용과 종류)

1. 제주도의 문화 및 동아시아, 한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의 종류에는 1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 자료소개 등으로 한다.
3. 『탐라문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 투고)

1.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간기 별 원고 마감은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2. 논문 게재를 원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규정)

1.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 후,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

재 여부를 확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고한 논문에 대해 심사를 의뢰한다. 단 우리 연구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논문과 특집 및 기획 논문에 대해서는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게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 연구노트, 서평, 자료 소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의 개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 주제의 독창성
 - ② 연구 주제의 명확성과 방법의 적정성
 - ③ 참고문헌 및 인용의 적절성
 - ④ 학술적 가치와 완성도
 - ⑤ 학술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5.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을 결정한다.
6.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8. 1차 판정 결과 제7조의 ⑤-⑦에 해당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결정에 해당하는 논문은 각기 전항에 의거해,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6조(접수 및 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접수 및 논문게재의 가부를 통고한다.
2.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1차 판정	2차 판정	비고
①	게재	게재	게재	게재	—	—
②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③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④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⑤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심사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 검토 후 결정
⑥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또는		
⑦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결정		
⑧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⑨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⑩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제8조(이의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 신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9조(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에서 제외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1. 투고자격과 방법

- 1) 투고를 희망하는 논문은 탐라문화연구원의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s://tamla.jams.or.kr>)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우리 연구원 상임연구위원 및 특별연구위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 3) 논문의 주제는 제주도 문화 및 동아시아, 한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 4) 논문 투고 시에는 “원고 매수”를 명기하도록 한다. 본문의 원고량을 200자 원고지 매수로 환산한 후 본문 및 각주의 분량을 합산한다(본문의 경우 한글-F10-문서-문서정보-문서분량-글자항목의 원고 매수 ; 각주의 경우 : 4줄당 200자 원고지 1매로 계산).
- 5)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article), 단보(proceeding & report), 서평(book review), 자료(research materials), 번역문(translation) 등으로 한다. 단, 서평의 경우에는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가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7) 논문심사를 원하는 연구자는 『耽羅文化』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아래아한글(이하 한글)로 작성된 논문을 탐라문화연구원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tamla.jams.or.kr>)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8) 논문의 투고는 該當刊記에 대해서 2개월 전까지 접수받고 발행 1개월 전에 심사 완료한 것에 한해서 게재가 가능하다.

- 9) 투고자는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확정 시에는 게재 논문에 따른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연구논문의 게재료는 10만원, 전임교원의 학술연구비 수령 논문은 30만원으로 한다.
- 10) 원고의 게재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11)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탐라문화연구원 전임 교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편집규정(원고 집필 요령)

제출된 모든 원고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 작성 요령>

- 1) 모든 원고는 ‘훈글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초과 게재료-조판면 기준 30면 이상 1면 초과당 1만원 부과)를 투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어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꼭 필요한 경우 영어를 괄호 안에 적는다. 고유 명사의 경우 해당 언어 발음을 한글로 적되, 일상화된 고유 명사는 예외로 한다. 한자문화권의 경우 고유 명사는 한자 표기를 할 수도 있다.
- 4) 『耽羅文化』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해야 한다. 영문 초록에는 제목, 이름, 소속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초록의 분량은 관사를 포함하여 250~300단어로 제한한다.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한다. 논문 말미에는 필자의 e-mail주소를 기록한다.
- 5) 그림 및 사진은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게재 결정 후에 원본 파일을

별도로 첨부한다.

- 6) 본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본문의 장과 절, 항 번호는 I-1-1)-①의 순으로 한다. 투고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I·II·III·IV·V...)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본문에서는 논저 인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각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 쪽수를 기재하도록 하며, 인용 또는 언급된 논저는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본문의 경우}

- 예) ... 지붕을 덮어 하루에 집의 외곽을 완성시켜준다(현용준, 1986: 62-63쪽). (X)
- ... 이러한 시점에서 박재운 외(2009 ; 2010)의 연구에서는... (X)
- ... 표선리의 당캐할망당에서 신으로 모셔지는데, 바닷가에 나무를 깔고 모래를 덮어 해변을 만든 공을 인정해서 마을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³³⁾ (O)

33) 임석재 편,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편, 제주도편』, 203-204쪽. 표선리 당캐할망당 당신화에서는 ‘세명주’라 하기도 하고 ‘설맹대’라 하기도 하는데, “표선리 한모살도 설맹디할망이 날라다 쌓은” 것이라 했다(표선리원로회, 『표선리향토지』, 1996, 154-155쪽). 이 당의 본풀이는 “한라산의 거녀신 ‘설문대할망’ 신화와 유사하다. 다만 여신의 이름 ‘설문대’가 ‘세명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신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했다(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325쪽). 2009년 제주신당조사에서는 이 당을 ‘표선리 당캐 세명주할망당’이라 했다(제주전통문화연구소편,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188쪽).

- 8) 본문 중에서 강조할 부분에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며, 다른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 9) 참고문헌의 순서는 ①한국 ②중국일본 ③서양의 순서로 하고, 저서와 논문의 구별 없이 한국의 것은 가나다 순, 중국일본은 한자음의 가나다 순, 서양은 알파벳 순서로 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 순서로 한다.

- 10) 한국중국일본의 참고문헌은 논문은 「 」, 저서나 학술지는 『 』, 서양의 것은 논문은 “ ”, 저서나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한다. 참고문헌에서는 쪽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예) 논문

홍이섭, 「한국사에 있어 이십세기전반기의 규정문제」, 『동방학지』 12, 1971.

윤용택, 「21세기에 다시 보는 제주도-dot통시 문화」, 『탐라문화』 2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Pizam, A, “Tourism impact: the social costs to the destination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4), 1978.

예) 저서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 사회배경과 삼정의 문란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4.

Capra, J, *The Hidden Connections*, Doubleday, 1978.

예) 번역서

프리츠포 카프라,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김재희 옮김, 범양사, 1997.

Freire, P, *Pedagogy of hope: Reliving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1996, 교육문화연구회(옮김), 『희망의 교육학』, 아침이슬, 2002.

3. 저작권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저자는 전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집행하는 『탐라문화』 게재 논문, pdf파일에 대한 판매 서비스와 탐라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열람 서비스에 저작권을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일체를 포함한 논문 판매·제공 서비스의 저작권은 탐라문화연구원이 가진다.

4.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우리 연구원은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00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 편집위원은 다년 간 연구해 온 중진학자 혹은 최근 3년간 전국 규모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추천 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주제의 적합성에 관련된 심사를 수행하고, 주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견서]와 논문의 각 분야(문학, 역사, 철학, 사회, 언어, 교육 등), 지면사정을 고려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발표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기반으로 '특집논문', '기획논문' 등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의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집 규정의 심의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탐라문화』 총 목차(창간호~60호)

『탐라문화』 창간호(1982.02.20)

김영돈, 「창간사」

현평효, 「격려사」

현용준, 「濟州島 巫神의 形成」

현길언, 「제주도의 오누이 장사전설-본토와의 대비를 통한 제주 인물전설의 의미-」

조문부, 「濟州島의 主民資金에 의한 地域開發方案-投資誘致를 中心으로-」

강경선, 「濟州島의 農耕方式(農法)에 대한 比較研究」

김경호, 「濟州圈域 觀光宿泊業에 關한 考察」

신형철, 「在日濟州僑胞 그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과 階層構造」

이창기, 「濟州島의 人口成長」

김영돈·신형철·강영봉, 「解放後 濟州研究概觀-語文學 民俗分野-」

『탐라문화』 제2호(1983.02.28)

김홍식,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考-人稱接尾辭를 中心으로-」

강영봉, 「濟州島方言의 喉音」

현용준, 「三姓神話研究」

현길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李衡祥목사의 神堂 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葛藤과 對立-松堂, 細花, 西歸堂 본풀이의 경우-」

Frederic H.Dustin, Cheju Resources Exploitation

한창영, 「濟州島 老人福祉에 關한 構圖」

윤양수, 「濟州島內의 柑橘乙類農地稅 課徵實態와 問題點」

<調査報告>

김영돈, 「旌義고을(1)」

김종업·권인혁·고창석·김용완, 「解放後 濟州研究概觀(2)-歷史, 考古分野-」

『탐라문화』 제3호(1984.02.29)

김종업,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歷史學的 側面」

정영화,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考古學的 側面」

현용준,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民俗學的 側面」

이광규,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社會學的 側面」

부만근,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行政學的 側面」

김지홍, A Study of Korean Implicative Verbs

F.H.Dustin, Cheju Island Human Resources in the Expansion of Tourist Accomodation

정대연, 「濟州市의 生態學的 構造分析-生態學的 要因分析을 중심으로-」

현학순, 「濟州島産 柑橘의 流通合理化 方案」

<調査報告>

고광민, 「濟州島民具(1)-보습-」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典籍類 綜合調査報告

『탐라문화』 4호(1985.01.25)

고창석, 「元明交替期の 濟州島-牧胡亂을 중심으로-」

이창규, 「濟州島 支石墓 研究(1)-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支石墓群-」

정공흔, 「Socotra礁의 由來에 대하여-이어도와의 關係를 덧붙여-」

고남옥, 「濟州地域의 觀光産業 振興方案」

김태보, 「基本需要接近에 의한 農村小都邑의 開發戰略-濟州圈 西部地域을 중심으로-」

문기선, 「先進地 彫刻美術研究 開發模索」

<調査報告>

김영돈, 「旌義고을(2)」

고광민, 「濟州島民具(2)-제주도의 떼배와 그 어로행위들-」

신형철·부만근·고남옥·김태보·허철수·김영돈, 「解放後 濟州研究概
觀(3)-社會科學分野」

『탐라문화』 5호(1986.05.25)

강영봉, 「제주도 방언의 식물이름 연구」

윤치부, 「제주 자장가의 유형」

고창석, 「조선조의 유형제도와 제주도」

유철인, 「제주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허향진, 「호텔업의 촉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조진숙, 「제주도 성인 여성의 구매형태에 관한 실태조사」

김범국·서경림·김영돈, 「해녀조사연구」

<調査報告>

김영돈, 「旌義고을 (3)」

김광민, 「濟州島民具(3)」

『탐라문화』 6호(1987.02.25)

김일근, 「諺簡에 投影된 秋史의 人間論」

강주진,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濟州 流配動機를 중심으로-」

양순필·양진건, 「秋史의 제주 教學活動 研究」

김지흥, 「溫平里 古文書 研究」

이청규, 「濟州島土器에 대한 一考察」

김옥희, 「濟州島 天主敎의 受容 展開過程」

이창기, 「濟州島 家口의 크기」

오남삼, 「指定文化財의 觀光資源論 考察 -濟州島를 中心으로-」

강창현, 「濟州民謠에 投影된 島民意識 分析-濟州島民性과 意識構造 形
成背景-」

김영돈, 「旌義고을(4)」

『탐라문화』 7호(1988.02.25)

김순택, A Study on /··/, a Sound of Cheju Dialect in Korean

현우중, 「제주도 방언 「·」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高橋公明, 「濟州島俗談의 主題」

윤치부, 「林白湖의 <南冥小乘> 攷」

강재언, 「濟州島 流配期の 金允植」

권인혁, 「19세기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David J. Nemth, Some Early Western Travellers to Cheju Island

오남삼, 「濟州島 海岸地形에 대한 一考察」

신행철, 「제주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양진건, 「濟州 五賢의 敎學活動 研究」

<資料>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한글 書簡」

「耽羅賓興錄」

『탐라문화』 8호(1989.02.15)

고정우,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김병하, 「乙卯倭變考」

高橋公明, 「中世 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島를 중심으로—」

陳祝三, 「蒙元和 濟州馬」

出口晶子, 「濟州島筏船の建造・操船・漁撈技術」

고창석·이창규·고광민·양진건·윤치부·강창언, 「옛 濟州關門인 禾北浦口일대 學術調査」

『탐라문화』 9호(1989.03.21)

강창혁, 「兩親의 子女에 대한 態度에 관한 研究—濟州島를 中心으로—」

김순택, 「제주도 영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 양순필, 「秋史 金正喜의 漢文書翰考」
송상조, 「제주도 방언의 고찰(2)-문헌어와 대비하여-」
이청규, 「제주도 高山里 출토 隆起文土器」
강창언, 「곶시엄 調査報告」
남석진, 「濟州島 傳統社會의 農業經營에 關한 研究-涯月邑을 中心으로-」
고창석·양진건,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敎學活動研究」
김은자, 「濟州島 성주폴이의 構成 및 長短의 研究」

『탐라문화』 10호(1990.02.10)

- David J. Nemeth, The Walking Tractor: Trojan Horse in the Cheju Island
Landscape (제주도에서의 트랙터)
Patricia Hunt, The snake Faith of Cheju Peple(제주인의 뱀신앙)
김정숙, 「濟州島海女服研究」
강창언, 「제주도(濟州島)의 동자석(童子石) 연구(研究)-분포(分布)와 형태
(形態)를 중심(中心)으로-」
문무병, 「濟州島 도깨비당 研究」
고승익, 「濟州地域 旅行業의 育成方案에 關한 研究」
견민생, 「耽羅王權과 日本」
高橋公明, 「高得宗 研究」
백자훈, 「禾北里 名稱의 變遷과 禾北校의 設立」
서경립·한삼인·고호성·고광민, 「濟州道마을 共同體와 法規範」

『탐라문화』 11호(1991.02.27)

- 현승환, 「飛揚島 說話의 樣相과 國土浮動觀」
좌혜경, 「濟州島 民謠의 敍述體 構成에 關한 고찰」
진영일, 「濟州島, 沖繩 地域史에 關한 比較史 試論」
서경립, 「濟州島와 沖繩의 慣習法-門中을 中心으로-」
양진건, 「濟州島와 沖繩의 傳統敎育 比較」
강창언, 「濟州島의 環海長城 研究」
양성중,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 現況」

- 松本誠一, 「濟州島家族의 檢討—世帯規模의 東西差—」
유철인, 「제주사회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감」
김의숙, 「濟州島 牧者服 研究」
김형길, 「濟州地域 消費者保護運動의 活性化에 관한 研究」
고승익, 「濟州地域 觀光經濟環境에 관한 研究」

『탐라문화』 12호(1992.02.28)

- 성무경, 「耽羅居人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한 研究」
좌혜경, 「濟州島民謠의 傳承變異에 관한 考察」
양영자, 「濟州民謠 시집살이 노래 研究」
문무병, 「濟州島 生水說話와 물법신앙」
秋葉隆, 「島, 山의 민속: 제주도의 신화」
추엽용, 「제주도의 蛇鬼」
강창언, 「濟州島의 佛跡」
양진진, 「朝鮮韓의 濟州島 教育施設」
강보식, 「觀光商品 購買動機에 관한 實態分析—濟州地域을 中心으로—」
김혜연,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김정희, 「濟州道開發에 있어서 住民의 參與와 役割 一考」

『탐라문화』 13호(1993.02.28)

- 송상조, 「형태소 “-ㅇ,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응」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이기욱, 「환경과 제주문화—제주문화의 생태인류학적 연구 서설—」
고창석, 「朝鮮後期 濟州島 田畵文記의 研究—高在一氏 所藏文記를 中心으로—」
김정희, 「地域社會 開發政策形成過程의 問題點과 對策—濟州道 塔洞公有水面埋立事業을 中心으로—」

<東아시아 文化에 있어서 濟州島의 位置>

- 이기문, 「濟州方言과 國語史 研究」

고창석,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竹田亓, 「東아시아에 있어서 濟州民俗」
이광규, 「社會民俗側面」
현용준, 「濟州島 神話와 儀禮形式에서 본 文化의 系統」
江坂暉彌, 「環동지나해를 둘러싼 古代文化研究上 濟州島 諸選材探索의 問題點과 展望」

『탐라문화』 14호(1994.02.25)

김영화, 「1950년대의 濟州文學」
송상조, 「형태소 “양”에 대한 고찰」
고창석,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양진건, 「제주(濟州) 우도(牛島)의 교육(教育)-해방(解放) 이후(以後)-」
장수근, 「특집(特輯) 삼성신화(三姓神話)의 종합적(綜合的) 검토(檢討); 삼성신화(三姓神話)의 형성(形成)과 문헌정착과정(文獻定着過程)」

<特輯: 三姓神話의 綜合的 檢討>

전경수, 「乙卯神話의 文化傳統과 脫傳統」
이창규, 「三姓神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허남춘, 「三姓神話의 神話學的 考察」
허춘, 「“三姓神話” 研究-成果와 課題-」
강정식·좌혜경, 「耽羅文獻解題(1)-口碑文學, 民俗學(1)-」

『탐라문화』 15호(1995.02.25)

玄容駿·玄丞桓, 「濟州島 甁神話와 信仰의 研究」
오창명, 「『耽羅啓錄』의 吏讀文과 吏讀 解讀」
김혜연,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고효숙·양진건, 「제주도 鄉土史 學習의 內容 選定 組織」
강영봉, 「제주도 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特輯: 濟州文學의 定立>

金榮墩, 「民謠와 濟州文學」
玄吉彦, 「說話와 濟州文學」
蘇在英, 「漢文學과 濟州文學」
金永和, 「現代文學과 濟州文學」

<資料> 고정윤, 『『燃藁室記述』의 濟州記事』

『탐라문화』 16호(1996.02.29)

許 椿, 「說話에 나타난 濟州 女性考」
吳昌命, 「濟州島 地名 表記의 研究」
權仁赫,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의 運營常態」
高昌錫, 「朝鮮後期 濟州島 土地賣買 實狀」
秦榮一,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金東栓, 「濟州人의 3·1運動과 그 영향」
姜永淳, 「企業文化·勞使關係의 適合性 組織有效性の 關係」

<特輯> 濟州啓錄의 綜合的 檢討

조성운, 「19세기 濟州島의 國家 儀禮」
朴贊殖,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金祥玉, 「朝鮮後期 濟州 地方의 軍事制度」

<資料>

朴贊殖,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의 주도 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탐라문화』 17호(1997.02.10)

김영화, 「제주 역사와 문화」
金相助, 「沖庵 金淨의 『海島錄』」
오창명, 「地名の 借字 表記에 대한 解讀」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도방언 수용 양상과 그 과제」
강세현, 「제주 관광 산업의 성장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梁鎭健, 「美軍政期 濟州教育(Ⅰ)」

현승환, 「濟州島 喪・祭禮의 節次와 信仰的 意味」
이상철, 「제주도의 개발과 사회문화 변동」
김석준, 「제주지역의 선거(1948~1992) 개괄적 검토와 재해석」

『탐라문화』 18호(1997.12.31)

오창명, 「제주도 마을과 산악 이름의 종합적 연구」
문순덕, 「제주방언 부정응답 구문」
김유정, 「제주의 무신도(巫神圖)」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분재문기의 연구(1)」
송성대,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 정신」
진관훈,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 변동에 관한 연구」
김경택, 「제주도의 농외소득원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장애란·안명숙,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정광중·강만익, 「제주도 염전의 성립 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 지형」
김진영, 「청소년 비행의 원인 분석을 위한 경험적 연구」
양진건, 「제주도 최초 근대 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김항원·송성대·손명철·권상철·진관훈,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
제주시민의식의 실태와 과제」
D.Plath(역:유철인), 「환경에 대한 적응: 일본 해녀의 경우」

『탐라문화』 19호(1998.12.30)

洪宗林, 「제주방언의 ‘ㅎ’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문순덕,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金永和, 「在日濟州人の 世界 : 梁石日の『피와 뼈』」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池田榮史, 「물질문화상으로 본 한국제주도와 류큐열도의 교류-고려시대
를 중심으로」
高昌錫,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畠文記의 研究」
權仁赫·金東桢,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조성운·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金東柱, 「朝鮮後期 濟州高氏 一家의 戶口資料 分析」

『탐라문화』 20호(1999.12.30)

강영봉,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
문순덕, 「제주 방언 ‘모르다’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오창명, 「固有語彙 研究 『耽羅營事例』와 『濟州事例』를 중심으로」
김동운,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高昌錫, 「朝鮮後期 濟州地方 田畝賣買文記의 研究 I」
金東柱,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진관훈,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韓昌勳, 「제주도 잠수(潛搜)들의 생활과 민요」
津波高志, 「濟州の通婚圈に關する再檢討: 安徳面徳修里の事を中心に」
池田榮史, 「陶器生産技術からみた濟州と琉球」,

『탐라문화』 21호(2000.12.30)

김영화, 「金通精의 활동과 문학적 상상력」
허남춘, 「제주 서사무기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高昌錫, 「朝鮮後期 濟州地方 田畝賣買文記의 研究 II): 西歸浦市 大浦里
를 중심으로」
康昌和, 「濟州 初期 新石器 文化와 對馬島・西北九州」
진관훈,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송성대, 「濟州 六大陰宅明穴地의 景觀解釋과 메타言語에 대한 試論」

<특집> 제주방언의 제문제

정승철, 「제주 방언의 음운론」
문순덕,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 연구」
김동운,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방안」
오창명,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탐라문화』 22호(2002.02.28)

姜榮峯, 「濟州語와 石宙明」

許 椿,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論議-일(영)어의 잔재-」

오창명, 「제주도의 언어지도(1)-매미류-」

高昌錫, 「19세기 濟州地方의 土地賣買 實態-涯月邑 郭支里 土地文書를 중심으로-」

고광민, 「도토리와 열매의 기술민속」

진관훈, 「조선시대 제주의 公的扶助에 관한 고찰」

<특집> 풍수지리와 장묘문화

D.J.Nemeth, The Significance of Cheju Island Feng-Shui

송성대, 「風水地理研究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一考」

최원석, 「韓國의 裨補風水에 대한 始論」

高村龍平, 「일본의 장묘문화-그 다양성과 역사성-」

현승환,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23호(2003.02.25)

김동운,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현기영의 「순이 삼촌」론-」

고창석, 「飛揚島 關聯文件 小考」

秦榮一, 「高麗 肅宗 10年 耽羅郡 設置 考察」

송성대·오영심, 「제주도 전통 사회의 옹기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대정읍 구역리를 중심으로-」

황경수, 「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

송재호, 「제주 해역 문화자원 활용방안」

나가모리 미즈노부, 「조선 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특집> 지명과 지명연구

南豐鉉, 「居伐牟羅와 耽牟羅」

나가무라 마사나오, 「久米島の海岸・海中地名」(「구메지마의 해안・海中地名」, 김영희 역)

田 景, 「中國의 現代 地名標準化 小考-행정법규 고찰을 중심으로-」
강영봉·오창명, 「濟州島 古文書의 地名 試攷-특히 소지명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4호(2004.02.25)

진영일, 「고려조 탐라파견 외관 고찰」
양진진, 「日帝下 濟州島 學校設立運動」
고창석,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分財記研究(抄)-河源洞 姜成澤氏家の 所藏文書-」
오창명, 「제주도 고문서의 이두문과 이두 연구-16세기 이두문을 중심으로-」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윤용택, 「제주인과 오름-오름과 총체적 가치평가를 위한 시론-」
신영대, 「제주문화 속의 오름-자연풍수관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5호(2004.08.25)

강소전, 「제주 4·3해원상생국의 재조명-〈차사영맞이〉의 역할과 해원상생의 의미를 중심으로-」
강창룡, 「17世紀 中葉 中國人의 濟州 漂到-顯宗 8年(1667) 明나라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着과 處理를 中心으로-」
곽이부, 「李白 詩의 瀛州」
김현선,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각 편 비교와 여성 심리적 해석」
김현돈, 「제주를 찾은 외지 미술인-그들의 삶과 예술-」
윤용택, 「21세기에 다시 보는 제주도-dot통시 문화-생태적 삶의 원형과 그 현대적 변형을 찾아서-」
현혜경, 「섬과 종교: 마라도의 상징성과 종교」

『탐라문화』 26호(2005.02.25)

진영일, 「고려기 탐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 주영하, 「제주도 음식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일고(一考)」
허남춘, 「제주 전통음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김봉애·이정림, 「1955년 이후 50년간의 제주시 주거지와 주택 변화」
김형길, 「제주지역 소비자의 유통업체 이용실태 분석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탐라문화』 27호(2005.08.30)

- 강소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 잠수굴의 제차(第次)와 그 역할」
김영익·김민철,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 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을 통한 설치의 동기 분석」
이은정, 「중년기 부부관계와 부부교육」
조성운,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 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
허남춘, 「三女神 도래신화와 축제 가능성」
황석규, 「환경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탐라문화』 28호(2006.02.28)

- 강정식, 「마을회의록을 통해 본 마을제의 변화」
김진하, 「제주 민요의 후렴 “이여도”의 다의성과 이여도 전설에 대한 고찰」
박찬식,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양영자, 「제주민요에 나타난 삶의 대응방식과 생활인식」
오창명, 「耽羅圖와 지명」
윤용택, 「제주도 '新舊間' 풍속의 유래에 대한 고찰」
이동철, 「지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진영일, 「조선시대 제주 「神人」 기사 검토」

『탐라문화』 29호(2006.08.28)

- 강치영,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연구」
김민철, 「제주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 분석 및 지역 주민 의식 조사」

- 김진하,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부영근, 「淸陰 金尙憲의 남사록 考察」
오영희,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향토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
오홍석, 「제주도의 지역특성과 문학-예술적 표현」
윤봉택, 「13세기 濟州 妙蓮社板『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新舊間)'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
이남옥, 「김통정 설화 연구」

<자료소개>

고창석,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節目類」

『탐라문화』 30호(2007.02.28)

-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박찬식,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송경언, 「제주도 어촌의 인구 변화와 관광기능 분포」
윤용택, 「'신구간' 풍속의 축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진희·김구, 「시티투어를 활용한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허영선, 「주변인들의 인식을 통해 본 제주 4·3시기 아동학살 유형과 특징」
양석완, 「한국사에 비추어 본 제주의 사법제도」

『탐라문화』 31호(2007.08.28)

- 허남린,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이연숙, 「제주, 오키나와의 투쟁의 기억: 까마귀와 소라게 이야기」
이토 요시히데, 「한국과 일본의 제의에 나타난 '마레비토'神」
윤용택,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 구성 및 전승의 원리」
김현선, 「제주도 돛제와 궤넝깃당 본풀이 연구」
김동윤,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도」

-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오영선, 「제주도 마을의 지명분포와 유래에 관한 연구」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복원과 축제화 과정에 나타난 문제와 가능성」
허남춘, 「제주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32호(2008.02.28)

-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강만익, 「1930년대 제주도 공동목장 설치과정 연구」
전은자, 「濟州人の 日本渡航 研究」
안미정, 「오사카 재일(在日)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 방식에 대한 고찰」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한진오, 「민속과 공연 사이: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탐라문화』 33호(2008.08.30)

<기획특집>

- 김성수, 「지역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한창훈,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현승환, 「『탐라문화』의 성격과 발전 방향」
조성윤, 「지역 연구 모델로서의 제주학의 발전 방향: 『탐라문화』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일반특집>

- 김수희,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제주 잠수어민을 중심으로-」
이 옥, 「18~19세기 제주의 進上制 운영과 성격」
박찬식, 「梁濟海 謨變과 相贊契」
김정선,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강연실,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화 방안-돌문화를 중심으로」

로-」

김현선·변남섭,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 34호(2009.02.28)

<기획특집>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권태효, 「<이족창세사>와 제주도 창세서사시의 비교 연구」

이경애,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무속서사시 비교」

한혜원, 「신화 퀘스트에 기반한 디지털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

<일반특집>

김정기, 「梁濟海와 濟州백성의 謀變(1813) 다시보기」

송재효·오상학·이성은, 「지역축제 참가자의 플로우 체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최병길·서용건·김 용,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제주돌문화공원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분석」

강봉수, 「제주의 '요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성과 도덕적 덕성」

『탐라문화』 35호(2009.08.30)

<특집논문> 제주도 본풀이

현승환, 「제주도의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

한진오, 「<지장본풀이>에 담긴 수수께끼와 연행방식 고찰-지장과 새의 의미, 연행방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양성필, 「난생신화와 '괘짝신화'의 상관성 고찰-석탈해신화 화소의 복잡함에 던지는 의문-」

<특집논문> 음식문화

현혜경,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망」

김미정, 「새마을 농부, 부모님의 농사 이야기」

강수경, 「제주전통음식문화의 현대적 의미 모색-인간관계망의 회복과

관련하여-」

<일반논문>

-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牆垣) 연구」
김명범·황경수, 「메세나 운동의 제주지역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김남진,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조사연구-여가활동 유형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희중,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징과 변화 연구-표선면 지역을 중심으로-」
황석규,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36호(2010.02.28)

<특집논문> 제주도 본풀이

- 김현선, 「臺灣 布農族濟州島宮古島의 敍事詩와 神話 比較」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김형근, 「제주도 <맹감본풀이(스만이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김은희, 「제주도 본풀이와 놀이의 상관성-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 전은자, 「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
현혜경,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이영윤, 「언론의 특정 지역공간 담론화에 대한 분석-‘제주올레’를 중심으로-」
고승한·김진영, 「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진희·홍원식, 「표선 어촌마을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37호(2010.08.30)

<특집논문 1>태평양 지역 연구의 현재와 전망

주강현, 「해양권역의 재인식과 ‘태평양지역연구’로의 전환」

김현선, 「태평양 신화의 구조적 지형학 소묘-제주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그리고 환태평양의 신화 총체적 판도 조망-」

정진희, 「제주도와 琉球, 沖繩 신화 비교 연구의 검토와 전망」

조성운, 「제국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와 연구동향」

김희열, 「미크로네시아 개관: 식민지배와 독립」

<특집논문 2>바다와 신화: 설문대 할망연구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 선문대할망」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김동운,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 양상」

김순자, 「선문대할망과 그 別稱」

<일반논문>

윤용택, 「제주섬 생태문화의 현대적 의의」

김정선,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

김동만,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에 대한 고찰」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현홍준·서용건·고계성, 「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철·김석준·김준표, 「제주도민의 문화생활과 문화의식 실태」

김의근·강숙영, 「지역축제, 이벤트 영향인식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8호(2011.02.28)

<특집논문>타자(他者)가 본 제주도

이토 요시히데(伊藤好英), 「아시아 속의 제주도 문화 -일본의 민속학민
족학 논고의 궤적을 찾아-」
伊地知紀子, 「泉靖一『濟州島』が示す濟州島研究の意義と課題」
고길희, 「하타다 다카시가 본 제주도」
朱惠足, 「越界的歷史,越界的認同: 八重山台灣人與大坂濟州人比較研究」

<일반논문>

양영수,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성의 특징들」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사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강만익, 「일제하 濟州島農會의 운영 실태와 성격」
고성만, 「4·3 과거청산과 '희생자'-재구성되는 죽음에 대한 재고-」
강영훈, 「태풍 '나리'로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의 심리지원 분석」
박원배·김병무, 「제주 지역신문의 환경보도에 관한 내용분석-제민·제
주·한라일보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9호(2011.08.30)

<특집논문>제주지역의 다문화와 교육

김민호·오성배,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박경숙·이지현,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관련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오고운·김성봉,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염미경,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양상」
Seunghyun Seo · Eunsang Cho, The Valid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High School and the Problems of English Education

<일반논문>

김치완,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윤용택,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
이진희, 「이중섭 문화거리에 대한 방문객의 이미지유형에 관한 연구」
전은자, 「이중섭의 서귀포 시대 연구」
조성윤,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현혜경, 「제주지역 '우영'의 전통과 현재적 지평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40호(2012.02.28)

<특집논문>석주명과 제주

강영봉,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
문만용, 「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
신동원, 「한국과학사에서 본 석주명」

<일반논문>

이진희, 「제주도 관광이미지와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관한 연구」
임희순·김구·남윤섭, 「문학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정희중, 「1990년대 제주도 지하수 담론과 정책형성에 대한 연구」
김유리, 「충암(冲庵) 김정(金淨)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의 교육적 의미」
박찬식, 「제주4·3사건 관련 행형자료와 형무소 재소자」
오창윤, 「제주 버네쿨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의 Ceramic Design적 재해석」
장성수·김종기, 「제주지역 관광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 41호(2012.08.30)

<특집논문>제주교육의 방향 탐색

김혜영·김유리,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전·강은주·김민지,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교직실무」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홍수·황경수·권순철·홍성욱·오진숙·고보숙·고봉조, 「액션러닝을 적용한 대학의 핵심역량 강의 효과성 분석」
조성태·남진열, 「제주지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의 관련성 연구」

<일반논문>

- 장승심,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고경민, 「제주해군기지 이슈가 제19대 총선에 미친 영향」
안덕균·이정화·백승민·김슬기·최선미, 「포커스 그룹 운영을 통한
제주도 민간요법 사용경험 연구」
송문기,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권에 대한 문헌적 고찰」
진관훈,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빈곤과 구빈활동」
김희정, 「한국과 중국의 지역신문 광고면 구성과 내용에 관한 탐색적 연
구」
조성운, 「알프르 비행장,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42호(2013.02.28)

- <특집논문>바다로 열린 세계, 제주의 해양문화
王政文, 「十九世紀來台傳教士의 海洋經驗與書寫」
주강현,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적 성찰」
조성운,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일반논문>

-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
王 艷, 「제주도 무가 속의 숫자 12에 대한 고찰」
정창원, 「중국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본 신(信)관념」
부정민, 「돌하르방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희열,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패권주의 연구」
원이범·김희정, 「한국과 중국 TV공익광고 비교 연구」
윤원수·오윤정·양덕순, 「여성공무원의 조직문화 인식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민정·강재정·서용진, 「異文化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
이인희, 「교육거버넌스관점에서 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분석」

『탐라문화』 43호(2013.06.30)

<특집논문>제주문화와 제주어

이성준, 「제주어 문학의 위상과 가능성」

강영봉, 「제주 사회 통합과 제주어」

김순자, 「제주도 도서지역어의 생태학적 연구」

김치완, 「한국학의 전통에서 본 제주 바람」

<일반논문>

강만익,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이종근·이지혜·하봉운·오세희, 「국립대학 부설 초등학교와 부설 중
·고등학교 운영 체제의 중요도」

김선필·정영신, 「제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쟁과 공공성의 재구성」

김자경, 「로컬푸드 지원조례와 공동자원(common)의 운영원리」

고관우·남진열, 「제주지역 대학생의 취업 준비 활동과 취업스트레스와
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송재호·남윤섭·임화순, 「AHP를 활용한 제주관광 강화정책 중요도 연
구」

『탐라문화』 44호(2013.10.31)

<특집논문>제주와 미래 가치

고태호·임정현·김세일, 「제주지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망 제조
업체 선정 방안에 대한 연구」

허남춘,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김범훈,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과 대안적 모델로서의 지오투어리즘」

<일반논문>

김원보·변길자,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50대/70대) 어두 파열음
의 VOT, FO 및 파열강도(burst energy) 변이양상」

강재정·조부연, 「사회적 질(質)에 대한 만족도가 제주도민의 행복에 미
치는 영향」

하진의, 「불완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정형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관한 재고찰」

김영순·이미정·최승은, 「제주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정책 실태에 관한 연구」

김형우·이인혜·강영경·한지원·이도정,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민속의료 현황과 지역적 특징」

『탐라문화』 45호(2014.02.28)

<특집논문>제주관광자원의 허와 실

주현식, 「저탄소 관광상품 이용 동기에 대한 중요도-성취도(IP) 분석」

남윤섭·임희순, 「제주지역 관광지 개발 시기구분과 입지변화에 관한 연구」

윤원수·양덕순, 「주민자치센터 참여 만족도가 지역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인성·황경수·오윤정, 「제주지역의 협력(수눔음)형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 연구」

<일반논문>

김치완,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우창현, 「제주 방언 시제 표현 교육 방안」

권귀숙,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젠더 연구」

김진영, 「<영감놀이>의 심리 치료 극적 구조와 성격」

김혜숙·이은정, 「100세 시대 대응한 제주도민의 가족 생활 실태 및 가족정책에 관한 욕구조사 연구」

현미열·조옥희, 「제주지역 어선원의 알코올 의존도, 도박 성향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탐라문화』 46호(2014.06.30)

<일반논문>

- 권태효, 「지형창조 거인설화의 성격과 본질」
변숙자,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칠성신앙의 양상」
정창원, 「戰國시기를 중심으로 본 信관념의 변화」
최현·김선필, 「제주의 바람: 공동자원론적 관리 방식」
김민환, 「동아시아 변경 섬의 지정학과 냉전체제 성립기 국가폭력 발생
의 구조」
정용복·최낙진, 「제주지역 언론학 연구의 메타분석」
진창남·남진열, 「제주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복지 거버넌스 관계 연
구」
강석규, 「제주 해양관광의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47호(2014.10.30)

- <특집논문>글로벌시대 제주교육의 대응
신창원, 「제주지역 이중방언사용(Bidialectalism)과 영어습득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조사」
김경란·김일방,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로의식 연구」
강은주,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 분석」

<일반논문>

- 김순자, 「제주도방언의 '호상웃(수의)' 관련 어휘 연구」
정형아, 「전후 초기 대만 혼란의 원인: 권력주체 사이의 갈등」
김희정, 「제주지역 초창기 신문광고에 대한 탐색적 연구: 1947년 『제주
신보』를 중심으로」
이혜진, 「이주과정을 통해 본 에스닉 네트워크와 노동경험: 일본 요코하
마 고토부키초의 한국인 미등록노동자를 중심으로」
정승훈,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개발 지지도 관
계 분석: 제주도 관광권역을 중심으로」
강석규, 「제주 시범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김현철·임동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주 태양광
·풍력산업의 사례」

강연실·손성민·임소진·조부연,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 분석」

『탐라문화』 48호(2015.02.28)

<일반논문>

조문수, 「제주 지역주민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외식 행태 변화」

유지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본내 한일회담 반대운동」

조세현, 「청말 중국인의 해양 관련 국제회의 참가와 국제조약 체결」

강동호·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濟州學統) 연구」

조성운, 「미크로네시아 제주의 제주인 연구 서설」

김준표·김석준, 「제주지역의 도박 합법화와 사회적 합의의 과제: 도박
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의 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강석규, 「제주 해양관광객의 수요결정요인 분석」

『탐라문화』 49호(2015.06.30)

<특집논문>제국의 폭력과 저항의 연대

손지연, 「오키나와 공동체 구상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일본 '복귀' 전후
오시로 다쓰히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곽형덕, 「마타요시 에이키 문학에 나타난 '타자'와의 교섭 과정: "오키나
와인 주체의 자세"를 묻다」

고명철, 「오키나와에 대한 반식민주의로서 경계의 문학: 메도루마의 문
학을 중심으로」

김재용, 「한국에서 읽는 오키나와 문학」

김동윤, 「4·3소설과 오키나와전쟁소설의 대비적 고찰: 김석희와 메도루
마 슌의 경우를 중심으로」

홍기돈, 「제주 공동체문화와 4·3항쟁의 발발 조건」

<일반논문>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정창원, 「대만 역사교과서를 통해 본 역사인물의 평가문제: 진시황과 한

무제를 중심으로」

정용복·박성복, 「제주지역 다매체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미디어 장르 이용행태 연구」

오수정·김경범·김상미, 「문화마케팅 요인이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경민,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계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50호(2015.10.30)

<특집논문>진단, 제주의 현황과 전망

고상현, 「제주 문화유산정책의 화통적 관점에서의 방향 -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김민영·최현,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김진영, 「제주사회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사회협약위원회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임애덕,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미혼한부모자정정책분석-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이진희, 「제주도 농촌마을의 관광동기유형에 따른 관광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선흘리 마을을 대상으로-」

서세진·서용건, 「제주도 초등학생의 관광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만족도가 방문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논문>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최형국, 「18세기 활쏘기(國弓) 수련방식과 그 실제-『林園經濟志』「游藝志」射訣을 중심으로-」

정종우·정소연,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동물의 통시적 연구-『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한박물』, 『제주계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51호(2016.02.28)

<특집논문>원류(源流), 인간(人間), 교류(交流)

한성우, 「바다, 섬, 항구, 그리고 방언」

김강식, 「『漂人領來謄錄』 속의 濟州島 漂流民과 海域」

류창호, 「서해 북부 해역에서의 海浪賊활동과 조선정부의 대응—海浪島 搜捕(1500년)에서 白翎鎮설치(1609년)까지」

김치완, 「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제주문화공간 분석」

차운정, 「로컬 공동체와 차이의 공간 생성—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김태호, 「『탐라순력도』의 지형경관에 투사된 지형인식」

오미일, 「개항장 도시의 스포츠 이벤트와 민족의 지리학—일제시기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김새미오, 「소백(小柏) 안달삼(安達三)의 교유와 그 의미」

윤동진·김정희,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요인과 과제」

최병택, 「1920~1930년대 제주도 지역 보통학교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나타난 특징」

곡기·김희정, 「한·중 잡지광고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 비교분석」

『탐라문화』 52호(2016.06.30)

<특집논문>제주 몽골 그리고 동아시아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이명원, 「오키나와의 신화와 민간신앙의 이중구조」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윤용혁, 「제주 삼별초와 몽골·동아시아 세계」

김경주,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살펴 본 원(元)과 탐라(耽羅)」

<일반논문>

김경옥, 「1831년 『군정성책(軍丁成冊)』을 통해 본 전라좌수영의 군정과

군관-순천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형아, 「전후초기 중국 동북지역 적산처리를 둘러싼 중미소의 갈등」

윤용택, 「현공 윤주일의 <濟州仙景歌> 연구」

강동호·양진건, 「『남사록(南錄)』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교육적 태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서영숙·진관훈,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제주지역 개인기부자를 중심으로」

주민욱, 「이어도 논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중국어 자료에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53호(2016.10.31)

<특집논문>제주의 지역경제 활동과 문화

김순자, 「제주도방언의 어로 활동 관련 어휘 연구-어로 도구와 어로 행위를 대상으로」

한금순, 「17세기 제주도 여정(女丁)의 성격-군역(軍役) 부담에 대한 고찰」

정광중, 「숯 제조 재현과정과 현재적 의미 탐구-제주지역의 곶숯 제조를 사례로」

김현철·강영은, 「제주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관련 제도적 방안」

<일반논문>

고은영,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새드림 말명 삽입의 의미」

곽형덕, 「『재알』의 근거로서의 『화산도』」

윤은숙,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耽羅宮殿」

한혜숙·남진열,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재영·강진구,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과 거주 공간 확대에 대한 연구 -가리봉동·구로동·대림동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54호(2017.02.28)

<특집논문>제주의 오래된 담론들

이소운, 「제주도 서사무가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 나타난 권력과 젠더의
향배(向背)-‘신부 바뀌치기’ 화소를 중심으로」

김석준, 「제주도 ‘척박성 담론’의 재검토」

서영표, 「제주에서 사회학하기-사회학의 존재이유 되찾기」

임정택, 「제노사이드 영화와 사회치유-조슈아 오펜하이머의 다큐멘터리
를 중심으로」

엄기표, 「제주지역 佛教 石造美術의 특징과 의의」

김미량·김민영, 「제주 정착주민 정책 현황 연구」

서세진·서용건, 「제주 올레에 대한 장소 애착심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

<일반논문>

오창립,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김새미오, 「구한말 제주 문인 海隱 金義正의 삶과 문학」

조정민, 「‘오키나와 문학’이라는 물음-사키야마 다미(崎山多美) 「바람과
물의 이야기(風水譚)」의 방법」

고명철, 「오키나와 폭력에 대한 문학적 보복과 ‘오키나와 리얼리즘’-메
도루마 슌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전영준, 「2009 개정교육과정과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麗蒙交流史 서술
분석」

공유식·강준영, 「대만 차이잉원의 탈중국화정책-양안관계 변화에 미치
는 영향」

『탐라문화』 55호(2017.06.30)

<일반논문>

홍기표, 「여말선초 청주한씨 濟州入島祖 한천(韓蕡) 재조명」

강현정, 「한국 고대 신화 속 여성성의 신화화 과정과 변용」

김동윤, 「지역공동체에서 평화공동체로 가는 상상력-마타요시 에이키 초

기소설의 의미」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김정임·윤명희,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국제학교 학부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은설, 「제주지역 중 고등학생의 자존감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학교생활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56호(2017.10.31)

<특집논문>지금, 제주사회의 단면 들여다보기

윤명희·김선필, 「사회변동에 따른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변화와 딜레마 - 「바다교회」(가명) 사례를 중심으로」

김동주,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장승희,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제주 인식」

김창겸, 「신라 文武王의 海洋意識」

김일권,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에 나타난 한중 고대 천지상서의 교응적 자연학」

박종오, 「물고기 이름 유래담의 내포적 의미 고찰-인물 관련 유래담을 대상으로-」

김명희,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과 루트 패러다임」

김성경, 「「민족 영화」 개념의 변천: 「조선영화」에서 「코리아시네마」까지」

양미경,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정용복·김치완, 「지역신문의 대학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57호(2018.02.28)

<특집논문>고대 동아시아와 탐라1

채미하,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神女의 역할과 위상」

김경주,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일반논문>

선봉조, 「백제 위덕왕(威德王)·무왕대(武王代) 대고구려(對高句麗) 견제의 외교적 함의」

강현정, 「『三國遺事』 소전 변재천녀와 통일신라법종 ‘奏樂天人像’의 연관성」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오창립, 「조선시대 제주지역 扁額懸板 연구」

강만익,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오성주, 「우리나라의 도깨비 도로—심리학적 설명과 활용 제안」

백정민·조문수,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이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절효과—제주지역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탐라문화』 58호(2018.06.30)

<특집논문 I>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2

최희준, 「탐라국의 대외교섭과 항로」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이유진, 「탐라의 대일교섭—『日本書紀』의 교류기록을 중심으로」

<특집논문 II>동아시아의 섬, 군사기지 공동자원

백영경, 「태평양 지역 섬의 군사화와 탈식민, 그리고 커먼즈」

조성윤, 「미크로네시아의 미 군사기지와 탈식민주의」

정영신,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투쟁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변동」

전갑생·김민환, 「포로수용소의 설치 및 해제와 주민들의 고통: 제주 통

영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 남경우, 「제주 4·3을 기억하는 방법-제주 4·3평화기념관을 중심으로」
정광중, 「선홍곶지왓 동백동산 탐방로 주변의 학습자원 발굴과 학교교육
의 활용을 위한 방향성 탐색」
張熙興, 「中國歷史 教科書의 韓國歷史敍述과 認識-開港期를 중심으로」
민영현, 「남북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있어 檀君學의 의미와 그 역할-
附. 檀君敎佈明書와 三一哲學의 이해를 중심으로」
김진영, 「제주사회의 공공갈등 인식과 갈등관리 방안 모색: 주민자치위
원회 위원 대상 조사연구」

『탐라문화』 59호(2018.10.31)

<특집논문 I> 제주4·3의 역사적 해석과 현재적 의미

- 변현정·고경아·허선주·송은경·정창원, 「종전 후 외세의 개입에 따
른 영향과 갈등-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살펴본 제주4·3과 대만
2·28의 遠因-」
한철호,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내용과
향후 집필 방향」
윤여일, 「동북아 비핵지대와 제주 비핵조례-평화의 섬 구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일반논문>

- 이경섭, 「新羅 三千幢의 性格과 推移」
이주희, 「『聖德太子傳歷』에 반영된 新羅觀과 그 撰者」
정순여·김대훈·양인하, 「제주도 들불축제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의 인식에 관한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
양미경,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의 방향 모색」

『탐라문화』 60호(2018.02.28)

<특집논문 I>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박영철, 「황해남로와 동아지중해-원·명교체기 제주도의 해양사적 위상-」

권용철, 「13~14세기 元-耽羅 관계 연구 동향 분석」

임상훈, 「14世紀 麗明關係와 濟州島의 歸屬 過程」

유종수, 「五代末・北宋初 湖南 정국과 溪峒諸蠻의 동향」

윤은숙, 「元代 중・후기 皇權과 權臣-특 테무르와 토곤 테무르 시기를 중심으로-」

<특집논문 II> 제주의 문화와 문화콘텐츠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창출」

송화섭, 「제주도 뱀신화와 뱀신앙의 문화 계통 연구」

고수미, 「제주도 방사탑 축조현황과 문화콘텐츠 활용」

장훈교,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김준표, 「제주지역 여성노동의 유형별 비교 연구」

최낙진, 「1950년대 제주신보 독자의 소리 지면 특성 및 기능에 관한 연구」

편집위원회 告示

이번 『탐라문화』 제61호에 투고된 논문은 10편이고, 편집위원회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5편의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모두 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총 장 송석언
원 장 전영준
운영위원 강문중 고성만 김치완 방호진 신우봉 양정필 이동철 이영돈
 이창익 장창은 조성식
부 원 장 김은희
편집위원장 서영표
편집위원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학) 류찬열(중앙대학교 교양학부)
 민영현(부산대학교 철학과) 박준호(전북대학교 철학과)
 배영미(일본 大谷대학교 국제문화학과) 안종철(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장희홍(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진영중(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최낙진(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허대식(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홍종욱(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조 교 문지원
편집조교 신소연

탐라문화 제61호

초판인쇄 2019년 6월 25일
초판발행 2019년 6월 30일
발 행 인 송석언
편 집 인 전영준
발 행 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 064)754-2310
 홈페이지: <https://tamla.jejunu.ac.kr>
 E-mail: tamla@jejunu.ac.kr
제작·공급 열림문화
 우)63217 제주 제주시 청굴로 15
 전화: 064)722-7943
 E-mail: sunjin8075@hanmail.net
